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5일, 19일, 26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16일(음력2월 7일) 수요일 (주간) 제517호

# 說禪의 울림, 하늘도 '雪雪'

## '간화선… 설선대법회' 입제 3천불자 운집

### 3월 5일 범어사서

선찰 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가 3월 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904년 부산지역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3000여명이 보제루와 대웅전 앞마당 금강계단 등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날 입제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설선대법회가 눈 밝은 선지식들의 법문에 목말라하는 대중에게 청량한 감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에서 "한국선의 중흥조였던 경허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선찰에서 열리는 설선대법회를 통해 금강같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이어질 10대 선사들의 법문은 마음속에 자라는 무명수를 잘라내는 금도끼가 될 것"이라며 법회를 개최한 의의를 전했다.

관련기사 9 · 24 · 25면

범어사=천미희 기자



선(禪)의 울림은 설(雪)이 되어 금정산을 뒤덮었다. 3월 5일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에서 3천여 사부대중은 '선문(禪門)'을 열겠다는 일념으로 폭설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사진=고영배 기자

# 출가 나이 안 묻겠다

## 조계종 '연령제한' 폐지키로

### 21일 중앙종회에 상정

승가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조계종의 '40세 출가연령제한' 제도가 출가자 감소 등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3월 11일 종무회의를 열고 출가연령제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조계종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2003년 9월 중앙종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 개정된 교육법은 제55조 1항의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이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이던 것을 '40세 이하'로 강화 한 것으로, 종단 내 율원 · 선원을 비롯해 재가자와 일반사회의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514호 2면 참조 · 관련기사 4면

그러나 이번 결정이 당장 출가연령제한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21일 열리는 임시 중앙종회에서 출가연령제한 폐지 안건이 상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폐지안이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은 현행 승가교육제도와 법계제도가 안정돼 있어 출가연령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용수 기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3월 19일 오후 2시 범어사 / 법주: 고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 농촌경제 활성화에 뛰어든 두 스님

옥천 혜철스님 도라지 특화사업에 '희망' 심어

순천 혜우스님 차 재배와 제다 병행 수익 증대

# "함께 잘 살면 그게 수행이고 포교"



혜철 스님



혜우 스님

*#1* 충북 옥천군이 '도라지 특화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라지를 옥천의 특산물로 특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꽃길도 조성하는 등 도라지를 옥천의 얼굴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렇게 옥천군이 도라지 특화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바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제안' 때문이다.

"IMF 이후 지역 경제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성직자이기 이전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도라지 특화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도라지일까. '옥천군의 특화작물로 삼을 만한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어디에서 들었던 도라지 생각이 났다. '가꾸기도 쉽고, 꽃도 예쁘고, 수익성도 좋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혜철 스님은 2000년 자신의 사찰에 도라지를 심고 3년 동안 시험재배를 했다. 그 결과 들었던 대로 수익성도 있고 꽃도 아름답고 재배도 쉽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혜철 스님은 2004년 초 옥천군에 '도라지 특화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해 10월에 군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짤막한 답변뿐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예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자료까지 갖춰 군에 제출해야겠다고 결심한 스님은 옥천 농업기술센터, 충북농업기술원, 충북과학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혜철 스님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 2일 다시 옥천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옥천군은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도라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모으고, 관련 서적도 탐독하는 등 세밀하게 연구했다는 혜철 스님. 스님의 마지막 말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함께 잘 살면 그게 수행이고 포교 아니겠습니까"(043) 732-5560

*#2* 2년 전부터 차(茶) 농사를 짓고 있는 전남 광양시의 김성현씨는 제다법을 배울만한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대부분의 제다인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던 김씨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다. 20여년 가까이 차를 만들어 온 혜우 스님이 최근 섬진강 근처의 폐교를 인수해 '혜우 전통덖음차 제다교육원'을 연다는 것이다. 제다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으로는 최초일 뿐 아니라 더 반가운 것은 교육이 전액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다교육원장 혜우 스님은 "농민들이 찻잎을 생산하는 중간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교육원을 열게 됐다"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찻잎을 재배해 직접 가공 ·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농가의 수익증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더 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4년 전부터 교육원 마련을 준비해왔다.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난 1월 폐교된 순천 용남초등학교 비룡분교를 인수해 3월 19일 드디어 교육원 개원식을 열게 됐다.

4월부터는 인근 다압, 순천, 광양, 광주 등지의 농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생들이 생산한 차는 혜우 스님이 품질을 검수하고, 교육원의 이름을 달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스님은 농민들과 차인들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만을 맡고자 한다.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그 제품을 시장에 내 놓는 것 모두가 농민들의 몫이자 그들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이다.

시주로 생활하다 보니 마시는 차라도 직접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 어느 덧 19년. 제대로 만든 차 한 통이 지역 경제와 국민 건강의 기반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주목된다. (061) 782-1443

옥천=한명우 / 순천=여수령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지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 범어사 설선대법회

근래 들어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비등한 가운데 특히 한국불교계에는 간화선풍을 바로 계승하고자하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때맞춰 선찰대본산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성월, 용성, 동산, 전강, 고암 대 선사 등 근 현대 대선지식들의 수행가풍이 올곧게 살아 있는 범어사에서 이 같은 법회가 열리는 것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참가 대중에게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인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설선대법회에 참석하시어 구름에 가려진 마음의 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문 없는 문을 열다**

- 기간 : 3월 5일 입재 ~ 5월 7일 회향. 매주 토 / 총 10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법회 – 보제루 / 부대행사(참선 등) – 설법전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본사 범어사,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불교연합회, 범어사 신도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시 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거사림회,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 부대행사
  -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 주말 참선 체험 (토요일 법회 종료 후, 19시 입선 ~ 23시 방선)
  -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전체 정진 참가자에게는 안거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 법회 동영상 중계는 beomeosa.co.kr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약은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됩니다.
- 법회 비디오 · 카세트 테이프 · 오디오CD는 현장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동참문의 : 범어사 원주실 ☎ 051)508-3636

**3월 5일 입재법어**

설선대법회의 의의



지유 대선사(범어사 조실)
- 질의 법사 : 구주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곽만연(동아대학교 교수)

**5월 7일 회향법어**

무차선(無遮禪)법회



진제 대선사(동화사 조실)

**3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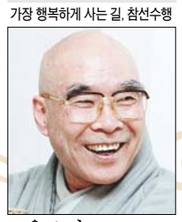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 질의 법사 :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
- 재가 질의자 : 김건중(조계종 국제포교사)

**3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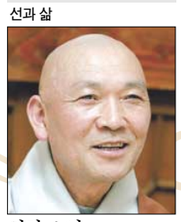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
- 질의 법사 :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재가 질의자 : 강동균(동아대학교 교수)

**3월 26일**

선과 삶



인각 스님(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 질의 법사 : 효암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지호경 (부산불교실업인회 감사,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4월 2일**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 질의 법사 : 중대 스님 (전 태안사 선원장)
- 재가 질의자 : 박근호 (전 부산영남교정인불자회장)

**4월 9일**

선 수행의 바른길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 질의 법사 : 강설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 재가 질의자 : 최익두(부산시법우회장)

**4월 16일**

생사 문제와 선수행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 질의 법사 : 영일 스님 (수좌)
- 재가 질의자 : 이대원성(연꽃모임 명예회장) 류상영(대불청 부산지구회장)

**4월 23일**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원융 스님(해인총림 수좌)
- 질의 법사 : 홍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감)
- 재가 질의자 :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영광도서 사장)

**4월 30일**

선 수행의 단계



정광 스님(봉암사 태고선원장)
- 질의 법사 : 지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 재가 질의자 :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조계·태고종

# "대화로 분규 마침표 찍자"

## 봉원사문제 해결위한 '대책위' 구성… 연내 마무리 '기대'

### 10여 사찰 해법도 '자동수순'

분규사찰인 신촌 봉원사 문제에 대해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3월 9일 각각 종무회의를 열고, 양측 9인으로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를 재개하게 된 것은 2월 1일 대법원의 '조계종 명의로 토지 등기된 것을 말소하고 원래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소유권 확인 등의 소송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 후 조계종 총무원은 대화를 통해 분규사찰의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고 항소를 취하한 후 3월 4일 태고종 총무원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봉원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회답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봉원사 문제는 빠르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 타결지을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봉원사 문제만 해결되면 조계종과 태고종의 10여개 분규사찰들도 봉원사에 준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현 스님도 "분규를 종식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 봉원사와 관련한 합의에 준하겠지만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봉원사와도 의견을 조율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사자격인 신촌 봉원사(주지 구해)는 3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의 교단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불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손잡고 같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희망에서 조계종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은 대표단을 꾸려 여러 번 만났다. 1989년에도 합의안까지 도출 △선암사는 재단법인을 설립 7대 6으로 이사를 구성 이사장은 조계종에서 맡는다 △봉원사는 5대 5로 재산을 분할 관리한다 △나머지 분규사찰은 실무대표단에서 계속 협의한다 등에 합의했다.

95년 1월 17일에도 조계종은 '조계·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 태고종은 '태고·조계 사찰분규 종식위원회'가 구성돼 89년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으나 토지처분 문제가 불거져 봉원사 사중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이후 99년 7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스님이, 2001년 11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만났으나 조속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현재 조계종 태고종의 분규사찰은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인천 용궁사 등 10여개이다. 분규사찰의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조계-태고종간의 미묘한 현안이 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서울전문강당 제2기 입학식 성료**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운영위원장 청화) 제2기 입학식이 3월 7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렸다. 신입생 모집에는 총 118명이 신청, 82명이 합격했으며 가섭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지낸 스님 62명,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직장인·포교사 20명이 등록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교육원

# 70%가 사설사암… 관리강화 법제화 어떻게?

## 조계종 특위, 미등록·임의처분 등 징계 근거장치 마련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66회 임시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2003년 11월 기준으로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 조계종 사찰의 64% 정도가 사설사암인 셈이다. 2005년 3월 현재 사설사암 수는 조계종 사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 소위원회가 3월 9일 검토한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창건주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거나 종단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대여하면 징계한다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사암'이라 함은 조계종 스님 혹은 신도가 종단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해 종단에 등록해 운영하는 사찰로, 재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영원히 귀속되어 있으나 종단에서 인정하는 창건주 또는 창건주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며 용어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종단에의 등록'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를 종단으로 귀속시킴을 의미한다"며 종단 귀속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설사암 창건주는 본인을 포함해 조계종 스님을 주지로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창권주 권리를 사자상승 할 수 있는 등 권리도 인정했다. 신도창건주일 경우 그 권한은 당대에 한정되며 이후 공찰로 귀속된다. 명시적 승계 절차 없이 창건주가 입적할 경우 그 직계 1대 제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의 문도회의에서 승계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창건주에게 직계 1대 제자가 없거나 창건주 스님에게 멸빈 징계가 확정된 경우, 조계종 스님이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종단으로부터 제적처리된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나 주지의 지위에 관해 종단의 정상적 불복 방법을 거치지 않고 종단에 대해 사회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찰로 종단에 귀속된다. 납부되지 않은 종단 분담금이 합해 3년 이상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경우도 해당교구 본사 주지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설사암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 00사(암)'나 해당 교구본사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을 완료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미등록 사유 소명 없이 1년 이상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거나 사찰 기본재산을 종단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대여한 자, 주지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사찰재산 명의를 변경시킨 자, 사설사암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자 등은 승려법 제47조를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16일 사설사암 특위 전체회의와 법제분과위 심의를 거쳐 제166회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쓰나미' 성금 19억7천만원

## 조계종, 복지타운조성 등에 사용 계획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돕기 성금 모금이 20여억원의 기금을 접수한 가운데 최종 마감됐다.

조계종 22개 교구본사와 현대불교 등 사찰과 언론, 신행단체, 개인 등이 동참한 이번 성금모금에는 총 19억7천2백59만5307원이 접수됐다. 이것은 통장 성금과 ARS접수로 모금된 금액으로 조계종은 기금을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과 '자비나눔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남아시아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성원덕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며 "성금을 사회에 회향해 자비와 보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만세루 등 복원키로 조계종·조불련 합의

2005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은 3월 2일부터 4일간 전문가 회담을 진행해 올해 만세루와 산신각, 요사채, 3층석탑 등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4월부터 만세루 복원 불사를 곧바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요사채와 산신각 터 발굴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조만간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불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구체적 실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사회특보 지원 스님은 "올해 복원불사는 가능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 명실상부한 통일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9월 조계종 중앙박물관 개관 기념 북한 불교문화재 전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종단지침 따르겠다" 능인선원 입장 밝혀

능인선원(원장 지광)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3월 9일 "능인선원측이 종단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능인선원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에 대해 등록말소를 결의하고 능인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했다.

무관 스님은 "능인선원측이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어 사회복지재단 정관에 종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무관 스님에 따르면 능인선원측이 법인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이사 과반수를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하며, 재단을 해체할 때에는 종단에 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빠른 시일 내 지광 스님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참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부해 왔던 됐던 종단 감사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 성호 스님 종정 표창패 명정 스님 총무원장 사서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사찰불사와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표창패를 받았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11일 법전 스님을 대신해 표창패를 수여하며 성호 스님을 격려했다.

한편 같은 날 총무원장 수행사서에 명정 스님이 임명됐다. 수덕사에서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명정 스님은 1995년 사미계, 9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 탄우 스님 제적처리 조계종 '승려법' 적용

논산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조계종 중앙 종회의원)이 3월 7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제적됐다. 따라서 종회의원직도 박탈됐다. 근거는 승려법 제54조 3항 1의 다와 2의 가. 승려법 제54조 3항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로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와 '입적신청에 허위가 밝혀진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속·직권제적된 것이다. 관촉사 새 주지로 태진 스님이 9일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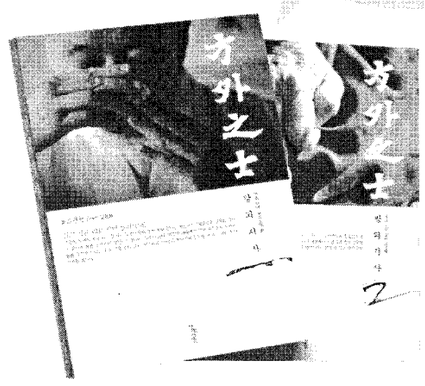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직장에 얽매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왕에서 무림고수까지 고정관념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헌 지음 (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초빙교수,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9,000원

방외지사 1·2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오늘의 한국 땅에 사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방외지사 1·2

-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집을 수목원으로 일구는 시원 박태후의 귀거래사
- 뗏목 타고 서해 바다를 탐험하는 장보고의 후예 윤명철 교수의 대담무쌍한 도전 정신
- 백수의 제왕 강기욱의 "눈 먼 새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온다"는 백수 철학
- 교사 출신으로 중국 제1의 도교 문파인 화산파 23대 장문인이 된 곽종인의 여자 신선의 길
- 할리 데이비슨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전직 기자 출신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생존법
- 역술계의 이종격투기장인 부산에서 입신양명한 박청화의 진기한 역술 공부 이야기
- 서울 이태원에서 계룡산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산중무예 기천문 문주 박사규의 인생 역정
- 50년 세월 동안 한라산에서 화두를 잡고 초절의 삶을 사는 비구니 대각심 이야기
- 전국의 강을 두 발로 걸어다닌 신정일의 "걷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뚜벅이 인생
- 의사는 부업, 주업은 도학으로 평생 스승을 찾아다닌 내과의사 이동호의 구도 역정기
- 차 잎 냄새만 맡아도 원산지를 맞추는 품명가 손성구가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맛
- 실상사 앞에서 70 평생 발우를 만들며 살아온 지리산 터줏대감 김을생의 자연주의 인생론
- 늙어갈수록 아름답다는 나무의 철학을 깨치며 전통의 혼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이정곤의 삶

정신세계원 www.mindvision.org (02)747-7033

# 안산에 외국인전용 법당 생긴다

## 20일 개원…한글학교 · 각종 상담 등 편의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이들을 위한 법당이 마련된다. 장소는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이 위치한 현대쇼핑 3층. 3월 20일 문을 여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법당은 법회는 물론 한글학교, 각종 상담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은 보문선원과 스리랑카 출신인 왓치사라 스님이 맡기로 했다. 법당에 상주하면서 예불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을 할 스님도 조만간 온다. 보문선원 측은 현재 스리랑카 노동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와 법회를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에게도 개방해 진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법당은 한글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보문선원 한글학교가 전신이다.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왓치사라 스님과의 인연으로 한글학교를 개설했다. 매월 두 차례 일요일 법회와 수업을 진행한지 1년만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20여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의 이연옥 국제포교사가 직접 한글학교 강사를 맡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개원을 앞둔 외국인 전용법당은 앞으로의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해 온 보문선원의 지원과 자원봉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법당 임대비용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제포교사회가 컴퓨터 지원, 한글 교육 자원봉사,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 등을 약속했지만, 운영자금 부족분은 후원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평소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 없어 추진하게 됐다"며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전용법당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어요"** 정치 · 경제 · 공공 · 시민사회 4개 주체가 우리 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을 3월 9일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맨 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김덕규 국회부의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이남주 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 45명이 협약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제도도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있다"며 "승려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종단 투명성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 '천성산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

### 환경조사 사회적의미 여론화 등 주도

3월 20일경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연합을 비롯한 45개 시민종교단체는 3월 9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도법 · 지율 등, 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의 사회적 의미를 여론화하고 △생태기행과 역사문화기행, 천성산 식목행사를 비롯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00만 마리 도롱뇽 조형물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말~4월초에는 천성산 문제와 관련한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환경조사 기간 중 각계 의견을 발표한다.

연석회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공동대표는 "연석회의는 천성산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율 스님은 "공동조사에서 터널과 늪, 지하수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터널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철주 기자

## 교구본사에 노인복지시설 설립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계획 수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이 교구본사별 노인복지시설 개소와 복지행정체계 구축을 '설립 10주년 특별기획사업'으로 선정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3월 10일 '사회복지재단 10주년 특별사업' 14개항 발표를 통해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방안으로 교구본사별 노인복지시설 유치 또는 자체 운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와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재단에 행정적 집행권이 없어 종단 복지를 총괄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 종법 재 · 개정, 연구소 개소, 불교복지회관 건립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 정책기구로 바로 세우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재단은 6월 9일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종단 복지 체계화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이미지 통합 사업과 10년사 발간, 후원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김강진 기자

## 출가 · 열반절 정진주간 사찰서 참회하며 뜻깊게

### 전국서 '108 대참회문' 발원문 낭독

불교계 4대 명절에 속하는 출가절(3월 17일)과 열반절(24일)을 잇는 8일동안 전국 주요사찰들이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02-2011-1905)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02-733-7277)는 출가 열반절 참회발원 정진법회 '출가에서 열반까지-발심과 수행을 선도하며'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포교신도단체 소속 회원 및 재가불자들은 매일 조계사에서 저녁예불을 마치고 초청법사 법문을 들은 뒤 108대참회문 발원문을 낭독한다. 법사로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17일)을 시작으로 암도 · 명진 · 수불 · 정락 · 청화 · 무진장 · 성타 스님이 초청됐다.

각 교구본사 및 말사와 광역신도회 등도 108 참회, 경전독송, 입정, 서원문과 수행점검표 작성, 보시금 적립 등 개인 정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개별 사찰에서도 출가열반절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불광사(02-413-6060)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바라밀 수행정진 발원'이라는 주제로 출가 · 열반절 법회를 봉행하고, 바라밀 수행 특별정진과 참선,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조계사(02-732-2115)는 출가 · 열반재일 법회 외에 발심정진주간을 선포하고 금연 금주 육식안하기 오후불식 등으로 절약한 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대구 법왕사(053-766-9088)는 정진주간동안 팔상성도(八相成道 · 부처님 일대기) 대법회를 오전 10시 30분 108배를 시작으로 봉행한다. 봉인사 선원장 지산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동국대 교수 도오 스님 등이 8일동안 매일 법문한다.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오전 10시 108 참회기도로 시작되는 '니르바나정진대법회'를 개최한다. 8일동안 칠불암 회주 월암,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범어사 한주 관조 스님 등 8명의 스님이 법문한다.

부산 홍법사(051-508-0345)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예참기도를 진행한다. 자비도량참법 독송과 더불어 기도기간 중 수계식도 준비하고 있다. 광명 금강정사(02-893-2700),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 인천불교회관(032-442-9910) 등도 자비도량참법 정진을 한다. 서울 봉은사(02-511-6070)는 <유행경> 강독을 정진주간 내내 진행하며,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금강경> 사경 및 108배 참회 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정토회(02-587-8990)는 전국법당에서 출가열반일 용맹정진을 벌인다.

서울 도선사(02-993-3161)는 열반절인 24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10시부터 혜성, 현성, 혜자 스님이 연달아 법문을 하고 고성 문수사 경천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계한다. 서울 법장사(02-971-0303)는 23일 강화 보문사 전등사로 사찰순례를 떠나 출가열반의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 향림사(062-375-7600)는 열반절에 조사스님에게 올리는 다례식을 봉행한다.

강지연 기자

### JTS, 北에 의약품 등 전달

한국JTS(대표 유수)는 3월 12일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평양시 천남리를 비롯한 형제산구역 천남협동농장에 의류와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의약품 21박스, 이불 100채, 가방 2500개, 유아용 양말 1만 켤레, 여성용스타킹 1만 켤레, 볼펜 30만 자루, 공책, 의류 600여 박스, 마대 200자루 등으로 40피트와 2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이다.

특히 이불100채는 공주 동학사가 북한지원을 위해 기증한 300채 중 일부로 형제산구역내의 유치원에 지원될 예정이며, 나머지 200채는 이후 라선 지역의 유치원에 지원된다.

유철주 기자

### 올 남북공동행사에 불교계 적극 참여키로

불교계가 6 · 5남북공동선언 5주년과 8 · 15광복 6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남북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불교평화연대 등은 3월 8일 송현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종단과 단체들은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실무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연꽃특별대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동행'.

### 전국불교만화공모전 특별대상 진미정 '동행'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금해)가 개최한 제4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연꽃특별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에 진미정씨의 애니메이션 '동행'이, 연꽃대상에는 최덕현씨의 인쇄만화 '진리의 말씀'이 선정되는 등 총 29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작품은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불교만화잡지에 <불교만화이야기>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053)474-0344

강지연 기자

### 외국인학생 템플스테이 17~20일 금산사서

국내 대학원의 석 · 박사 과정 중인 정부초청 외국인 국비 장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3월 19~2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은 프로그램 참가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을 포함한 참선, 다도, 스님과의 대화, 새벽길 산책, 염주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02)732-9925

강지연 기자


#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2005년도 작법반 신설 모집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계승 전수하며 한국불교 문화의 꽃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등을 영산재 회원 및 학인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작법반을 신설 개강하여 범음, 범패 학과는 심사후 편입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작법반 신설 개강

| 학 년 | 강의내용 | 교 수 진 | 모집인원 |
|---|---|---|---|
| 작법반 | 바라 일체, 나비춤 일체, 법고춤 일체 | 교수 이기봉 조교 한해사 | 50명 |

**2. 모집내용 :** 편입생

| 학 년 | 강의내용 | 교 수 진 | 모집인원 |
|---|---|---|---|
| 1학년 | 상주권공과(일용의식) | 전수교육조교 이기봉 | 30명 |
| 2학년 | 각배과 | 준 보 유 자 김구해 | 20명 |
| 3학년 | 영산과 | 전수교육조교 마일운 | 20명 |
| 이 론 | 불교의식각론 | 교 수 심만춘 | - |

**3. 응시자격**
승려 ·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 (반명함)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3월 14일 ~ 3월 24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7. 합격자 발표 :**
2005년 3월 25일

**8. 추가 입학일 :**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9. 특 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0. 문의처 :**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종 무 소 02)392-3007~8
팩 스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학장 마일운

# 출가정신 훼손 등 '득보다 실' 많아

**조계종 출가연령제한 왜 없애나**

## 출가인원 줄고 고급인력 타종단 선택 늘어
## "법계 · 승가교육체계 정착 … 부작용 적다" 공감

2003년 9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입법화된 40세 출가연령제한의 가장 큰 목적은 출가자원의 자질향상이었다. 당시 연령제한 도입을 주장한 이들은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풍토를 어지럽히는 등 대중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종법 개정을 통해 고령 출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원 실무자들과 기초 · 기본교육 관계자들의 의견도 대부분 출가연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었다.

그러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가자 연령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출가 자원의 감소였다. 대신 같은 시기 타종단의 출가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은 조계종으로 출가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발심자의 출가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3월 9일 열린 교육원회의는 법개정과 관련해 △40세 연령제한 고수, 연령 초과자는 심사 후 선별 출가허용 △50세 연령제한 환원, 연령 초과자는 심사후 선별 출가 허용 △연령제한 완전 폐지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 관계자는 세 번째 완전폐지를 주장한데 반해, 일부 스님은 현행 40세 제한 고수를 주장하는 등 이날 회의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인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40세 이상 출가자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종단의 자신감도 한몫했다. 교육원도 종단의 법계 · 승가교육체계가 정착된 만큼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령행자는 사실상 행자교육원에서 다 걸러지고 있고, 기초, 기본,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5 · 4 · 3급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의 위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고령출가자가 이전처럼 승가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폐지 반대를 주장한 쪽도 시행 18개월 밖에 안 된 법을 다시 손댄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회의가 제도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종단 구성원들과 사회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종회 교육분과위 본각 스님은 "더 이상 출가제한의 명분이 없으며, 이왕 풀 것이라면 3월 임시종회에서라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승가교육의 질'이 하락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기존 스님들과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교육체계를 만드는 등 종단 차원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한국 학자들 간다라 유물 50여점 발굴

간다라 불교미술의 보고 파키스탄 탁실라 지역에서 불상 50여 점과 탑원지 · 스원지가 발굴됐다. 탑원지 · 승원지 발굴은 근래에 없던 일인데다 한국 발굴팀이 일군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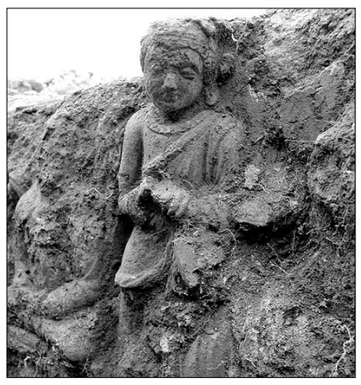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발굴팀은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탁실라(Taxila · 세계문화유산)의 사원터에서 부조상을 포함한 불상 50여점과 동전 · 못 등의 금속품, 토기 등 300여점을 발굴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발굴팀이 발굴한 지역은 가로 · 세로 300m 크기의 절터로, 승원지와 탑원지로 구성돼 있다. 탑원지가 승원지보다 한 단 아래에 위치하며 계단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불상이 다수 발굴된 지역은 탑원지의 탑 주변으로, 머리까지 있는 불상 3위와 머리가 떨어진 불상 12위 등 50여 위의 불상이 발견됐다. 불상 가운데는 최초의 불상에 후대에 다시 회를 발라 부조한 2중 기법의 불상도 발견돼 간다라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팀은 동전이 초기 쿠샨시대인 1세기 것이고, 승방지와 주탑의 벽면 구조가 1~2세기에 유행한 것이며 초기의 힘찬 기법으로 조성된 2중구조의 불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세기에 조성된, 이른 시기의 사원으로 추정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000여년 만에 빛을 본 '간다라의 미소'. 석회와 모래 등을 섞어 빚어진 소상(塑像 · 스투코)이다.

## 목탁소리

### 말 많은 동국대 조직 개편

올해 초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을 놓고 학교 안팎에서 말들이 많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개학부와 유관 특수대학원을 통합한 부분. 이에 따라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도 구 중앙도서관 2층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동국대의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특수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활한 신입생 유치, 행정인원, 공간, 보직수당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다. '대학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취임 3년차 홍기삼 총장의 의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교직원 사회의 생각은 좀 다른 모양이다. 타 대학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들은 기대했던 경쟁력 강화나 신입생 유치확대는 고사하고 겸임 보직으로 늘어난 업무 하중 때문에 대학원 부실과 행정력의 감소만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시행초기의 혼란과 불안감일 뿐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은 이번 시도의 성공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변화가 더딘 대학사회를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타 대학의 실패사례가 주는 교훈을 동국대는 왜 좀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지 답답하다.

**조용수 기자**

### 여성의 날 침묵지킨 불교계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 이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계 최대숙원 사업이던 호주제 폐지와 시기를 같이 해 더욱 뜻 깊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1985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며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를 불교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여성불자연합회와 불교여성개발원 등은 아무런 행사 없이 이날을 보냈다.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이 갖는 위치가 상당한데도 불교계 내부의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간 호주제 폐지와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공동연대활동을 펼쳐온 불교계 여성단체들이기에 이 같은 무덤덤함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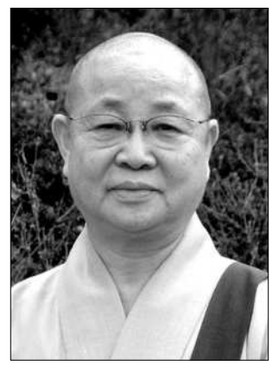
불교 여성단체가 사회현안에 소극적인 이유는 단체 내부 체계를 정비하느라 외부로 시야를 돌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비 지원금의 한계, 만성적인 인력부족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 불자의 권익신장은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 여성 불자들, 더 크게는 사회 속의 여성들에 대한 불교계 여성단체의 체계적 접근과 구체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교계의 내실 다지기가 여성 불자의 참여영역을 넓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7> 자민 스님

# 후학양성 · 사회사업 헌신



범어사 팔상전 앞에 선 14살 소녀는 팔상전을 장엄한 탱화와 벽화에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아득함을 느꼈다. 당시 최고의 선지식 동산 스님을 뵈러 간다는 친구를 따라 나선 것이 그대로 출가로 이어진 것을 보면 필시 그곳과 무슨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천안 연대선원 자민(67) 스님은 1952년 범어사 대성암의 혜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 했다.

자민 스님을 만난 곳은 서울 둔촌동에 있는 작은 절 보성사였다. 신도들을 위한 법문을 준비중인 스님은 요즘도 서울, 부산, 천안, 인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신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쟁이 끝나고 비구 · 대처승 분규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스님은 일찍이 승려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았다. 근대 첫 비구니 교육기관이었던 논산 정덕사에서 순천 선암사로, 다시 동화사, 운문사 등지로 경(經)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갔다. 그러다 삼척 영은사에서 당대 대강백이었던 탄허 스님을 만났다.

"탄허 스님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불선 삼교에 능해, 유명한 <주역선해(周易禪解)><장자> 등을 가르치셨는데, 이 무렵 제가 본격적으로 교학에 뜻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지요."

탄허 스님에게서 사집을 마친 스님은 이후, 관응 · 성능 스님에게 6년간 사교와 대교를 배웠다.

70년 음력 12월 11일, 스승인 성능 스님의 생신날 아침이었다. 개심사강원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생신상을 받아든 노장은 뜻밖에도 자민 스님에게 '보월'이라는 당호와 전강게를 내린다. 스님이 스물아홉 되던 해였다. 한영 스님의 강맥을 이은 성능 스님은 '장엄염불'의 한 구절인 '若不傳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부처의 법을 전하여 중생제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필경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자라 할 수 없다)'라는 지엄한 경구로 자민 스님에게 강맥을 전했다. 그렇게 제방 강단에서 후학들을 위해 교학을 폈던 스님은 82년 경기도 고양의 흥국사 강원을 마지막으로 강사의 길을 접었다.

## 친구따라 동산 스님 친견 갔다가 출가
## 29세때 전강게 받고 30여년 강사의 길

출가 30년 되던 해 본격적인 대중포교에 나선 것이다. 산문을 나오자마자 조계종 비구니회를 이끌던 혜춘 스님을 도와 비구니회관의 터를 닦았고, 재단법인 선학원의 임원으로 다양한 사회사업에 헌신했다. 1월 12일에는 서울 보명사 주지 상원 스님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해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해 선학원이 지원하는 생필품과 복구지원비를 전달하고 왔다.

"이재민들의 처참함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탑과 불상만은 온전히 지켜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는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자민 스님은 "불교가 성하는 길은 절을 크게 짓는 것 보다 스님 · 신도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불법홍포의 원력을 다짐했다. (02)853-2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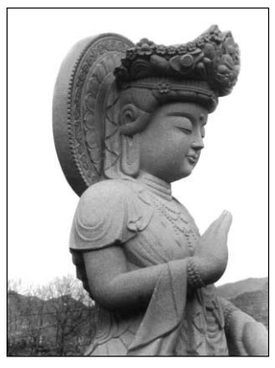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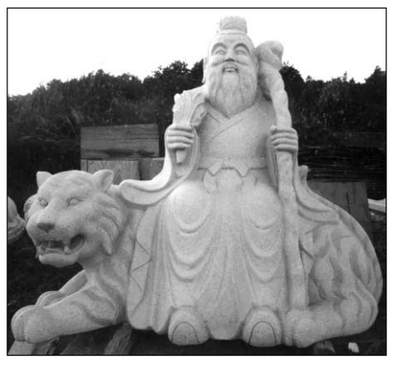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문화 답사 학과 개설
(3년과정)

1. 교 과 목
· 한국불교문화 I (불교미술중심)
· 한국민속문화 I (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 II (인물, 사상, 신앙)
· 한국유교문화 I (궁궐, 서원, 종묘)
· 해외불교유적 I (중국, 티벳)
· 해외불교유적 II (인도, 동남아시아)
2. 교 수 진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교수)
· 남성훈교수(전 전남대)
3. 개 강
2005년 4월 6일(수) 오후7시(매주수요일)
4. 불교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과 매월 현장답사교육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 해설사 양성을 목표함.

동산 풍물반 개설
(1년과정)

1. 우리고유의 전통인 풍물 사물을 중심으로 한 영남 농악, 소북, 그리고 법고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풍물반을 개설합니다.
2. 교 과 목

| | |
|---|---|
| 풍물(사물)반 오전 11시 | 북, 장구, 징, 꽹과리로 구성된 영남농악 |
| 소북 · 법고반 오후 2시 | 북과 법고를 위한 교육강좌 |

3. 강 사 · 신유진 원장
4. 개 강
2005년 3월 20일(일) 오전11시 (매주일요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부산 개금복지관 '사랑의 집 고치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2~11일 장애우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세대의 집을 개조해 주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의 수혜자인 장애우 유정우씨가 새로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 불편 없는 집, 사랑으로 고쳐드려요

## 장애인 ·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지원
## 노인들 시공에 참여 일자리 창출

집안에서 주로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지기 쉬운 봄, 부산 개금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세대에 봄바람보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용하)이 평소 넘어가기가 힘들었던 베란다 문턱도 없애주고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베란다 새시 시공으로 찬바람도 막아주고 더러워진 벽지도 말끔히 도배해 준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 봄맞이 대공사는 개금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어려운 형편 탓에 불편을 참고 견디며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장애인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기쁨은 더할 수 없이 컸다.

이번 공사는 외출이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안의 시설을 개조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동선을 고려해 세심하게 진행됐다. 20㎝ 정도로 높게 설계돼 넘어가기 힘들었던 안방과 베란다 사이의 문턱을 없애고, 세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현관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안전봉을 설치, 이동성을 한층 높였다. 뿐만 아니라 오래돼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하거나 화장실 문을 다는 작업까지 집안 구석구석의 개보수는 물론 편의시설까지 꼼꼼하게 살핀 시공이었다.

특히 이번 공사는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점 외에도 부산진자활후견기관에 시공을 의뢰,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해 의미를 더했다. 상대적으로 시공비용을 절감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이나 노년에도 일하는 보람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개금복지관 김수미 복지사는 "9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다 보니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 더욱 좁게 느껴진다. 때문에 높은 문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한다"며 공사후의 반응을 전했다.

개금복지관이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았다. 복지관 주 이용자인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주민들이 높은 문턱의 불편을 호소하자, 그 애로점을 풀어주겠다는 소박한 동기로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했고, 향후 보다 다양한 개보수, 편의시설 집수리 사업으로 확산되면서 개금복지관은 부산시내 집 고쳐주기 사업의 첫 주자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박용하 관장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한분이라도 불편을 겪는 분이 남아있는 한 사랑을 담아 집을 고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51)893-5034

글 · 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청년불자 氣 살려 활동영역 확대"

## 구미불청, 대불청 지구승격 추진
## 부산불청, 청년포교 청사진 제시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구미지역의 청년 불교가 꿈틀대고 있다. 또 부산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청년불교 포교계획을 내놓았다.

구미지역 청년불자들은 3월 20일 오후 1시 개관하는 구미 불로사 불교문화회관의 운영을 불로사 청년회가 도맡는 것을 비롯, 구미불교청년회를 대한불청의 지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불교청년회(회장 이병정)는 이를 위해 구미불교청년회에서 활동 중이던 불자들을 중심으로 불로사 청년지회를 설립하고 지역포교의 일선에 뛰어들었다. 또한 1980년대 활발한 활동으로 얻은 구미불교청년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사찰 청년지회를 결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금강사에 청년지회를 창립했다. 각 사찰별 청년지회가 늘어나면 지구로 묶어 활동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93평 규모로 구미 봉곡동에 개원하는 불로사 불교문화회관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전달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문인화, 도자기, 가야금, 시민 선방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개원식이 열리는 3월 20일에는 오후 3시 봉곡동 테마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과 마야 어머니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054)442-0114

한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는 3월 5일 부산 소림사에서 창립 39주년을 맞아 '불청, 추억과 비전의 밤' 행사를 봉행했다.

창립 39주년 기념법요식과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박만탁. 이건국씨 등 역대 회장을 비롯 2백여 명의 선 · 후배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대불청 부산지구는 4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20대 청년 불자 포교를 위한 5개년 프로젝트 수립하기로 하고 복지, 봉사, 교육 등에 대한 장기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 "업장 맑히면 국토 청정해져요"

##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입제

참회와 계율 도량인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1951년 2월 8일(음력) 부처님 출가일을 앞두고 자운 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참회기도는 올해로 5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당시 함께 했던 청담, 운허, 성철, 향곡, 석암 스님 등 선지식들의 뜻을 이어온 삼천배 기도는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이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이어져 왔다. 해마다 삼천배 참회기도는 전국에서 모여든 2천여 명의 불자들로 삼천불전과 극락전을 비롯 법당 앞마당의 임시 천막 안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입제 법요식과 함께 시작되는 삼천배 참회기도는 5일 동안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참회기도 기간에는 지관스님을 비롯 인환, 정관, 홍선, 각성, 지안, 성우, 철우, 혜총 스님 등의 법문을 통해 지혜의 안목을 열어준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내 스스로 업장을 맑히면 내 자신은 물론 주위와 더 나아가서는 국토가 청정해진다"며 참회기도의 참뜻을 설명했다.

감로사는 참회기도법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삼천배 대법당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051)809-0926 천미희 기자

# 충북 전남 광주 400여 사찰, 1만여점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법주사서 첫 실시

사찰에 있는 성보문화재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2005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이하 일제조사)'가 3월 9일 충북 법주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용역을 받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성정)이 시행하는 이번 일제조사는 사업 4년차를 맞아 충북 · 전남 · 광주 지역에서 진행된다. 조사단은 충북 지역 150여 개 사찰에 750여점, 전남 · 광주 지역 250여개 사찰에 1만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사에는 고배율촬영 · 적외선촬영 · 탁본 · 실측조사는 물론 탐문조사도 병행하며, 중요한 성보문화재에 대해서는 X레이 촬영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DVD 및 보고서로 발간 · 배포해 성보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중요 성보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신청이 추진된다.

일제조사는 2002년 강원도 지역(109개 사찰 3200점)을 시작으로 2003년 전북 · 제주(258개 사찰 4328점)에서, 2004년에는 충남 · 대전(305개 사찰 7714점)에서 진행됐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리더로서 열정 갖고 정진하자"
##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1주년 법회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1돌 법회에서 원허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3월 9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왕선자 회장을 비롯한 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회원 기념품 전달, 우수 회원 공로상, 회장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왕선자 회장은 "그동안 군포교, 교도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다른 여성단체와 연계 여성 NGO 활동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여성불자들의 리더로서 열정을 갖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여성 불자의 방향'이라는 법문에 나선 원허 스님은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밝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행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불교계의 여성 리더로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 양정노인복지센터 독립기관 승격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는 3월 4일 감로사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개금복지관 병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의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위상강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 끝에 내려진 이번 결론으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시설, 서부노인학대 예방센터,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보다 원활하고 전문화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로 혜총 스님을 추대했다. 천미희 기자

# 송산 스님 1주기 맞아 부도탑 제막



범어사는 중앙승가대 학장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를 지낸 송산당 무근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3월 7일 범어사 부도전에서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제막식에서 대성 스님은 "법납 48년 동안 한결같이 흥선부교(興禪扶敎)에 전심정진하신 스님의 위엄과 자상한 대자비심을 마음에 새기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 대각사 흥교 스님의 송산 스님 행장소개로 시작된 이날 제막식은 부도탑 제막, 헌향 ·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 대구 자비의전화 재출범 고불식

대구 자비의전화는 3월 4일 대구불교회관 3층에서 '대구자비의전화 재출범을 위한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서 고경순 회장은 대구불교방송으로부터 임명장과 기를 수여받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또 장적 스님(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이 지도법사로 위촉됐다. 배지선기자


제1기 성륜불교문화재단 부설

동천불교대학 송파선원 학인모집

교육목적 禪敎 一知의 眞面目을 통해 佛祖의 慧命을 계승발전 시켜 참淨上의 時代에 걸맞는 수행과 참선, 강의를 통하여 오직 見性을 고대하며 나아가 一切衆生을 濟度할 法스승을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學人을 모집합니다.

교육인원 ○○명

교육과정 기초재교육과정 3개월, 중급과정 6개월, 고급과정 1년

교육과목
- 불교학개론, 선학개론, 초발심자경문
- 반야사상,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대승기신론
- 무문관, 벽암록, 진등록, 육조단경, 선가귀감, 선관책진

신청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 2005년 3월 14일 부터

접수 및 문의 서울 송파구 송파 2동 185-1번지 송파선원 02)420-5009

성륜불교문화재단 부설 동천불교대학 송파선원

제7회 진각논문 대상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을 확립하기 위해 '진각논문대상'을 공모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주 제 : • 불교일반(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밀교일반(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진각종 교학(진각종학과 희당사상 관련)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 수 마 감 - 2005년 4월 22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5년 11월 22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3편,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소모임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하고 있사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 소모임 : 종단 외부 2팀, 종단 내부 2팀
◈ 지원금 및 지원기간 : 종단 외부 월 30만원, 종단 내부 월 20만원, 향후 1년간 지원 예정
◈ 응모자격 :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전형방법 :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수마감 - 2005년 4월 22일 • 발 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www.jingak.or.kr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연등 만들고 예불 드리고

# 가족애 '쑥쑥'

## 월정사 '가족 주말 수련회' 개최
##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도 마련

가족. 단어 자체만으로도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한 번 어긋나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서로에게 주기도 한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 단기출가학교로 유명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3월 12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진행되는 '가족 주말 수련회'.

월정사 가족 주말 수련회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전나무 숲길 산책과 연꽃등 만들기가 그것이다. 가족끼리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나무 숲길을 걸어보면 그 맛을 알 수 있다. 특별한 말은 건네지 않아도 다정하게 맞잡은 손에서 퍼지는 온기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단어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연꽃등을 같이 만들면 가족간의 사랑 뿐 아니라 신심도 높일 수 있다. 오순도순 연꽃등을 만들며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완성된 연꽃등을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는 좋은 기회도 된다.

뿐만 아니라 새벽예불과 원각경 독송, 108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벽 도량석 소리에 무명을 떨치며 청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원각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108배를 하면서 하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발우공양을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의 거부감도 느낄 수 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너무 많이 탐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반야심경을 사경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는 팔각 구층 석탑을 돌면서 자신이나 가족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도 발원하는 여유를 갖는다.

스님과 함께 하는 다담(茶談)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스님과의 다담, 입안 가득한 차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가족 주말 수련회 참가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원.

한편, 월정사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이론과 현장 답사를 겸한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를 올 4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개설한다. 모집인원은 50명. 인터넷(www..org) 접수도 가능하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봉서사 석산개발로 훼손위기



완주군청 앞마당에 진행된 집회에서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진묵대사 출가본사이자 천년 고찰 완주 봉서사가 석산개발로 훼손위기에 처했다.

서방산 봉서골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월해 · 서철승)는 지난 3월 4일 완주군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석산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향산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 스님 30여명과 주민 200여명은 "불교성지 봉서사 파괴와 주민의 안전은 물론 생존권이 위협받는 석산개발 허가를 내준 완주군에 항의"하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향산 스님은 집회에서 "봉서사는 진묵대사 부도를 비롯해 문화재가 남아있는 불교성지이자 민족문화유산이다"며 "천년고찰을 짓밟는 석산개발을 강행할 경우 태고종 전북교구는 물론 전 불교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현 스님도 석산개발 반대연설에서 "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며 "개발업자 이익보다 자연과 수행환경 보호로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산 봉서골 석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완주군이 봉서사 입구 석산을 개발토록 허가하자 봉서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구성되었으며, 300일 가까이 석산개발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 국운융창 발원기도 회향
## 영월 법흥사 3월 5일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지난 2월 3일부터 진행해온 '국민의식 통합 및 국운융창 발원 21일 특별 정초신중기도'를 3월 5일 회향했다.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진행된 회향법회에서 주지 도완 스님은 "기존에 진행되던 정초기도와는 달리 올해에는 불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광주불교회관 시설 기공식
## 20여 신행단체 입주 예정



3월10일 열린 광주불교회관 내부 시설 기공식.

광주불교의 숙원사업인 광주불교회관이 올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개관될 전망이다.

광주불교 사암연합회(회장 혜향)은 3월 10일 '광주불교회관 시설기공식'을 갖고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상 및 후불탱화 봉안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불교사암련은 이날 기공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불교회관을 대법당과 지역 신행단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꾸미기로 결의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불교회관은 승가와 재가가 모여 포교는 물론 불교의 대사회활동을 펴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며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신행단체가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회관은 2002년 착공해 지난해 준공됐으며 2층 연건평 200평 규모로 대법당과 회의실을 비롯해 11개 사무실이 들어선다. 사무실은 사암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신행단체가 사용하게 된다. 이준엽 기자

## 증심사 '108사찰 참배단' 출범

사찰순례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웃을 돕는 '108사찰 참배' 운동이 전개된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진화)는 올바른 성지순례를 위해 '108 사찰 참배'단을 모집하며 오는 3월 25일 첫 순례로 해인사, 백련암, 원당암 삼사순례를 갖는다.

증심사가 펼치는 108사찰 참배운동은 매달 3개 사찰씩 108개 사찰을 3년간 참배하며 참배후 남은 기금을 모아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주지 진화 스님은 "불교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좋은 방편으로 주제와 테마를 갖고 전국의 사찰을 참배하고자 한다"며 "순례는 기도와 법회로 진행되며 보시행을 실천하는 올바른 성지순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062)226-0108 이준엽 기자

## 제주 원명선원 참선강좌
## '정진법회' 신설

제주 원명선원(원장 대효)이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강좌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참선강좌는 1년 교육과정의 참선대학과 선불장. 참선대학은 11년 전 열어왔던 일요참선법회를 확대한 강좌로, 매월 1 · 3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참선대학 과정에는 2 · 4주 일요일 중 한주를 정해 집중 수행하는 '정진법회'를 신설해 포함시켰다.

선불장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참선대학보다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선원장 대효 스님의 지도 아래 이론과 실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학습내용은 생활과 선, 중도, 연기, 지혜와 삼매, 화두 참구법, 공안 등이다. 개강은 참선대학이 3월27일, 선불장은 3월28일이며, 25일까지 모집한다. (064)755-3322

한명우 기자

##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보수

정림사지5층석탑 등 충남 부여군내 중요 불교석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가 이뤄진다.

부여군은 정림사지5층석탑(국보 제9호), 정림사지석불좌상(보물 제108호), 장하리3층석탑(보물 제184호), 무량사5층석탑(보물 제185호), 홍양리 5층석탑(도지정 유형문화재) 등 5개 석조문화재에 대해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 정비키로 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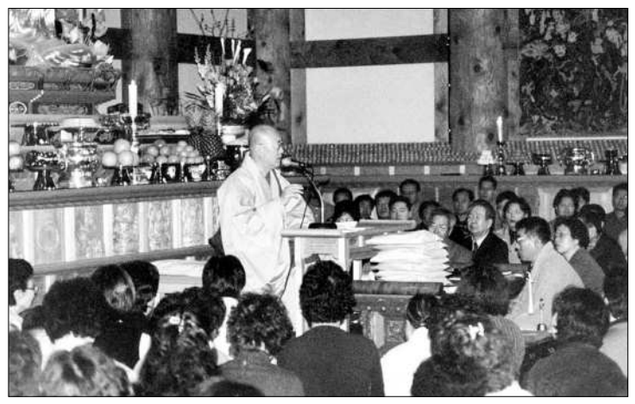
특히 정림사지5층석탑과 무량사5층석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림사지석불좌상은 석재 보존처리 및 좌대 보수를, 장하리3층석탑과 홍양리5층석탑은 석재 부식 방지를 위한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하남 정심사

# 성철스님 가르침 잇는 '정진도량'



하남 정심사가 참선수행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원택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진행된 2002년 성도재일 법회 모습.

삼국시대,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세웠던 검단 선사가 은거했다 해서 명명된 경기도 하남 '검단산'. 검단선사의 선기(禪氣)를 간직한 듯 묵묵하게 서있는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정심사(주지 원영)는 오늘도 서울동부지역 수행근본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1986년 창건한 정심사는 평소 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모토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심사에는 유달리 기도 프로그램이 많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능엄주기도를 비롯해 삼천배기도(넷째 토요일 오후 2~10시 30분), 백만배기도(매월 음력 20일 입제)는 모든 신도들이 참여하는 '기본수행코스'다. 정심사는 또 매년 음력 1월, 4월, 7월, 10월 12일부터 3박 4일간은 아비라기도를 진행한다. 아비라기도는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뒤로 나온 두 발을 교차한 상태에서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진언을 하는 것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신도들에게 적극 권유한 기도법이다.

정심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참(實參)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년 음력 2월, 5월, 8월,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참선은 시민 선방인 '검단선원'에서 이루어진다. 40여 평의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평균 50여명이 방부를 들이는 정진장은 여느 선방 못지않은 구도열기가 가득하다.

정심사 총무 일주 스님은 "사부대중이 매일 안거(安居)에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고 있다"며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심사가 신도들의 수행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해외 포교를 위해 전 사부대중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심사는 하남 지역 결식아동 20명

## 능엄주, 아비라기도 등 '기도 · 수행코스' 다양
## 결식아동돕기, 美 보리사 창건…포교에 진력

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남시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03년에는 뉴욕에 보리사를 창건해 국제포교는 물론 국내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돕고 있다. 보리사에서 불법홍포에 진력하고 있는 원영 스님은 "국내외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심사는 새싹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지역 사정상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고 있긴 하지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어린이 법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031)791-7732 유철주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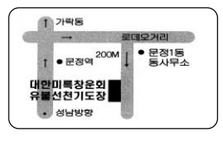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 경북 칠곡·군위·의성·안동

# '역사·전통' 포교 콘텐츠로 활용

### # 칠곡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유명한 칠곡은 가톨릭 신자들의 최종 피난처였던 한티순교성지와 성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등이 있는 가톨릭의 성지로 가톨릭 교세가 강한 반면 불교세는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칠곡에는 사찰 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암연합회 역시 결성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칠곡의 중심 왜관읍에 있는 흥국사가 칠곡 불교를 이끌며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10년 전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세워진 흥국사는 나라를 위해 스러져간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천도재를 매년 봉행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역신행단체로는 칠곡군청불자회와 칠곡군청년회가 있다. 청년회는 명목만 있을 뿐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며 칠곡군청불자회(회장 윤명덕)는 3년 전 결성되어 70여명의 회원들이 분기별 정기법회와 년 1회 사찰순례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 가산면에 금곡사와 대둔사가 있고, 지천면에 망월사, 동명면에 송림사와 도덕암 등 20여개의 사암이 자리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활동은 미미한 편이며, 그나마 활동을 하는 사찰은 칠곡이 아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 군위

외지고 한갓진 산골고장 군위는 김수환 추기경의 고향으로 칠곡 못지않게 가톨릭 교세가 큰 지역이다. 그러나 군위불교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다. 오히려 지난해 4월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이 군위사원연합회장에 추대되면서 자그마한 산골고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초파일에는 처음으로 군민회관 앞에서 초파일 점등법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지역불자들의 교육을 위해 3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군위지역불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29일엔 군위불교교양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합창단, 봉사단, 산행단까지 만들었다. 산행단은 삼월 삼짇날을 맞아 군위지역에 있는 마애불을 찾아가 다례재를 올릴 예정이며, 합창단은 봉축행사를 위해 월 2회 연습에 들어간다.

군위불교의 이런 성과는 은해사 말사 6개 사찰과 군소종단 15개 사암으로 구성된 사원연합회의 화합된 활동으로 기인한 것. 군위사원연합회는 그동안 의경 위문, 교육발전기금 모금, 소년소녀가장 우방랜드 관람행사 개최 등 대외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그 외 지보사 주지 해운 스님은 군위군청불자회인 금강회를 이끌고 있고, 동림사가 지난해 봄부터 사원연합회 총무를 맡았다. 소보 법주사는 비구니 수행처로 유명하고, 장차 스님노후복지시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신흥사 범수 스님은 불교대학을 맡아 지도하면서 신행단체를 창립하는데 일조했다. 스님은 일년간 신행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뒤 지역 사찰 스님들과 연결시켜 자체적으로 활동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군위에는 지난 2003년 결성된 경찰불자회가 활동하고 있다.

### # 의성

의성은 유교문화권지역으로 최근까지 불교에 대한 텃세와 무시가 심했던 지역이다. 또 불교정화운동 이후 내륙 산골 오지라는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가장 오랫동안 혼란기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5~10년 사이 사찰들의 노력으로 불교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의성은 조계종 9개 사찰이 2000년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자리 잡았다.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가 2002년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의성군노인복지회관은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성군 포교당 관음사(주지 해각)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은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는 의성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또, 지난해에는 무려 105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의성군청 불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5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암연합회원 사찰 스님들은 한결같이 모든 일에 함께 했고 화합해서 활동이 즐거웠다고 말한다. 복지관 운영도 함께, 무료 급식도 함께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처도 함께 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물론 활동의 중심에는 교구본사 고운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주도하는 여느 교구본사와는 사뭇 다르다. 조용한 가운데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는 모습이 특이하다.

최근 의성불교의 승승장구를 시샘하듯 사암연합회원사찰간에 약간의 마찰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긍정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역 65개가 넘는 타종단의 사암까지 끌어안고 나아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 안동

유교문화권의 중심인 안동 역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곳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사찰이 소실됨에 따라 지역사찰들의 사세도 보잘것없고 활동도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러나 80년대 의성 고운사에 근일 스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해 90년대 지역 사찰들의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불교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24개 회원사찰들로 이뤄진 안동사암연합회가 안동불교를 이끌면서 지역불교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초파일 제등행진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국제 탈춤페스티벌에서의 유등제와 범패시연 등은 지역에서 고정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 처음 개최한 봉축음악회도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활동하는 회원 사찰로는 안동시내에서 어린이집과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안동사암연합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원사가 있고, 안동 거사림회 활동 지원과 안동교도소 불자교정회를 이끌고 있는 법룡사가 있다. 특히 대원사는 풍물, 민요 강습 등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 최근 도량정비를 마친 태화동 서악사가 도심 속 산사의 기도도량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박물관이라고 할만한 유적을 지켜내고 있는 봉정사는 전통등 전시회를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천태종 해동사가 신도회, 봉사회, 합창단, 어린이회, 청년회, 사물놀이 등 다양한 신행회를 조직해 불법홍포에 선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동사가 운영하는 해동 유치원은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 최고의 유치원으로 이름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동사는 안동시 템플스테이 시범사찰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호텔과 같은 뛰어난 숙박시설을 갖춘 해동사는 다도회, 요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불교문화체험 공간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 외 법화종 대성사가 지역에서 대규모 정신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행단체로는 젊은 불자 30여명이 생활불교운동을 하는 안동불교신행회와 안동교도소 교정직공무원불자회, 안동시청불자회, 경찰불자회가 있다.

칠곡·군위·의성·안동=배지선 기자

## 칠곡 흥국사 군청불자회 등 지역 신행 견인

## 군위 사원련 중심돼 봉사·문화 활동 활발



군위불교대학은 지난 1월 군위군민회관에서 합창단·봉사단·산행단 등 3개 신행단체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 포교에 나섰다.

## 의성 노인복지관·불교대학 불심 화합의 축

## 안동 관광자원 다양…신행·전법 기회로



지난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의성에서 열린 '추억의 운동회'에서 탄하 스님이 어르신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의성군노인복지회관은 모범적인 운영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신도조직 효율적 활용

**혜승 스님** (의성 고운사 주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주지 혜승 스님은 앞선 주지스님의 공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며, 스스로를 낮추었다. 하지만 자연스레 드러나는 스님의 노력과 업적은 감출수가 없다. 조직적인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한 스님은 여러 가지 문화재적 자료를 발굴하여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비를 책정받는 등 내실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신도조직 활성화와 포교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은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불교교양대학 교육을 통해 참다운 신행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아침 저녁 3분의 시간을 할애해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며 살아가는 참 불자의 길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말사 주지 스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복지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강조한 스님은 안동노인복지관 수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원력이 있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노력이 있다면 안 되는 일이 없으며, 마음을 편안히 비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역사적' 가람에 새 기운

**문인 스님** (안동 봉정사 주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있는 봉정사는 1999년 영국 여왕이 다녀가면서 유명해졌다. 1999년 스님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오지였던 봉정사는 그동안 절 안까지 도로가 뚫리고 가람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전통문화재보존 측면에서 큰 변화를 원치 않는다. 템플스테이도 2~3가족 15명으로 한정해서 받고 있을 뿐 전통가람을 훼손할 만한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2003년부터 매년 가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맞춰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는 현재 유물전시관 내부를 수리 중이다.

### '삼국유사' '일연스님' 현창에 매진

**상인 스님** (군위 인각사 주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가 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밝히는 단군시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귀한 역사서입니다."

상인스님은 2000년 인각사에 부임한 이후 산사음악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시낭송회, 학술 세미나 등의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하고, 2003년에는 삼국유사 영인본을 제작하는 등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집필지인 인각사 재조명 작업에 몰두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보각국사비 재현에도 한 몫을 했다. 또 올 가을에는 삼국유사 독일어판을 독일 국제 도서박람회에서 소개한다.

### 지역사암 화합이 '화두'

**동경 스님** (의성 운람사 주지 ·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금까지 의성불교는 9개의 조계종 사찰이 모두 힘을 합쳐 잘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종단 사암을 끌어안을 생각입니다."

올해 초 제3대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추대된 동경 스님은 사암연합회 활동을 타종단 사암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이미 50여개의 타 종단 사찰을 둘러보고 뜻을 알아본 상태다. 10년 전 폐허직전의 운람사에 들어와 가람을 정비하고 안평면 25개 마을법회를 이끌며 정신적 지주역할을 담당해 온 스님은 이제 사암연합회장으로서 종단을 초월하여 의성불교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 신행단체 조직 '가장 큰 불사'

**정수 스님** (칠곡 흥국사 주지)



칠곡에서 제대로 된 포교를 하기 위해 2000년 흥국사에 들어온 스님은 복잡하게 얽힌 사찰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조계종단에 등록한 후 도로확장, 천불전 불사 등을 통해 도량을 정비하고 정법홍포를 위해 포교일선에 나섰다.

특히 신도회, 보림회, 학생회, 청년회, 거사림회 등을 통해 매년 초파일 행사를 주도하면서 칠곡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나선 스님은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불교유치원 운영과 불교대학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 "어르신 잘 모셔야 세상 행복"

**탄하 스님** (의성 모선암 주지 · 의성군노인복지회관장)



의성군노인복지회관장 탄하 스님의 말끝에는 언제나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이 물씬 느껴진다. 의성지역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관장님' 하더니 이제는 '우리 스님'으로 통한다. 심지어 타종교인 어르신들까지 '스님'하며 합장하기 예사다.

의성은 전국에서 고령화 2위 지역으로 국화재배, 탁구, 할아버지 중창단, 실버합창단 등 어르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한데, 실버합창단은 초파일 행사에서 찬불가를 합창하기도 했다.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 경제적 안정을 주기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 어린이포교 남다른 열정

**정우 스님** (안동 대원사 주지 · 안동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은 1996년 어린이집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원력하나로 대원사에 들어와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모든 신도들이 반대하는 불사를 이루고, 보수적인 안동에서 불교의 위상을 세워나갔다. 스님의 노력은 1998년 선재어린이집과 불교대학을 개설하면서 젊은층과 남성들을 불자로 끌어들이면서 젊은 불교 실천하는 불교의 위상을 정립했다.

스님은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중심이 됐다.

### 노인복지·신도교육에 역점

**혜봉 스님** (의성 대곡사 주지)



2001년부터 4년간 의성사암연합회 초대 부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불법 홍포에 새 기운을 불러일으킨 주역중의 하나다. 스님은 의성 초파일 첫 점등행사부터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수탁, 의성불교교양대학설립까지 의성불교의 변화를 몸으로 겪었다.

스님은 대곡사에 6.6Km 등산로를 개발하고 적조암을 복원하는 등 53불신앙으로 유명했던 통일신라시대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춰놓았다.

### 불자들에 새 신행바람

**범수 스님** (군위 신흥사)



"모든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범수 스님. 스님은 2003년 9월 군위군 우보면 도봉산 중턱에 외따로 있는 조그마한 신라천년고찰 신흥사로 부임해 온 후 군위불교사암연합회가 개설한 3개월 과정의 군위불교대학을 이끌면서 지난 1월 봉사단, 산행단,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경북 군위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스님은 산골오지 신흥사를 정갈한 수행도량으로 가꾸고 있다.

### 지역불자 '건강' 지킴이

**송원규 거사** (대성복지재단 · 대성그린병원 이사장)



1981년 11월 법화종 대성사를 모태로 설립된 대성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송원규 거사는 정신보건요양시설인 대성그린빌과 대성정신재활종합센터, 신경정신전문병원인 대성그린병원을 연계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또 대성사회복지재단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말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실버 캐어빌을 개원하기도 했다.

# 총본산 미암사 복지공간으로 가꿀터

##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신년 인터뷰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부여 미암사 주지)은 "총본산 불사를 여법하게 진행하고 승풍 진작을 위해 승가교육을 확대하는 등 종단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각종은 현재 전국 13개 교구 800여 말사에 900여 스님 및 교육직 재가자가 활동 중이다.

▲총본산 불사의 청사진은 어떠한지요?

-총무원이 있는 미암사를 총본산으로 가꾸기 위한 불사가 진행중입니다. 특히 이번 불사는 노인복지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불사에 필요한 8만평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올해는 대웅전, 요사채, 관음전, 극락전 등 전각을 새로 건립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독거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등 복지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실버타운, 납골묘지 및 납골당 등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신생종단으로서 엄격한 종풍을 세울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각종은 1996년 창종 당시 67곳 말사로 출발, 현재 800여 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엄격한 종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된 교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공석인 교구 종무원장에 임명해 탄탄한 행정망을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 백제불교 일본전래 기념법회 日과 공동진행
### 승가교육 수시 실시·신도회 성지순례 정례화

총무원 임원진을 개편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승풍진작과 단합을 위해 승가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대각종은 해외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각종은 스리랑카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불교계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국주회와 공동으로 백제불교의 일본 전래를 기념하는 법회를 5~6월경 부여 불교사은비에서 함께 열 계획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현지에 초등학교 교실 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콜롬보 마하보디사와의 교류를 실시할 것입니다. UN 엔지오인 '국제 세계평화 교육자들 모임(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or for world peace)'에서 개최하는 세계 평화와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행사에도 참가합니다.

만청 스님은 이밖에 "신도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회 차원에서 계절마다 정기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방생법회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대각종은 4월 중순 총본산 미암사에 조성된 와불점안식, 5월 백마강 삼천궁녀 진혼제, 10월 창종기념법회 등도 개최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조계종 주지연수 강화

올해 본말사주지연수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올해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이 사찰세무행정, 여성신도 관리 방안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3월 8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5년도 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를 열고 올해 본·말사주지연수와 불교지도자연수(법랍 20년차, 25년차)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주제별 심화(분반)교육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사찰세무행정 △사찰 컨설팅 △사찰신도 2배 늘리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사찰의 대응 △사찰의 신도상담 △여성불자 이해하기 △국내외 수행 흐름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이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교육 △정부 예산정책 및 대정부 지원금 사용원칙 등 9개 주제 가운데 5개 주제를 선정해 실시된다.

교육원은 올해 주지연수를 6월 28일~7월 27일까지 권역별로 중앙승가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해당 교구 교무국장 스님들에게 대상자 스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앞서 본말사 주지연수 해당 스님 가운데 승랍 20년, 25년차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지도자 연수과정이 마련됐다. 불교지도자 연수는 20년차 3월 21~23일, 25년차 3월 29~31일 천안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각각 열린다. (02)732-4923

조용수 기자

## '태고중앙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 합천공익회 이사회 의결

사회복지법인 합천공익회(대표이사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가 2월 2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태고중앙복지재단'으로 변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사무소 충남 논산에서 태고종 총무원사로 이전 △청평 태양실버타운과 노인양로원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분사무소 설치 △사업 내용을 '노인결연사업'에서 '노인주거복지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합천공익회 대표이사 운산 스님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활성화 된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산 스님은 또 "앞으로도 중앙복지재단과 지역교구 및 사찰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종단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위탁 또는 자체시설 건립 등을 통해 산하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태고중앙복지재단이 운영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태양실버타운 전경.

## 관문사, 미얀마에 쓰나미 성금 전달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 스님)는 3월 9일 관문사 2층 회의실에서 우내윈(U Nay Win)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쓰나미성금 5천달러를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춘광 스님은 "관문사 신도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내윈 대사는 "이 성금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을 대신해 관문사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관문사는 2월6일 경내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알뜰장터를 연 바 있다.

미얀마는 쓰나미로 인해 사망 61명, 부상 43명, 3천채 이상의 가옥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원우 기자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이 우내윈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미륵종, 종단협의회에 가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3월 3일 서울 하림각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불교 미륵종(이하 미륵종)의 신규 회원종단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은 총 27개가 되었다.

종단협의회는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을 부회장으로,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스님을 상임이사로,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과 법륜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 미타종 총무원장 성우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4명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한편 미륵종은 1987년 창종됐으며, 2000년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총무원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며, 144개 사찰에 320명의 승려가 있다.

김원우 기자

## 종단 봄맞이 행사 잇따라

종단들이 새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원융사에서 원융종 창종 25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원융종은 3월 11일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다.(02)433-9780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3월 20일 낮 12시 충주댐에서 국운융창 경제회복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삼론종 종정 석붕 스님 등 삼론종 종도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 법회는 1부 종정 스님 법문과 2부 범패공연으로 진행된다.(02)379-4679

**본원종**(총무원장 대화)도 음력 3월 삼짇날인 4월 11일 오후 1시 충주댐에서 남북 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수륙고혼천도법회를 한다. 이날 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생법회도 겸하고 있다.(02)391-4376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19일 오후 1시 김해 진례면 학생체육관에서 창종기념법회와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미륵종은 3월 29일~4월 2일 태국으로 불교 성지순례를 떠난다.(051)466-3977

강유신 기자

### 진주 미륵암 용왕대수제

진주 미륵암(주지 청강)은 정월대보름인 2월 23일 오전 남해군 앞바다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용왕대수제를 개최했다. 미륵암은 같은 날 오후 경내에서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열었다.

강유신 기자

## 대승종 도암 종정 사리 48과 나와



3월 1일 봉행된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대종사의 다비식에서 오색영롱한 사리 48과가 수습됐다(사진).

성도대종사 장의위원회(위원장 법천)는 2일 "사리를 수습한 결과 좁쌀 크기에서 콩알 크기까지 검은색, 유백색, 홍색, 청색, 자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리가 48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사리는 도암 스님의 주석처였던 서울 흥도사로 이운됐으며 4월 14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02)2234-2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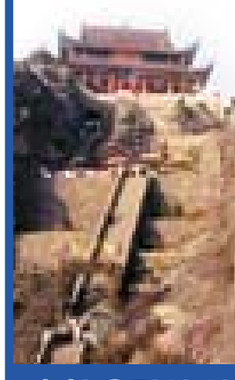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 일 자 | 교 통 | 일 정 |
|---|---|---|
| 1 일 | CZ686 CZ3962 |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
| 2 일 | 전용버스 |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
| 3 일 | 전용버스 |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
| 4 일 | CZ3961 |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
| 5 일 | CZ685 |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 | |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 일 자 | 교 통 | 일 정 |
|---|---|---|
| 1 일 | CZ338 |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
| 2 일 | 전용버스 |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
| 3 일 | 전용버스 |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
| 4 일 | 전용버스 |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
| 5 일 | CZ337 |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 | |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 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몇날 며칠을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달마대사에게 법을 구했던 혜가 스님처럼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부산지역에서는 101년만에 최대 적설량을 보인 3월5일 폭설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은채 지유 스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禪의 門은 어디입니까?

##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입제하던 날

## '문 없는 문' 열고자 선찰대본산 범어사에 전국 3천여 불자 운집



설선대법회 입제식에는 100여명 스님들도 참가, 재가불자들 못지않은 관심을 보였다.

"선이 무엇입니까."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의 목소리가 경내를 휘감았다. 그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온 선(禪)이 무엇이냐는 물음. 도대체 무엇을 묻는 것일까. '선, 문 없는 문을 열다'라고 플래카드에 적혀있는 법회 주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있지도 않은 문을 어떻게 열라는 말일까. 문이 있기는 한 것인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열 수는 있는 것인지….

3월 5일 오후 2시 부산 금정산 선찰대본산 범어사.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막은 그렇게 올랐다. 법상이 마련된 보제루, 보제루 앞마당, 대웅전 앞에는 3천명이 넘는 불자들이 운집했다.

### 법회 2시간전부터 보제루 '만원'

이번 설선대법회는 지유 스님의 법문에 앞서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이 설명한 대로 고려시대 담선법회와 중국 무차선법회를 종합한 성격의 법회이자, 형식과 내용면에서는 고려시대 담선법회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선인데…."

지유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눈이 쌓여가고 있었다. 눈이 내리면 내리는 것일 뿐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껴입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평상심이란 자연심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바로 그 마음. 눈이 내리는 속에서 시작된 지유 스님의 법문은 이미 '선'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었다.

법회 시작 2시간 전인 낮 12시. 보제루는 이미 더 이상 들어설 틈조차 없었다. 보제루 앞마당에는 간이의자 1700여 개가 놓였고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불자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채웠다.

법회 시작 20여분 전, 이미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자 법회 참가자들은 대웅전앞 금강계단에도 자리를 잡았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보제루 양 옆의 심검당과 미륵전 바로 앞에서 선 채로 법회를 기다렸다. 간혹 외국인들도 눈에 뜨였다. 법회 참가자들은 이번 법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에서, 그것도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인 범어사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이 나서서 법문을 하는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10차례 모두 참가할 생각입니다. 흔한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홍윤석 · 35)

"생활에 찌든 마음을 씻기 위해 왔습니다. 큰스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데요."(박 식 · 50)



치사를 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개회사를 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설선대법회 의의를 설명한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인사말을 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어머니와 식구들이 법회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김주태 · 57)

### 눈보라속 미동도 않은 채 법문 경청

지유 스님의 법문이 계속되면서 눈은 폭설로 변했다.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일부가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옷에 달린 모자를 쓰거나 머리에 손수건과 신문 등을 쓴 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자 참가자들 대부분은 대웅전, 심검당, 미륵전 처마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가자들은 보제루 양 옆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전에서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지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는 눈보라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법문을 경청했다. 머리 위엔 흰 눈이 수북이 쌓여갔다. 몇날 며칠을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달마를 향해 법을 구했던 천오백년 전 혜가 스님의 모습이 연상됐다. 천년고찰 범어사는 눈꽃으로 피어났고, 선(禪)은 설(雪)이 되어 내렸다.

법문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지유 스님은 때로는 정곡을 찌르며, 때로는 에두르며 답을 했다. 선사들은 때때로 본질을 에두른다. 우리의 지식과 관념은 통렬히 깨져 구름조각이 된다. 지유 스님은 그 구름조각에 가려진 집착을 경계하라고 설했다.

"대중들을 위한 공부길을 충분히 상세하게 밝혀주신 정말 좋은 법회였습니다."(혜총 스님 · 부산 감로사 주지)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 마음인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화두 하나 들고 갑니다."(무변심보살 · 52)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남은 아홉차례 법회도 모두 참석해 큰 것을 얻고 싶습니다."(보덕행 보살 · 60)

"미진한 공부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회를 녹음한 테이프도 사 복습을 부지런히 해서 더욱 정진할 생각입니다."(박선자 · 42)

웅장하고 장엄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법회가 됐다. 법문도 그렇고, 그 법문이 범어사에서 설해졌다는 것도 그렇고, '설선(說禪)'법회를 '설선(雪禪)'법회로 바꾸어 놓은 자연의 가르침도 그렇고….

### 폭설에도 400여 불자들 철야참선

법회가 끝나고 저녁 7시부터 다음날인 6일 새벽까지 설법전에서 참선실수가 이어졌다. 폭설로 돌아간 참가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가까운 대중이 정진에 참석했다. 그리고 '문 없는 문'을 열기 위한 삼매에 빠져들었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회가 끝난 뒤 설법전에서 이어진 참선실수 중간에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불자들.



### ■법회 이모저모

#### 100여명의 스님들 참석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총무부장 무관, 기획실장 법안, 호법부장 종수 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을 포함해 100여명이 넘는 스님들이 참석해 재가불자들 못지않게 스님들의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 노보살들 3시간 전부터 자리잡아

행사시작 3시간 전인 오전 11시경 보제루 안에는 이미 20여명의 노보살들이 미리 자리를 잡는 등 법회의 열기를 반영하기도.

#### "눈(雪)속에서 선(禪)을 설하다"

이날 부산에 내린 눈은 1904년 부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적설량. 하지만 지유스님 법문이 설해지던 오후 3시경 까지는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에만 함박눈이 내렸을 뿐 부산 시내는 화창한 날씨를 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참가자들은 "설선법회가 눈(雪)내리는 날 선(禪)을 설하는 법회여서 범어사에만 눈이 내린다"고 한마디씩.

#### 유료접수자 2500여명 "대단해요"

범어사 접수처는 낮 12시가 넘어서면서 법회참가 등록을 하려는 불자들로 크게 붐볐다. 접수를 맡은 8명의 보살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접수증과 ID카드를 발급했으며, 모두 2천5백여 명이 등록. 범어사 기획국장 정산 스님은 "남은 9차례 법회에서 접수자가 더 늘 것 같은데 참선실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 부산 안국선원 신도 800여명 등록

이번 법회 등록자 중 부산 안국선원 신도만 800여명이 등록해 화제가 됐다. 이 인원은 단위사찰 등록자수로는 최대이자 전체 등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 ID 카드로 전산관리 호평

이날 법회 등록자들에게 발급된 ID 카드는 10차례 진행되는 법회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ID 카드 확인으로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전체 철야 참선 정진 참가자에게는 안거증이 수여되는데. 사찰 업무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 KTX 할인 제의

한국철도공사가 법회 참가자 명단을 알려주면 이들이 KTX를 이용할 시 평소 할인율의 두 배인 40%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해 오기도. 그러나 법회 참가자 명단 유출을 우려한 범어사측에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 외국인 관광객도 관심

범어사에 관광차 왔다가 법회장에 와봤다는 영국인 존(John)과 줄리에(Julie) 부부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놀랍다"며 신기한 표정을 짓기도.

#### 혜원정사 화엄산림법회 연기

매년 이맘때마다 화엄산림법회를 열어왔던 부산 혜원정사의 조실 고산 스님은 "큰절에서 설선대법회가 열리니 화엄산림법회를 열지 말고 신도들이 범어사 설선법회에 참석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사중에 당부했다는 후문.

김원우 · 한명우 · 천미희 기자

# 불교 공부하니 업무가 즐겁네~

## 광주시청불자회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경전공부 삼매'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회원들에게 경전공부는 바쁘고 고된 직장생활을 즐겁게 바꾸어 주는 활력소다. 광주시청 불자회원들이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으로부터 <천수경> 강의를 듣고 있다.

### 시청 세미나실을 강원으로

매주 화요일 정오가 되면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은 도심 속의 불교전문 강원이 된다. 벽에 탱화가 걸리고 스님을 중심으로 시청직원들이 마주앉아 경전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강주는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이다. 학인은 광주시청 공무원불자회 회원들과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고, 회장(이호준 문화정책실장)은 입승 역할을 맡는다.

3월 8일 정오에도 세미나실은 부산했다. 강의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총무 이은(보건위생과)씨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한번도 안 빠졌는데…"라며 억울해 한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상반기 교육과 시의회 개원으로 시청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외부로 출장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가기가 아쉬워 강의실 책상을 정리하고 돌아섰다.

"불교공부를 하고나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불자여서 나도 불자이거니 했는데 사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가서 불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강의에 앞서 탱화를 걸고 자리를 정돈하던 이대성(자치행정국)씨는 "막연히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리를 배우고 보니 참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며 부처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죠.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먼저 수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해야 합니다."

이날 강의는 <천수경> 첫째날. 정구업진언을 설명하는 스님 강의에 모두들 웃음을 터트린다. 이처럼 광민 스님의 강의는 쉽고 재미있어 인기가 높다.

광민 스님은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는 불자들을 볼 때마다 힘이 솟는다"며 "80%가 거사들로 사무관 이상 간부가 10여 명이나 되어서인지 여느 법회보다 청강하는 자세가 진지해 강의준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 "알아야 불자" 확실한 공감

광주시청 불자회는 3년전 창립됐다. 불교세가 열악한 지역이기에 얼마나 모일까 했는데 무려 120여명이 참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간간이 스님들을 초청해 특강으로 법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광민 스님이 교리공부를 제안했다. 무각사에서 진행하던 3개월 과정 교리강좌 프로그램을 옮겨왔다. 교재도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기초예절은 물론 삼귀의, 예불문에 이어 <반야심경>까지 마쳤다. 회원들이 기초교리로 무장되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내친김에 경전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교리강좌가 진행되면서 불자로서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시청이라는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은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곤 합니다."

누구보다 경전강의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강의실 '입승'을 자청한 이호준 회장은 "경전강의를 통해 얻은 지혜를 실천하는 마당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불자회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하는 송승종(자치행정과) 간사는 "3개월전 시작한 교리강좌가 인기를 얻으면서 넓은 강의실을 찾아 두 번이나 옮겼다"며 "이번 천수경 강의가 끝나면 강사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갖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시간을 천금으로 여기는 공직자답게 광주시청 불자회의 경전강의는 낮 12시 정각에 시작해 40분에 끝났다. 강의가 끝나자 곧장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 남은 20분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공양 중에도 강의중 의문나는 것을 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문답 강의가 계속된다. 짧은 역사에도 광주시청 불자회가 알찬 신행단체로 자리잡은 비결이 여기에 있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 청와대불자회장에 김병준 씨…4월6일 취임식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에 김병준(52 · 사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선출됐다.

청와대불자회는 3월 8일 "청불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김병준 정책실장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취임법회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준 신임회장은 눈에 띄는 신행활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독실한 불자가정에서 자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서울시 시민평가단 장, 지방자치연구원 이사장, 국민대 교수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박봉영 기자

## 안양지역 일터불심 '연합'

### 시청불자회 등 9일 지장선원서 합동법회



안양시청 · 경찰서 · 교도소 · 국토연구원 불자들이 3월 9일 안양 지장선원에서 첫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안양지역 직장 신행단체들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와 안양경찰서 불교회, 국토연구원 불자회, 안양교도소 불심회 등 4개 단체는 3월 9일 안양 1동 지장선원에서 첫 연합법회를 열고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연합법회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동 참여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한편 안양지역 불교를 활성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지역경제과장)은 "지역불교 활성화라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안양지역 공무원불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각 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불자들은 신심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 취임법회를 겸해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 4개 직장 신행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 대전 공무원불자회 '새출발' 다짐

대전지역 공무원 신행단체들이 새 회장단을 구성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불자회는 3월 3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이진옥 제3대 회장(55 · 교통국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전광역시청, 중구 · 대덕구 등 5개 구청 공무원불자들과 충남도청 공무원불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이진옥 신임 회장은 "대전지역 공무원불자들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신행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청 불자회도 전 회장의 인사이동으로 권희태 수석부회장(혁신분권담당관)을 새 회장으로 선출, 같은날 취임법회를 열었다. 권희태 회장은 "도청과 산하 시 · 군청 불자회와의 연계를 통해 회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우리단체 이사람

### 김주현 선재마을의료회 새 회장

## 첫 여성회장 … "찾아가는 봉사 할 터"



의료인불자들의 신행모임인 선재마을의료회의 간판 얼굴이 바뀌었다.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주현(51 · 사진) 강원대 간호학과 교수가 주인공. 1999년 선재마을의료회가 창립된 이래 여성이 회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아요. 선재마을의료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힘을 북돋우는 약사보살이 되겠습니다."

김주현 회장의 포부는 다부지다.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극빈층, 외국인근로자 등 누구보다 의료혜택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가는 봉사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외에도 김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봉사 인증단체로 등록해 봉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해외 의료지원, 종파를 가리지 않는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의료진료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면사무소 등으로 변경해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기대도 크다. 춘천에서 일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매월 서울역 노숙자 무료진료에 참가해 온 김회장의 열의와 돈독한 신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회장 선출 직후 선재마을의료회에 힘을 불어넣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강훈 내과의(용인 이강훈내과의원), 이희세 교사(서울 자운고), 양동선 치과의(국립서울병원 치과과장)를 부회장으로, 감사에 김광수, 손진권 前 회장을, 총무에 여오숙 간호사, 회계에 이선영 간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회장은 서울대 재학시절 의과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돼 선재마을의료회에 가입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과학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강원지부 부지부장도 맡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학인모집 ·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과정 – 원사, 원무, 사감, 신주 작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관리포교사
▶법 사 과 정 – 상담법사, 신왕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대법사과정 – 종사, 선사, 대사, 율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 제3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 모집

**기초과정 3개월** (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쇳송,상단예불,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대령관욕,지장청,신중작법,관음시식 등)
**고급과정 3개월** (49재,예수재,수륙재,전문범음범패)
**특수반** (천수바라 ,오공양작법,요잡바라)

**011-849-0961/051)554-1518**

##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염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
|---|---|---|---|---|---|---|---|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 새로 꾸민 포교당에 삼존불과 후불탱화 저렴한 보시금으로 보시받습니다

016)261-2068

##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
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1-522-1237

## 신묘한 구성학

사주팔자 없이도 간단히 숫자만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운명을 감정할 수있는 구성학을 지도함
(스님분들께 아주 유용함)
02)6232-4755
019-446-4755

##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기타
주 2회(수, 토요일)
10시 30분~13시까지
4개월(기초에서 실습까지 책임완성)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 무료 (수강료 없음)

● 사주학, 성명학, 수명술
● 초보반 – 화, 금(오전10시-12시)
고급반 – 월, 목(오전10시-12시)
● 회원제 운영(月회비 3만원)
● 초보반, 고급반 모두 청강 가능
●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분
● 부담없이 배워서 개업하고 싶은 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전화국 앞
02)3453-0001

## 수강생 모집

주역 원전 강좌
● 3월2일 개강 매주(수) 오후 7-9시
● 4월6일 개강 매주(수) 오전 11-1시
● 회비 : 6만원
● 기타 : 오운육기론 (화) 오후 7-9시
대 학 소 주 (월) 오후 5-7시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8970

## 최면개인지도

그동안 최면을 배우긴 했으나 활용치 못하시는 분들
전생, 빙의치유, 각종질병, 우울증, 비행청소년 교정
사찰을 비롯 수가 없는 스님들, 배울곳이 원거리에 있어서 등 여러조건이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전국어디든 출장하여 상주하면서 확실히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011-597-6700**

## 동자스님을 자식처럼 입양하고 싶으신분 연락주세요

017-401-6648

## 기도 잘 하는 스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02)3218-4800~5

## 희귀 난치 영가 장애 치유 불교와 최면의 절묘한 조화

서 원 사
02)845-4301

## 공양주 보살님 사무 보실분 모십니다

▷경북포항
천년 관음도량 자장암
011-584-0888

## 조계종스님으로 소백산 지장보궁에서 자기 수행기도 하실분을 찾고있음. 그리고 부산교통중심지에 위치한 90평 포교당을 인수받을 스님을 찾습니다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51)441-1430

##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금사동 보광정사
051)524-8932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경남 밀양시 영구암
055)353-0303

## 비구스님 모십니다

▷연령 55세미만
경기도 광주시
031)764-3399
011-779-4496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시
010-7160-2734

## 도심속의 사찰

● 부산 중구 대청동
● 건평 120평
대지 168평
● 가액 : 절충가
051)467-5311
051)467-5122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숙식제공. 월 보시금 100만원
충북 괴산 다보사
043)833-7789

##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직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 옻샘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위장병, 피부질환 효험)
저희 약수사에서는 멀리 계시고 바쁜 신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특히 위장병과 피부염에 효험이 있는 옻샘뿌리를 거쳐 나오는 용출수 옻샘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31-835-5986 / 017-210-5986
미산면 아미리 옻샘약수사 서운 합장

##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가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규사 직수입품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www.hinexus.com (주)넥서스 환원수

FDA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 물인증 획득은 국내최초로
넥서스가 해냈습니다.

FDA
BIO SCIENCE RESEARCH
물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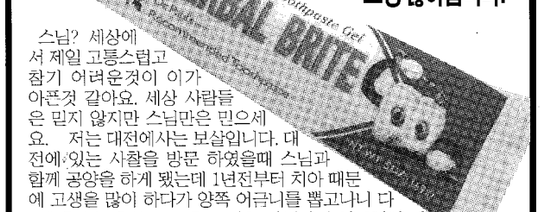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상담문의 ☎ 080-080-178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2-7 밀화밀라트 1010호

##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셔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2500만원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위치 : 전남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굴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330평(등기허가)170평(구구지)
합 500평, 건평 115평
법당 50평(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짐)
• 조견 정리 되있고 산세수려, 마당넓고
차진입 가능, 물-바위속으로 600자
• 전세 1억(년비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양도 2억

041)363-4905
011-325-1272

##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011-9635-3232

## 포교당 안내

● 평수 : 35평
● 시설물 완비
즉시법회 가능
● 서울 대로변
요지에 위치

010-4781-5843

##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33평
(시유지 20평 포함)
● 법당, 요사, 부엌 별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6-467-5822

##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산청과 대원사 중간)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외에도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가액, 오억원

010-6398-5730, 011-9136-1314

##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 시내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30평(목재)
● 양도가 : 6억(융자가능)
● 교통좋으며 산밑에 있음

● 위치 : 부산시 구포
● 평수 : 65평
(2층건물, 2층에 위치)
● 법당 : 25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 3천/700,000
시설비 : 3천만원
※ 주차시설 20대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사찰안내

● 위치 : 상도동 장승백이
● 대지 : 66평,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4억 8500만원

02)815-0302

##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중 허가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 포교당안내

● 위치 : 홍재역 10분거리
● 평수 : 약 40평 ~ 45평
● 법당 : 약 45평
● 가액 : 전세 시설비 포함
5200만원
시설완비

02)3216-1118
017-766-2788

##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서면 최요지
● 총 40평
● 큰사찰 이동 관계로
급히 양도하고자 함
● 가액 : 2천5백, 월 70만원
(전세, 시설비 합)

011-9921-5975
051)803-3275

##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적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 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부지 : 3천평
● 법당 : 24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 8천
● 여법한 근교암자

● 위치 : 청송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8억
● 기가막힌 산속 사찰

● 위치 : 밀양
● 부지 : 379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10평
● 가액 : 2억
● 한적한 외딴 토굴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100만원

011-9238-9960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 4동 대로변
● 평수 : 40평, 3층 건물 중 3층
● 법당,큰방2, 거실 겸 부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 및 비품 : 상담 후 결정

016-678-5253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부근
(한라공대옆)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미륵불,약사불, 관세음보살님),
요사채 20평 ※ 산세 수려하고 경관 좋음
● 가액 : 2억

033)766-0057
011-471-19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소재
● 부지 : 약 1,000평
● 법당 : 30평(구한옥, 단청)
● 요사채 : 40평(신축)
● 가액 : 1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적합

● 위치 : 울산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7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산신각, 용왕당 10평(3층)
● 가액 : 1억9천
● 특징 :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아주 좋음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 사찰(암자) 구함

● 법당1, 요사채(방3개)
주차가능지역
(서울1시간~1:30분정도거리)
● 보증금 : 1500-60(조정가능)
※ 특히, 사찰운영이
어려우신분은 연락주세요
불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11-785-8813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남포동 전철 2분
● 평수 : 55평, 한옥식
(게르마늄), 온돌방, 삼존불,
삼존탱화, 연등 220,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월50
(시설비 약간)

011-9193-2351
010-8674-4484
중계인 사절

##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경관, 위치 최고
● 임법당, 요사 완비
● 조용한 수행처
토굴 원하시는 분
● 가액 : 전세 1천만원

061)662-558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건물 : 요사채(37평)
큰방3개, 주방, 화장실
● 법당 : 대웅전(고건축 신축건물) 22평
● 특징 : 시골 야산 마지막터(산세수려)
● 가액 : 4억 5천(1억7천 융자포함)
(답사후가격절충 可)

011-530-8490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3존불)
삼성각 10평, 칠층석탑,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7억

011-9411-5302

##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100여평
● 시설 : 오존불, 108부처,
방4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330-7784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15년된 포교당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에서 가까움
● 평수 : 60평, 3층건물 중 2층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절충가능)
시설비 방문 후 결정

053)427-5430

##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5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스님의 사정상 싸게 양도함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부 정류장 근처
약70평, 2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비. 잘꾸며진 법당
삼존불, 주차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308-4225

##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부여군 외산면
화성2리 일반 주택 암자
● 대지 : 160평
● 방4칸, 입식 주방, 다용도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2칸
5층 석탑
● 가액 : 2천만원

011-9838-1654

##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웅천
● 대지 : 80평
임법당(집기일체)
● 가액 : 1200만원

041)934-4125

##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등산로
● 800평, 종교부지 외 500평 도지
● 대웅전 30평, 보궁 25평 목재
삼성각 5평, 미륵대불석가탑
신축요사채 50평
● 정법포교 여법한 도량
● 가액 : 6억 3천만원

033)734-3527
010-6213-5949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상가 2층
● 평수 : 법당 42평, 삼존불,
각종 탱화, 스님방1, 큰공양간1
● 보증금 2천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6-580-1573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달서구
두루동
● 평수 : 20평
법당시설 완비
● 전세 : 1300만원
양도도 가능함

053)653-4846
019-9005-6680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새마을 금고 앞
● 삼존불, 신중탱화, 용궁탱화, 산신탱화,
원불, 관음지장80불, 생활도구 일체
● 전세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월40
시설비(집기포함) 2천만원

010-8623-9234
011-9556-8413

##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채 슬라브 15평.
● 즉시 포교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주인보살 직접, 답사후 절충 가능

011-792-8969
011-9423-6788

## 사찰(급)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법당 30평, 대지 150평
전 430평
● 융자 4천만원
가액 : 총 8500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 사찰(급)안내

●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청통 IC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20평
요사채 13평 2동,
대지 150평
● 가액 : 1억 3천

011-679-2178

## 사찰, 암자, 펜션, 기도원, 입지안내

● 위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전남 곡성 팔경 중에 하나인
설산으로 명산임
● 계곡 및, 앞에는 물 맑은 저수지 있음
● 광주에서 20분 거리
● 전망 및 위치 좋음
● 산 12,000평 (매매가 6억)
● 개인적 직거래임, 사진을 원하시면
연락요망.

010-8001-3663

##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053)986-2227

##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월촌 지하철 1분 거리
● 단독 4층 건물, 건평 53평
● 구조 : 법당, 방2, 공양간,
다용도실, 삼존불, 호신불 3
● 보증금 :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만원

016-526-8231
016-869-2453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 도심속 최고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우방아파트입구
상가 지역내 도로변.
● 대지 : 100평(매입당시가 : 평당100만원)
● 건물 : 법당 20평(삼존불,지장보살,인등,법당
등,에어컨히타 및 보일러설비), 요사 60평
(방4개:주지실1개,주방1개,보일러2개
공양실1개,욕실2개,화장실2개,에어컨2대)
● 가액 : 2억2천 (은행융자 6천포함)
● 특징 : 아파트(5천세대)상가지역내 유일포교원,
400여가구신도인계, 즉시법회, 인터넷 전산
(사찰종무 PC2대)시설완비, 비구니스님 환영

011-524-9052

##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삼존불,영단,복사기,컴퓨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

017-269-2629
032)517-3001

##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근접
● 대지 : 132평, 건평:42평 뒷편 죽림과 산
● 건물 : 관음법당1,방4,주방2,해우소,
욕실2, 다용도실1,통나무세심정1,창고1,
기타 시설완비 ● 특징 : 정남향, 공기·물
최상, 마을인접토굴, 교통편리 차진입 우량
● 복수용 하실 분 적격 : 노스님,비구니
스님 모실분 ● 환경 : 온천욕,유명황토찜
질방 근접. 별장식으로 정원, 앞쪽 양어장
● 조건 : 가재도구, 침구일체 모두 제공
● 가액 : 1억9백5십4만8천원

055)583-1418
011-578-1413

## 해외사찰 안내

● 사찰명 : 고려사 (korea temple)
● 위치 :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
(bodhgaya gaya bihar india)
● 대지 : 2천 5백평
● 가액 : 10억
※ 인도불교 4성지 중 깨달음의 땅 부다가
야에 한국최초로 세워진 고려사를 인수하
여 세계적으로 한국불교를 선양하고 깨어
나는 인도의 불교세계화 물결에 따라 세계
불교 교류와 함께 21세기 수행과 포교의
참신하고 원력있는 새 주인을 찾습니다.

011-307-3473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보리암
● 법당,주방,방2개,
실내화장실, 총 40평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총 1,950천만원
월 23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9850-2946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3층 건물 2층
●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옥상, 창고1개
● 가액 : 전세 보증금 1천만원,월 45만원
시설비(삼존불, 탱화, 인등, 연등,
집기류 일체 포함) 1,500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9-3302
010-6236-2848

日로 유출-반환-경복궁뜰 40년 방치-시멘트 보수-보존처리 10년

# 기구한 운명, 5월 '새 역사'

## 경천사지 10층석탑,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봉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수난사에 끝이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에서 10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용산 새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동관 로비에 둥지를 틀게 된 것. 이를 위해 3월 2일~4일 부재 1차분 65점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으로 옮겨지는 등 이송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천사지석탑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다. 1908년 일제시대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야키에 의해 불법으로 밀반출됐다가 1918년에 반환됐지만 경복궁 뜰에 방치된 채 40여년을 보냈다. 1960년대 시멘트로 보수돼 세워졌지만 시멘트 부분의 풍화, 산성비, 조류 배설물 등으로 인한 훼손에 구조적인 불안정까지 겹쳐 1995년부터 보존처리를 위해 해체돼야 했다.

처음 탑이 건립된 기원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이 탑은 원나라에 환관으로 가서 황제의 총애를 받은 고용봉(?~1362)과 원나라 승상 탈탈(脫脫)에게 딸을 애첩으로 보낸, 대표적 친원 세력인 강융(?~1349)의 발원으로 1348년 건립됐다. 1층 탑신에는 원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명문이 남아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3월 8일에 찾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경천사지10층석탑 입주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탑이 복원될 동관 로비 '역사의 가로' 동편 지점에는 지진에 대비해 59㎝의 면진대가 설치되고, 그 위에는 포천석으로 제작된 지대석이 놓여 있었다. 형태는 원각사지10층석탑의 것을 따랐다.

면진대는 탑이 실내에 설치돼 지진 발생시 흙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4.5도 지진 발생시 탑의 7 · 8 · 9층에 충격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돼 면진대 설치가 결정됐다. 면진대는 8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면진대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도 7억이다.

높이 13.5m, 무게 80t에 달하는 탑을 실내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상의 배려도 필요했다. 탑 높이를 감안해 탑 설치 지점은 1층부터 천장까지 통하도록 설계됐다. 또 200t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구조도 보강됐다.

동관의 복도격인 '역사의 거리'에는 이 탑 외에도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과 팔부신중상 8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면 고달사지 석등은 '역사의 거리' 중심축에 있지만 경천사지10층석탑이 놓일 자리는 중심축에서 1m 가량 벗어난 곳에 마련됐다. 여기에는 이 탑을 우리 문화재의 '국가대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고민이 숨어 있다.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을 피해 실내에 자리잡게 될 경천사지 10층석탑 가상도. 3층 높이 규모로 박물관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전시과 함순섭 팀장은 "이 탑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물이기는 하지만 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통양식에서 이탈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약간 밀려난 지점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탑의 부재는 세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된다. 3월 2일~4일에 1차로 부재 65점이 이전된 데 이어, 3월 말경에 75점(3 · 4층부재)이, 나머지는 4월말에 들어온다. 유물관리부 김유식 학예연구관은 "3월말부터 조립을 시작해 5월말까지는 복원 완료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3월 셋째 주(14~20일)

#### '세계 뇌 주간' 행사 다양

세계 뇌주간(3월 셋째 주)을 맞아 한국뇌학회 · 대한뇌기능매핑학회 · 한국뇌신경과학회 · 한국인지과학회 공동으로 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뇌(3월 15일 · 한서대) △뇌의 신비와 바이오리듬(3월 17일 · 포항공대) △뇌의 이해(3월 17일 · 서울대) △주제 언어, 뇌, 컴퓨터(3월 18일 · 충북대) △뇌의 이해(3월 18일 · 전북대병원) △뇌의 이해와 기능(3월 19일 · KAIST) △한국인에게 빈발하는 뇌질환(3월 19일 · 서울대) △음악예술의 유뇌론적 탐색(3월 19일 ·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주제의 학술회의가 펼쳐진다. 학술회의에는 KAIST 이수영 교수,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 KIST 생체과학 연구부 신희섭 박사 등 28인의 뇌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선다.

인 터 뷰

아시아 문화재 및 고고학 세계적 권위자 **로베르토 치알라** 박사

## "보존 · 복원 공동작업 원칙 지켜야"

"보존 · 복원 성공을 100% 확신하기 전에는 문화재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국립동양미술박물관(National Museum of Oriental Art) 부관장이며 아시아 문화재 및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베르토 치알라 박사(사진)는 문화재 보존 · 복원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치알라 박사는 이탈리아 대사관(대사 프란체스코 라우지) · 문화원(원장 루이지노 제킨) 및 공주대학교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소장 서만철)등 공동 주최로 3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에서 '문화유산복원과 보존 기술'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참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치알라 박사는 "이 같은 생각은 나 개인뿐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재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재보존의 기본철학이다"고 설명하며 "만약 보존처리 · 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훗날 더욱 발전한 기술을 적용해 낫게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 보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인간'과 '나쁜 복원자'라고 답했다. '나쁜 복원자'란 "보존 · 복원 작업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동등하게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존 · 복원 작업 참여자는 모두가 주인공이다"며 참여자의 역할의 가치는 높고낮음이 없음을 특히 강조했다.

전국에 산재해 관리가 여의치 않은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자 치알라 부관장은 "정부의 관련 예산 확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교인들이 종교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벌임으로써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불교문화재를 불자들이 앞장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과 한국의 유물 대여 전시를 협의하고 있다는 치알라 부관장은 "이탈리아와 한국 상호간의 문화재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 과학 기술과 불교 <7>

### 디지털과 법성게

현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신호란 정보를 자연 형태 그대로 저장, 처리하는데 비해서 디지털 신호란 신호를 '1'과 '0'이라는 두 개의 비트로 바꾸어서 표시하는 것이다.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LP 전축 판을 예를 들어보자. 악기소리 정보(떨림의 빠르기나 크기 등)를 전축 판에 파진 홈에 저장하고, 이 홈을 바늘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홈에 저장된 모양이 바늘로 전달되게 한다. 파여진 홈의 모양이 음성정보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디지털에서는 음성정보를 1과 0으로 변환한 후, CD에 1과 0 만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큰 음성인 경우는 111로 작은 음성인 경우 000로 표시하고 중간 음은 110, 001등으로 약속한 후, 저장된 1과 0의 조합을 약속대로 다시 변환해 주면,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 비트보다는 많은 비트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데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이다. LP판의 홈의 모양이 마모됨에 따라 정보가 소실되는 반면, 디지털에서는 1과 0 만을 저장하므로 정보가 마모되지 않는 것이 디지털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다.

그러나 과연 자연에서 오는 정보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일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신호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기관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불연속적인 신호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느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영화필름 하나하나는 불연속이지만, 눈이 연속 동작으로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기 분자의 파동에 의해서 내이에 존재하는 섬모가 떨리면, 청각세포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청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전하를 가진 이온 역시 불연속적인 전하이다. 실제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듯이 보이는 전류 역시 불연속적 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의 집합일 뿐이다. TV방송이 끝나고 난 밤, 화면에서 보이는 불규칙한 모양은 불연속적인 전자 한 개 한 개가 임의로 방출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 과거 · 현재 · 미래 흐르는 모습은 아날로그 알고보면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습일뿐

화엄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게송으로 추앙받고 있는 '법성게'는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의사대사가 지은 것이다. '법성게'에서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량없이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사실은 한 생각일 뿐이며, 또한 한순간의 생각이 무한 겁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은 자의 경지를 이와 같이 표한 것이다.

과거 · 현재 · 미래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합(合)일 뿐이다. 과거의 사건들이 번민으로 다가오거나 , 미래가 걱정될 때, 이를 인식하는 나 또한 불연속적인 생각의 집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우리들의 친구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은 우리들의 친구랍니다.
마음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자용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요.

룸비니 동산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45분,
룸비니 동산에서 만나요!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 일주문



###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3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에 위촉돼, 위촉패를 받고 경찰교화 활동에 나섰다.



### 동국대 개강법회 봉행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3월 17일 오후 7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학 이사장 현해 스님을 법사로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 장국영 2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3월 27일 오후 1시 법당에서 홍콩 영화배우 故 장국영(장궈룽) 씨의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 동계올림픽 개최 기원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7일 오전 9시 경내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거행한다.(033)731-4800



### 자비수관 주제 법문

대구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은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동구 고속버스터미널 5층에서 '자비수관'을 주제로 법문한다.



### 박완일씨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 원효불교대학장 원각 스님은 3월 22일 오전 11시 불교대 법당에서 박완일 법사 초청 특별불교강연회를 개최한다.(053)563-5154



### 박석연 박사 초청 건강강좌

성인병예방범국민운동 이호식 회장은 3월부터 1·3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선릉 성원빌딩에서 박석연 박사초청 건강강좌를 연다.(02)512-6282

## 아웅산 수지, UN여성불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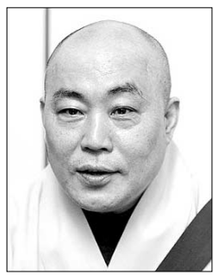


미얀마 정치 지도자 아웅산 수지(사진)가 UN이 수여하는 '여성불자상(The Buddhism prize for woman)' 수상자로 3월 7일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오랫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국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한스 피터 에릭스만 주 태국 스위스 대사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아웅산 수지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그녀는 지금도 랑곤 현지 자택에서 3차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 **강유신 기자**

# "문화포교 핵심은 '사람' 입니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취임 현진 스님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내·외국인들에게 체험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월 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취임한 현진 스님(사진)은 총무원 포교부장과 교육부장 소임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불교문화와 포교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와 포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포교를 하다 보면 서로 원만하게 맞물려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물적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사람의 문화입니다."

스님은 '21세기는 문화포교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사람의 문화를 활성화할 때 포교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자들을 응집시켜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날 중고생들이 손목에 단주를 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도 기특해서 불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프로골퍼인 박지은 박세리 선수가 손목에 단주를 차서 우리들도 찼는데요'라고 답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문화포교의 한 예입니다."

현진 스님은 부처님 설법이 아니더라도 박지은 박세리 선수가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포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사람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문화정보물을 통해 포교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 화합 통한 포교 저변 확대

### 제천불교총연합회장 황도 스님



"제천불교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근 제천불교총연합회장에 추대된 황도 스님(무암사 주지·사진)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 지역의 사찰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고 활동도 활발한 편입니다. 신행단체들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힘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과 신도단체의 화합이 제천불교 발전의 관건이라는 황도 스님은 아울러 개별 사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교와 복지활동을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도 스님은 또 유등제 등 지역 문화행사와 큰 스님 초청 법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 회원·활동 배가에 노력

### 대전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



대전의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 모임인 '청림회'는 1985년 창립돼 지역불교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 청림회가 한발 더 도약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청림회 새 회장 영진 스님.

3월 3일 청림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추대된 영진 스님(용화사 주지·사진)은 "청림회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진 스님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청림회의 '몸집 불리기'. "회원 수를 배가하면 그만큼 역량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많은 스님들을 영입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청림회가 해 온 장학사업이나 군 법당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역 복지 기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청림회 회관 마련에 대해서는 "3년 임기 동안 회관마련이 더욱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한국의 불교문화 세계에 자랑"

### '삼국유사' 독일어로 번역 김영자 교수



"<삼국유사>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삼국유사>의 독일어 번역을 마친 독일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르크대 한국어문학과 김영자(독일명 베이커 김·65·사진)교수는 "어휘 하나 선택하는 데도 공동번역자인 독일인 라이너 짐머만(뮌헨 파흐흐대 철학박사)교수와 수많은 토의 및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삼국유사가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독일의 출판사를 선정해, 빠른 시일 내에 독일어판 <삼국유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 탄허불교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취임식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 혜거 스님 취임법회가 3월 6일 대전 자광사에서 열렸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명호근 쌍용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대원불교대 부산캠퍼스 첫 입학식




대원불교대학·대학원 부산캠퍼스 2005학년도 제1회 입학식이 3월 5일 법당에서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를 비롯한 신입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원불교대학 허경구 학장은 "역사 깊은 대원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원력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불교봉사회 창립 2돌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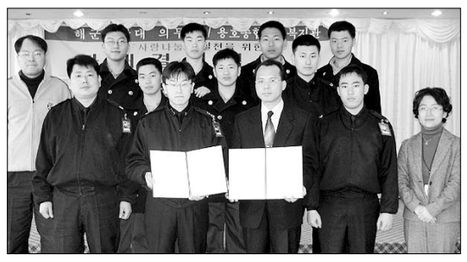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는 3월 11일 부산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부산적십자사 지구협의회 승격을 축하했다.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박추자 회장은 "불교봉사회가 불자들의 봉사 참여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5일 창립




달리는 포교사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가 3월 5일 서울 만해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된 창립법회는 연혁 보고와 회칙 승인, 임원 선출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회장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 용호복지관, 해군 3함대와 무료검진 협약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3월 7일 복지관 강당에서 해군 3함대 의무대와 무료건강검진 협약을 체결,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따라 의무대는 지역 내 노인, 장애인들에게 월 2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혜총 스님과 3함대 의무대장 정원택 대위 등이 참석했다.


이것이 사경책이다!!
(사경하신 후 부처님 복장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한문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1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2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3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4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5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6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ince 1975
도서출판 동 진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051)515-8888(代)
FAX:(051)508-0101
H·P:011-554-2988

동 진 기 획
E-mail: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www.tunhwang.com
www.동진기획.com



간(肝)이 염간 방간 경화 간지간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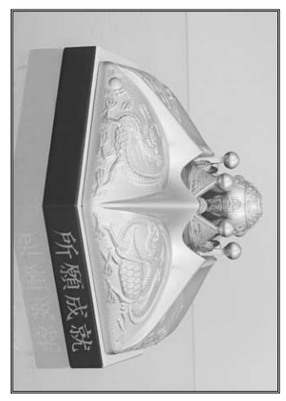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면
새로운 운으로 변합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 부담 너무 늘어난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만 불 밝히고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계의 수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금부담률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무려 32.4% 늘어난 3조8400억원이나 걷히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상속 증여세도 지난 해 1조7000억원을 걷어 들여 목표 대비 42.9%나 더 높은 세수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산세와 거래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일제히 오르는데다 자동차세와 경유 · LPG세가 인상되고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한 담뱃값 인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지난 해 245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준조세까지 합치면 국민들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침체를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감면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확대재정정책이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조세정책이 침체된 경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까 두려운 심정이다. 한편으로 이와 같이 조세정책이 조세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하경제를 범람하게 하며 시장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높은 양도세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다. 그렇다고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양도세와 상속세 등은 가진 자들의 세금이라 손 치더라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울리는 조세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정년퇴직자 한 분이 현 정부가 노인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고 있었다. 말인즉 자신과 같은 노인들은 같은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노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였다. 노인들을 위한 복리후생은 뒷걸음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정년퇴직자의 유일한 재산에 부과되는 무거운 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유차를 소지한 어느 샐러리맨의 목소리도 공감이 간다. 2년 전에 구입한 경유차의 자동차세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8년에 가면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와 같아진다. 따라서 일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은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과 같아진 셈이다. 경유값 인상에다 자동차세마저 인상되어 설상가상이 됐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중에서 진황육조(賑荒六條)의 제5조에 보력(補力)이 있는데 흉년에 백성들의 양식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선왕들의 법이었으니 잡스러운 요역과 사사로운 빚은 모두 너그러이 늦추어 주어야지 다그치고 독촉하지 말라고 했다. 수령은 장부를 들고 먼저 자기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부터 모두 감해 주고 나서, 그 밖의 조례들 중에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상부에 자세히 보고하여 그 징수를 막도록 함이 좋다는 내용이다. 요즘처럼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한번 음미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노자(老子)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뭉개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흉년이 든 해의 백성들은 더욱 동요되기 쉽고 예민하다. 정부가 국민의 고충을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

##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출가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0세 이상인 사람의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1년만이다. 애초에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승가의 질 향상이었는데, 본래 목적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단명한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종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떤 제도를 시행할 시에는 합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교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가 과연 필요했었는가를 세밀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종단에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승려의 자질 향상과 승려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이러한 금지제도를 통한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 승가의 위상을 높여 출가라는 것이 참으로 얻기 힘든 귀한 영예라는 인식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었다.

### 출가, 조건보다 목적이 중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위덕을 사회에 알리고 회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올바르게 수행한 스님들이 노후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

다행히도 조계종에서는 이런 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승가 교육을 위한 참신한 제도들이 정착하여 승가가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된다면 자연 승가의 위상과 자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단순한 부작용 때문에 출가연령 제한제도를 폐지했다는 소극적인 해명보다는 불교 근본정신에 충실하여 일시적인 일탈에서 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시행된지 1년 남짓된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키로 한 조계종의 결정은 정법으로 돌아오는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출가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승려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비책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조치와 보완책이 맞물려 출가야말로 참으로 무상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 이렇게 들었다 학교 폭력

사람이 생존 중에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 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를 했다하더라도 좋은 지식을 참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의 의미가 없다. 〈출요경〉

경찰이 최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조직의 해체 방침을 밝힌 것은 일진회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진회에 의한 폭력 행사와 성일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한 만큼 교육당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해체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일부 학교에서 일진회에 속한 중3 학생은 중2 후배로부터, 중2 후배는 중1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부터 돈을 뜯는 '금품 상납고리'가 형성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는 학교의 위신이나 간부들의 승진 문제를 우려해 일진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교육은 자신이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특히 초중고 시절은 한 인간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학생들의 폐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일진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처사는 결코 옳지 못하다.

참교육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일진회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체시키는 것만이 피해학생은 물론 일진회 소속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 김주일(취재부 기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한국의 수지 여사' 는 언제 나오나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이 수여하는 '불교계의 뛰어난 여성' 상을 받았다고 한다. 태국의 대표적인 여성 민주화 운동가 판푸잉 풍숙 반노명 여사와 함께 말이다. 그들은 민주화 영웅이자 불교계의 뛰어난 여성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교계에는 이런 상을 받을 인재가 없는 것일까? 뛰어난 사람이 죽으면 미국은 영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는 털어서 먼지 안날 인간이 없듯 생전의 잘못이 낱낱이 까발려진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속성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지 않을까.

이번 수지 여사의 수상 소식은 불자로서는 기쁜 일이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돼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만들자. 일을 잘하는 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줘야 한다. 남과 다른 길을 묵묵히 가는 이들을 깎아내리려 하는 일 없이 최선의 평가를 아끼지 말자.

우선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 불교계도 문화 이벤트 많이 해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는 '주먹밥 콘서트(일명 주먹콘)' 가 열린다.

성공회 푸드뱅크에서 추죄하는 이 콘서트는 '나눔이 있어 행복한 점심' 을 표방하고 있었다.

종교를 떠나서 도심에 있는 성당에서 조그만 주먹밥 세 개로 점심을 해결하는 대신 콘서트로 즐거움을 얻고 내가 낸 식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에 참 뿌듯했다. 콘서트도 종교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포크 가수 등이 출연하는 것이어서 즐거웠다.

불교계에서는 왜 이런 문화포교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은 웅장하고 거대한 이벤트만은 아니다. 1년에 한두 번 장엄한 행사로 불심을 키웠다면 매일 매일 접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들도 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산사음악회를 매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사찰들이 앞장서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런 작은 문화 이벤트로 인근 직장인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포교의 밑걸음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불교계도 성공회의 주먹밥 콘서트를 벤치마킹하자. 산사에서는 산사음악회를, 도심사찰에서는 주먹밥 콘서트 같은 작지만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

돈 많이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하는 행사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광선(서울 중구 정동)

### 방부불교병원은 어떻게 됐나

지난해 12월경에 방부불교병원이 경영난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 이후 방부불교병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최초의 불교병원이라는 곳인데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 이후에 3달이 다되어 가도록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무심한 것이 아닐까.

지난해 말의 경영난 위기는 극복했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지, 불교계는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소식과 함께 방법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힘들다면 그동안 어디가 달라졌는지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노상준(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조계사 15% 나눔운동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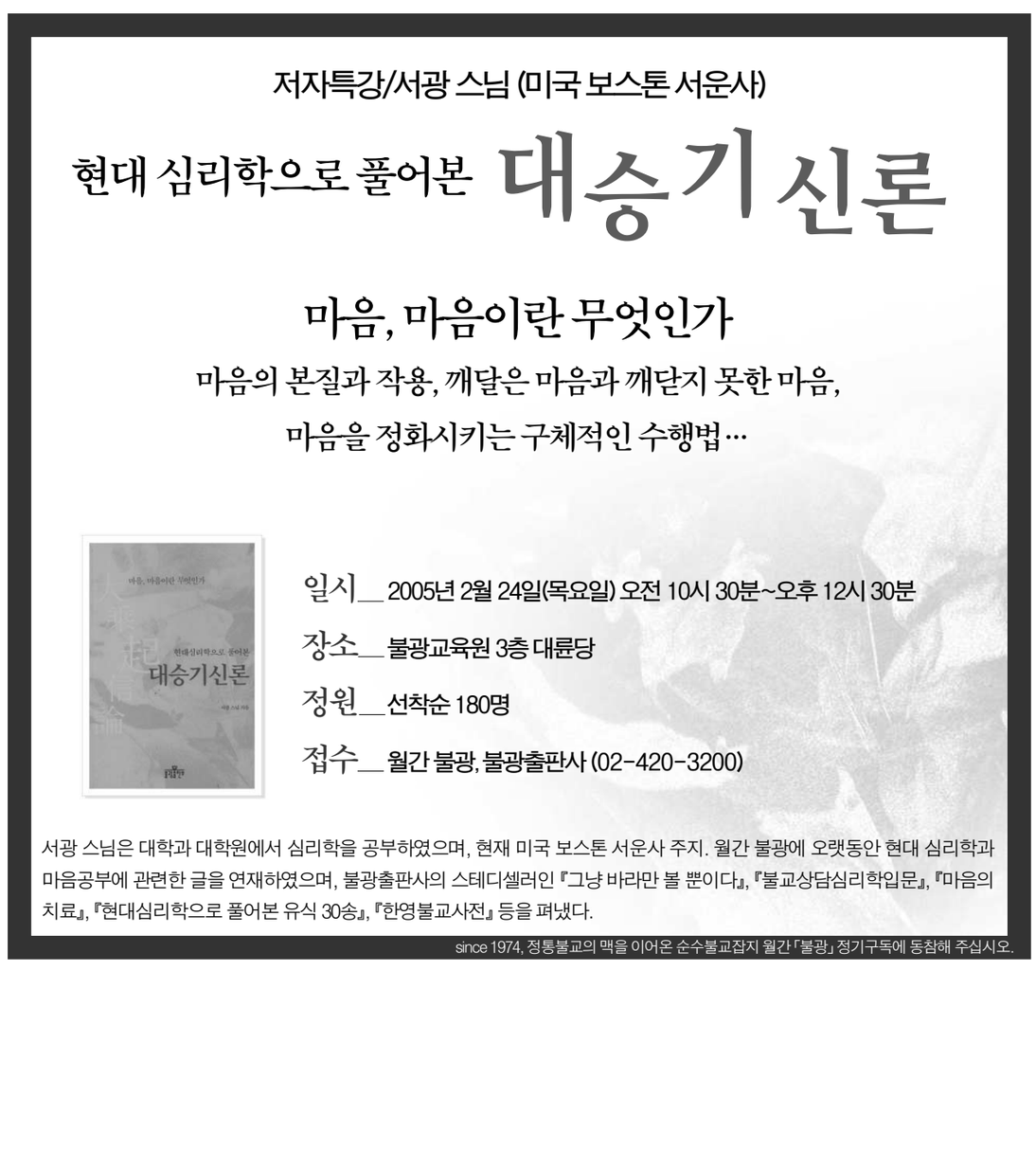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에서 조계사가 나눔의 15%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사를 봤다. 참으로 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불교계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해온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볼 수 있는 조계사에서 솔선수범해 복지기금을 적립하는등 대사회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기쁘다. 조계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이 전부 나서서 다양한 사회활동,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자가 됐으면 한다. 고명지(서울 강동구 고덕동)

## '현대' 만평 심 민 섭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팀 이공회

## "상락원은 내 집 같아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이공회가 3월8일 상락원 장애 아동들에게 목욕 봉사를 하고 있다.

"이젠 내 집 같아요. 계속 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3월 8일, 자신의 집처럼 편안히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이들 빨랫감을 정리하는 사람들.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의 집 서울 성북구 상락원(원장 지웅)에 온 자원봉사팀 이공회 회원들이다.

이공회(팀장 배순희)는 매주 화요일 오전 상락원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봉사활동 일과를 시작한다. 이제 주부 경력으로 치자면 '베테랑' 엄마들이라 아이들 먹일 반찬준비는 늘 정성스럽다.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끝내야 속이 시원하다는 배순희(44)팀장과 이공회 회원들은 활동을 끝낸 자리를 항상 말끔하게 정돈해 상락원에서 가장 반기는 봉사팀 중 하나다.

상락원에 드나들다보니 주위 사람들에게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편견은 없었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이공회 회원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오히려 뭔가 좀 더 해 줄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는 황옥순(67)보살의 말에 원영화(64)보살과 장숙자(62)보살도 한마디씩 거든다.

"애들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올 수 있겠어요. 더 애틋하고 귀엽지요."

사실 그렇게 귀엽게 여기던 아이 중 한 명이 6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이공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다. 아이를 잃은 마음의 상처는 컸지만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계속 봉사활동은 나와야 했다. 이공회 회원들은 다시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아이가 없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루만진다.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힘닿는데 까지 도와야지요." 글 · 사진=김강진 기자

### 성인용 기저귀 · 세탁기 후원해 주세요

이공회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락원에는 중증장애아동 8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중증장애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이 많아 늘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하다. 이공회 황옥순 보살은 "생필품 뿐만 아니라 아이들 빨랫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지금 쓰고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 대신 대용량 가전 제품이 필요한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호소했다.(02)921-6410

# 안국선원 군포교 적극 나섰다

6일 논산훈련소서 위문법회 · 포교기금 전달
군불자에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도

3월 6일 논산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재)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주관하는 위문법회가 열렸다. 허평환 훈련소장(육군 소장), 정경조 참모장(육군 준장), 변형균 신도회장(27연대장럽酉 ,박동진 주지법사를 비롯해 3천여 훈련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수불 스님의 특별법문과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의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돼 훈련병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마주한다면 이를 극복해낼 의지가 절로 샘솟을 것"이라며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안국선원이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군포교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눈길을 끈다. 그동안 군법당 건립 등을 후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5천만원의 군포교기금을 조성해 군법당과 군법회를 지원하고 나선 것. 올 포교기금은 신병교육부대인 육군 제2훈련소와 장교양성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 국군불교총신도회 등에 전달했다.

안국선원은 또 군포교 일환으로 군장병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보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로 안국선원은 신도회(회장 무량심)가 주관이 되어 3월부터 1년간 매월 1천부씩 현대불교신문을 군부대에 발송하기로 했다.

무량심 안국선원 신도회장은 "젊은 불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안국선원의 뜻이 모든 사찰과 불자들에게 확산돼 함께 군포교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02)732-0772 박봉영 기자




안국선원은 3월6일 논산 육군 제2 훈련소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앞줄 왼쪽 네번째)이 법회에 참여한 육군 훈령병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 "한국불교 알리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 美 새란드로에 문 연 전등사 불서 등 자료 없어 발 동동

흔히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미국. 그러나 현지생활을 하다보면 의외로 부족한 게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배울 장소와 이에 필요한 물자들.

2월 5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새란드로에 문을 연 전등사(주지 보광)도 이런 경우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며 힘이 닿는 대로 자료를 챙겨갔지만 곧 부족함이 드러났다. 스님은 "청소년 한글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관련서적, 테이프 등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지공예 전문가로 한국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던 보광 스님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교를 준비하고 있다. 스님은 간신히 아파트를 얻어 작은 법당을 마련했지만, 조만간 개인주택을 얻어 여법한 법당을 꾸릴 생각이다. 한지공예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선지문화원'도 올해 내로 개원할 계획이다. 스님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을 겪는 미국 불자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전화: 1-510-483-3301 강유신 기자



## '나눔의 초파일 행사' 준비 한창

올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어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동체대비의 자비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사들이 많다.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2개월 여 앞두고 봉축위원회 자원봉사단원들이 3월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3000여 각 사찰과 단체들에게 보낼 봉축 관련 각종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일리 김미래 최명심 최점심 최민경 이대섭 안창용 김소연 이승환 일군 박선옥 박성준- 838,410원
우진궁- 20,000원

총 누적금액: 38,833,470원

###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제자와 함께 소리를 맞추는 박송희 명창(왼쪽). 북채로 묵묵히 받아내던 소리가 저도 모르게 박명창 입에서 터져 나왔다.

산문밖의 선

# 무심해야 자신의 소리 낼수 있죠

## ‘흥보가’ 무형문화재 박송희 명창

### 60여년간 흥보가 완벽 구현 위해 노력… 78세에도 완창
### 돈 때문에 시작… 세월 지나며 소리와 하나된 자신 발견
### “쥐가 소금 먹듯 끝까지 승부하길” 후배들에 강조

지난해 6월 국립창극단 완창전 무대에서 ‘흥보가’를 또한번 완창한 판소리 명창. 완창이 보편화된 판소리 무대에서 무엇이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78세의 노장이 세 시간이나 넘는 소리를 꿋꿋하게 소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날렵한 발림까지 보인 것은 분명 놀랄 일이었다.

“하다가 그만두지 못해서 계속한 거야. 판소리는 중독성이 있어.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 소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같을 거야.”

64년간 소리에 업을 실어온,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 박송희 명창을 만났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발음과 공력이 팽팽한 성음을 선보이는 박 명창. 그는 기자가 전수관을 찾은 3월 8일에도 전수생과 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소리를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수생의 소리를 북채로만 묵묵히 받아내는가 싶더니, 제자의 소리가 깊어지자 저도 모를 사설이 터져 나온다.

“아아~으으가 아니라 아으~야. 단순히 목으로 기교를 부리려면 안 돼. 그냥 내질러 버려. 장작 패는 소리라 생각하고 내질러.”

‘대마디 대장단’이라 부를 정도로 남성적이고 강한 특성을 지닌 ‘박녹주제 흥보가’(박녹주 선생 스타일의 흥보가)를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는 그는 소리의 변형이 많은 육자배기는 부르지 않고 꿋꿋한 남성의 소리를 담은 흥보가만 불러왔다.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을 두루 꿰차고 있는 박 명창이지만, 그의 소리는 늘 흥보가로 시작하고 끝이 났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스승(박녹주)이 물려준 소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다.

“전통의 재창조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나. 스승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지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답답한데, 내 손 내 입 내 목소리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피워 올릴 수 있을까 자꾸 묻게 돼. 하지만 64년을 해도 모를 일이었어.”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 소리만은 바꾸지 말라던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긴 박 명창은 줄곧 한길만 내달렸다. 놀부가 금은보화 가득한 박을 기다리듯 흥보가에 매진했다. 배가 고프면 한 소리 장단에 빈속을 날렸고, 배가 부르면 기름 가득한 양질의 소리를 굽이굽이 펼쳐 올렸다. 흥보가 속의 놀부와 흥부는 매 순간 그의 소리에 있었다. 돈을 벌고 싶어 시작한 판소리였지만, 십년 이십 년을 그렇게 넘기니 그저 소리 속에 살고 소리와 하나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나 배움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판소리는 구전심수(口傳心授), 즉 악보없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밤낮 스승의 눈과 입만 살피며 살았다. 스승이 한 소절 소리를 던지는 날이면 온 몸의 감각을 모두 열어젖혀야 했다. 소리를 받은 이후에는 한 호흡까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그 감각들을 다시금 두드렸다.

몸 전체로 들고 나는 소리를 몇 십 년 이어가다보니 힘에 부치는 날이 왔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할 량으로 스승 앞에서 퀸을 들어 메모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객기를 부렸던 그였지만, 돌아온 건 스승의 참을 수 없는 분노 뿐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스승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스승의 그 노여움까지도 제 것처럼 느낀다.

“어디서 건방지게 글씨를 쓸 수 있었겠어. 소리를 어떻게 글자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야. 밥먹을 때 볼일볼 때 가리지 않고 항시 들고 있는 소리를 어떻게 종이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요즘 전수생들은 ‘녹음기’라는 무기가 있어 언제 어디서건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전수생들이 그 옛날 한 소절을 익히며 목을 끓일 시간이면 요즘 전수생들은 이미 한 장의 교육을 끝낸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홀로 앉아 정리된 악보를 수십 번씩 읽어내며 기계음으로 남은 스승의 목소리를 무조건 돌리는 것이다. 세상 참 좋아졌고 가르치기도 수월해졌지만, 박 명창은 할 말이 많다.

“소리는 ‘쥐가 소금 먹듯이’ 하는 거라 했어. 소금이 한 포대 가득 들어있어도 쥐들은 언젠가 그것을 다 먹고 말아. 더디게 배워도 끝까지 가는 거지.”

박송희 명창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국립창극단 안숙선 예술감독은 “박송희 선생의 소리는 하도 고급스러워서 신참들이 제 맛을 알려면 한참을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승에게 폐가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음반에 담는 것도 주저하는 그이지만, 그는 완창 무대에서 대가다운 완숙한 소리와 풍부한 너름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살스럽고 외설스러운 육담이 묻어나는 ‘놀보 박타령’까지 소화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놀보 박타령은 점잖고 담백한 여성의 판소리에서 금기시되던 대목. 이제 그는 ‘제비’가 아닌 ‘스승’이 쥐어준 박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리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다. 가끔 염주를 굴리며 몰입하곤 하는 ‘나는 무엇인가’ 화두 참구에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사설에 녹아든 놀부와 흥부의 희노애락에 울고 웃는 경지를 넘어, 그는 무심의 소리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다.

“어떤 잡념도 없고 아무 동요도 없는 마음에서 사설을 풀어낼 때 가장 큰 것을 품은 소리를 ‘문득’ 뱉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나.

경계없는 소리를 일구고 전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북을 치고 목을 쓴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박송희 명창은**

14세때 화순에서 박기홍에게 단가(短歌)와 ‘흥보가’ 대목소리를 배웠다. 15~17세에는 박동실과 안기선에게 단가와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를 익혔다. 30세에 김소희에게 ‘춘향가’ ‘심청가’를, 박녹주에게 ‘춘향가’ ‘흥보가’ 전편을 사사 받았다. 1960년대에는 박봉술에게 ‘적벽가’를 배우기도 했다.

1983~ · 1995년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강사를 맡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공로상(1982), 한국방송공사 국악대상(1986), 국립중앙극장 공로상(1986) 등을 수상했다. 2002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무심한 마음에서 사설을 풀어낼 때 가장 큰 것을 품은 소리를 뱉어낼 수 있다는 박송희 명창.


## 몽골불교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73년 동안 소련 공산당에게 짓밟힌 몽골불교 부흥을 위해 몽골국립공원에 23m 노천대불을 세웁니다.

몽골국립공원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불사
(1인 1등 1만원 밝히기 운동)

◆ 신청기간
◇ 1차 : 2005년 5월 20일 (음, 4월 18일)까지 (몽골 부처님 오신날 행사일까지)
◇ 2차 : 2005년 7월 8일 (음, 6월 3일)까지 (국립공원에 노천대불 낙성식일까지)
※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을 몽골불교공원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깁니다

◆ 몽골세계불교공원추진위원회
• 몽골 불교대표 구르도바보취 • 몽골불교대학 총장 체대브 • 아세아 불교 연구소장 볼칸
• 몽골대학생 불교연합회 남정주 • WFB몽골대표 담마자브
• 세계불교법왕청 대표 · 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 법화정사 주지 석도림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 평화통일 불사리탑 법화정사

◆ 몽골성지순례안내
◇ 제1차 : 2005년 5월 20일 - 23일(음, 4월 13일) 3박 4일 110만원
◇ 2차 : 2005년 7월 8일 - 11일(음, 6월 3일) 3박 4일 110만원

▶몽골 국립공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참자 명단-접수순)

● 서울 금강선원 : 우제길, 전현자, 우현영, 우인경, 우지윤, 김용조, 김성열, 김재환, 박용철, 박준혁, 이석우, 이상용, 정해균, 정준영, 정치영, 정판석, 이규일, 이현미, 권혁수, 권순우, 이달용, 이용철, 한의길, 오정희, 한호철, 김세미, 한현지, 김유정, 이종하, 유지현, 여환수, 전승열, 여정훈, 여태경, 석근태, 석우제, 신윤식, 신상훈, 황윤태, 김동훈, 손관우, 조용호, 손복자, 조시영, 조은영, 조민경, 이상민, 이경자, 최성원, 문월운행, 조상태, 김은희, 조설호, 조은정, 조정우, 조희영, 조정은, 조민철, 조석환, 조연미 ● 상락향수 도원 : 김욱남, 박선기, 강성연, 박정숙, 박동욱, 박준영, 김혜경, 피광진, 피연호, 피창호, 피승연, 김기선, 박제영, 김문선, 김문갑, 김문호, 이민영, 진세자, 이동헌, 이월인, 이규연, 임수용, 주선우, 이용숙, 김명자, 이동준, 이동윤, 이유진, 이선영, 김동수, 김태봉, 박경순, 김종곤, 하지영, 김형준, 김효준, 김순자, 박희천, 박계남, 이병탁, 박계숙, 박만옥, 강주태, 양남희, 강혜룡, 김석훈, 김현자, 김경희, 김기환, 박동석, 김순자, 박진영, 박태건, 심용보, 남미현, 심기영, 심경희, 남윤창, 남윤두, 강연숙, 정태명, 정권군, 정권원, 김옥순, 이용선, 이동진, 이성건, 김옥주, 김옥두, 김도삼, 정옥선, 김판곤, 양복수, 김행림, 강현석, 손재현, 남영만, 남태현, 윤성숙, 남윤아, 남윤지, 남서연, 이두정, 유영애, 이상명, 김필선, 이우행, 이보행, 박영준, 박영재 ● 불교TV : 김태윤, 이호근, 심길현, 최호식, 최명순 ● 의정부 석림사 : 보각스님, 능인스님, 법인스님, 성인스님, 명인스님, 기현스님, 우현스님, 설오스님, 법운스님, 유훈근, 오정숙, 유혜정, 정옥님, 김윤경, 박달막, 배영준, 서영림, 정형태, 정승호, 정명진, 박명순, 동관스님, 윤향순, 서석범, 안상임, 서석환, 윤한림, 이봉남, 한혜숙, 김남수, 이유경, 이은민, 이경훈, 이수남, 조영님, 이수연, 이길곤, 이광남, 이미자, 이동훈, 이은서, 이재홍, 이향희, 이유민, 이동현, 이윤찬, 정미영, 이루리, 이루라, 이혁준, 김정헌, 강선혜, 김우재, 이상락, 김경옥, 이태희, 이혜영, 조경자, 정정우, 조규홍, 고승한, 고승덕, 최영규, 김진우, 손석주, 권이룡, 김병삼, 유연자, 이예랑, 이성종, 박승원, 박수환, 이신형, 서선용, 이재용, 이용규, 김명준, 이금순, 유변청정월, 우진태, 우진권, 우재영, 김윤정, 정완상, 정병오, 정 민, 최묘성심, 황성욱, 황동욱, 이영자, 이재홍, 이계준, 최성수, 남상욱, 홍태환, 정봉구, 이홍룡, 이상용, 신동운, 신재우, 신재덕, 이우석, 이영운, 김연님, 송정순, 박도원, 김정숙, 박경옥, 박슬기 ● 남해 무량암 : 서정일, 동갑운, 정재봉, 정우아, 이호기, 이영권, 이영준, 김정애, 윤정의, 김우인, 김성주, 김군주, 김소남, 임옥순, 김건국, 신환중, 박미애, 전창식, 최문자, 신경철, 전창선, 신유진, 신동준, 우재권, 김기순, 우홍배, 우지영, 최인식, 정영도, 박희엽, 이경민, 이경아, 김동완, 김기훈, 박재순, 임월희, 최형길, 지인숙, 최보람, 조석희, 최인희, 김승환, 최현숙, 박수민, 조아란, 조수빈, 하재룡, 하선정, 조성환, 이희숙, 조지환, 조덕환, 조상상, 하희택, 류봉심, 하원재, 하성희, 하지혜, 하동근, 김창근, 박찬순, 박호근, 용관호, 김지삼, 박호근, 박상권, 이상균, 박애련, 이언주, 이현주, 강철호, 박동열, 정호변, 강찬일, 강정형, 성재욱, 신진철, 하해석, 이경도, 이학기, 이봉기, 문위선, 전둘숙, 이종환, 최익준, 이도성, 최명섭, 김종오, 김판권, 정연규, 윤병윤, 신상식, 하종오, 강창옥, 하현찬, 김종민, 이병갑, 윤영삼, 강호덕, 김종옥, 이광태, 강주열, 정용민, 조문호, 최순자, 조승환, 조성희, 이혜옥, 김진우, 이문혁, 김남순, 이상현, 차정희 ● 선덕화 보살 : 강정문, 이설자, 강병옥, 이상은, 강상옥, 최재선, 이복자, 최용수, 이화진, 최성옥, 최진옥, 홍도선, 서금자, 홍연화, 홍지연, 서기석, 장명순, 서종환, 김연숙, 서민경, 서동현, 서진숙, 서귀미, 이철호, 이현석, 박정윤, 이상학, 이정윤, 이두희, 이춘주, 이수택, 김정희, 이근영, 이근하, 강래월, 박하늘, 박고운별, 강정숙, 강혜숙, 강태규, 강혜정, 강창수, 강창영, 강정호, 한인자, 강경옥, 강태욱, 홍천표, 김순희, 홍성권, 홍선영, 성학표, 성선영, 성선광, 김대성, 이안자, 김정희, 정경현, 김인순, 김선재, 안영환, 왕효숙, 안혜진, 안수경, 안재홍, 김성구, 정영분, 김홍주, 양윤미, 김준식, 이병영, 최영숙, 이동규, 박은희, 이순영, 이주영, 이종욱, 이대규, 김경숙, 이종택, 이종구, 장재철, 이명순, 장주희, 손형일, 이명희, 손명균, 손미진, 한영서, 장명래, 한대희, 한대우, 신수정, 이건희, 이만환, 김종자, 이승훈, 이규형, 서정임, 이현서, 이순옥, 송기문, 신 영, 조미례, 신수양, 강성준, 신현선, 신재원, 곽단비, 박원순, 이현성, 박성혈, 박민영, 박민주, 박성훈, 김미숙 배상현, 박정미, 배영훈, 배지혜, 엄초근, 박미란, 엄지현, 엄지우, 하준성, 박미옥, 하수진, 한재섭, 구남이, 한경화, 한건우, 한지영, 김동규, 김나영, 소수영, 이선자, 소효신, 소성배, 윤진권, 위종분, 윤미라, 추영근, 윤성주, 박찬주, 이영숙, 박혜진, 박철호, 최정선, 박은기, 박혜기, 남기창, 박미라, 남우현, 신현자, 이현수, 이영숙, 이은정, 이동규, 이종수, 우미정, 우창무, 서정자, 윤금석, 김성숙, 윤민정, 윤제용, 윤준석, 김현정, 윤상훈, 윤상현, 윤성원, 김경민, 윤용훈, 윤나영, 윤서연, 박재환, 라호연, 안병남, 라채신, 라채윤, 김현미, 김충근, 라혜성, 라정원, 라규호, 라지민, 김성진, 김성연, 김학열, 이정진, 김상진, 권경택, 정경순, 권충안, 권형안, 안영근, 안형민, 안성기, 안형숙, 안현준, 이효일, 이영수, 이영준, 안정섭, 안준성, 안준용, 안준범, 최현수, 조재연, 한지민, 한지원, 한채은, 백운철, 윤성림, 백인호, 김정선, 백재원, 백충호, 이진우, 백경아, 이기정, 이예진, 권영화, 백경남, 권보람, 김동명, 김영숙, 김현희, 김아름, 최동숙, 최주연, 최주희, 임원애, 남석우, 박종옥, 이택수, 안미환, 이혜미, 이희진, 이예환, 이주현, 채동민, 남기숙, 최승환, 신정자, 최재혁, 최재일, 장소영, 최진용, 최우용, 황동남, 신후미, 황 용, 조숙희, 황현식, 황현호, 황지호, 이승하, 황수희, 이은지, 김경목, 황선아, 김 백, 황 웅, 정미나, 황윤영, 황윤하, 황성형, 박대화, 신혜선, 유창영, 박연옥, 유인혁, 김선진, 유재열, 유채은, 채기호, 이동언, 김순옥, 이승재, 이정재, 박양남, 백승호, 임옥순, 백종범, 김덕기, 곽보리수, 김진태, 김병선, 김아원, 김태원, 이예환, 김민옥, 김동관, 김경애, 원명순, 고병숙, 원정희, 원소희, 강옥식, 추연희, 추순희, 추순호, 강혜신, 추수민, 추재은, 추서진, 신정애, 한명구, 박지면, 김태진, 한의정, 하승호, 서정애, 하태인, 하태훈, 연태희, 연규석, 오영희, 연민홍, 연꽃님, 이규대, 조성희, 이종혁, 황종태, 박승희, 박수민, 김상규, 이봉자, 김병진, 김미옥, 유동선, 유남선, 문정부, 이유옹, 이태훈, 이수희, 문석준, 문상기, 신현균, 박정숙, 신호철, 신병철, 신은경, 홍승철, 이미애, 홍상희, 홍효정, 최현숙, 이중재, 이광재, 이점수, 우종옥, 이민아, 이민영, 이현홍, 이민옥, 이종훈, 이준수, 차현숙, 이희승, 이나라, 조광현, 이은주, 이희정, 이광우, 이병송, 이정순, 이유수, 이은수, 이상지, 권오을, 이은경, 권혁종, 권혁우, 안행근, 안준혁, 장성순, 김태희, 장경환, 장동호, 손화연, 양창규, 장경숙, 양지선, 양현석, 박종훼, 박일룡, 이진순, 박혜성, 박상우, 이상민, 이상규, 이상무, 김기문, 김병수, 오세진, 이계선, 오정민, 이기후, 조은제, 이민혁, 김윤수, 이덕봉, 서복임, 이승주, 양석우, 황노마, 양병문, 양병현, 이준호, 박미순, 신화선, 김조희, 김태균, 김종두, 홍일묘, 문정용, 양남열, 김성희, 양 미, 양 설, 양 운, 양동규, 김내신, 이민서, 이은영, 최준혁, 최형선, 김정애, 황명순, 김서운, 홍은희, 박민주, 방정휴, 정환기, 박태균, 김영주, 김현민, 김수웅, 황차순, 김현동, 안무리, 김석인, 최길호, 신정학, 최수연, 최우연, 최광운, 최재성, 김인범, 김지선, 조범제, 김혜영, 홍성학, 윤희숙, 최준혁, 최지선, 최지원, 최지우, 최희숙, 최정자, 김현정, 장기숙, 김대훈, 김은진, 이원순, 김혜영, 김성희, 김미애, 김윤희, 김정희, 김지현, 김혜정, 김혜숙, 김남수, 이유경, 이은민, 이경훈, 이수남, 조영님, 이수연, 이길곤, 이광남, 이미자, 이동훈, 이은서, 이재홍, 이향희, 이유민, 이동현, 이윤찬, 정미영, 이루리, 이루라, 이혁준, 김정헌, 강선혜, 김우재, 이상락, 김경옥, 이태희, 이혜영, 조경자, 정정우, 조규홍, 고승한, 고승덕, 최영규, 김진우, 손석주, 권이룡, 김병삼, 유연자, 이예랑, 이성종, 박승원, 박수환, 이신형, 서선용, 이재용, 이용규, 김명준, 이금순, 유변청정월, 우진태, 우진권, 우재영, 김윤정, 정완상, 정병오, 정 민, 최묘성심, 황성욱, 황동욱, 이영자, 이재홍, 이계준, 최성수, 남상욱, 홍태환, 정봉구, 이홍룡, 이상용, 신동운, 신재우, 신재덕, 이우석, 이영운, 김연님, 송정순, 박도원, 김정숙, 박경옥, 박슬기 ● 남해 무량암 : 서정일, 동갑운, 정재봉, 정우아, 이호기, 이영권, 이영준, 김정애, 윤정의, 김우인, 김성주, 김군주, 김소남, 임옥순, 김건국, 신환중, 박미애, 전창식, 최문자, 신경철, 전창선, 신유진, 신동준, 우재권, 김기순, 우홍배, 우지영, 최인식, 정영도, 박희엽, 이경민, 이경아, 김동완, 김기훈, 박재순, 임월희, 최형길, 지인숙, 최보람, 조석희, 최인희, 김승환, 최현숙, 박수민, 조아란, 조수빈, 하재룡, 하선정, 조성환, 이희숙, 조지환, 조덕환, 조상상, 하희택, 류봉심, 하원재, 하성희, 하지혜, 하동근, 김창근, 박찬순, 박호근, 용관호, 김지삼, 박호근, 박상권, 이상균, 박애련, 이언주, 이현주, 강철호, 박

## 나의 수행법

### 김의식 (上)



참선수행은 내게 마음공부의 '길라잡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해 활발발한 정신세계로 귀속케 하는 그런 존재다. 즉 부동심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안정의 영속성으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난 결가부좌로 좌선에 들어 갈 때마다 말로 표현 못할 청량감을 경험한다.

좌선은 이렇게 하고 있다. 먼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후 한 단계 나아가 호흡을 다스린다. 호흡은 생명의 근원이라 할 만큼 좌선에서 핵심이 된다. 호흡이 정교하게 되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흡이 거칠거나 끊어지면 산란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호흡은 좌법과 함께 주요한 참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중을 하면, 좌법과 호흡법과 집중법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참선의 골격을 완성하게 된다.

### 참선점검표 만들어 1년 내내 작성
### 늘 자신 성찰…작은 챙김 큰 만족

나는 이 원리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 또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참선점검표'를 만들어 참선일지를 써 보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3개월. 놀랍게도 매일 점검표를 작성하다 보니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참선수행을 하게 됐고, 스스로 좌법과 호흡법과 집중법의 향상을 가져왔다.

참선점검표를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헤드라인에 일시, 좌선 장소, 좌선소요시간, 좌법, 호흡법, 집중상태, 느낀 점, 비고란 등을 적고 좌측 하단으로 1~31일의 칸을 도표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 난을 빠짐없이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좌법, 호흡법, 집중상태의 난에 만족, 보통, 불만족의 느낌을 3점, 2점, 1점으로 평가하고 1달간의 내용을 합산 평균을 내어 보는 것이다.

물론 처음 할 때는 번거로웠다. 일일이 적으면서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소용없어 보였다. 하지만 참선점검표는 늘 자신을 성찰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진상태를 점검하게 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됐다.

이렇게 일년간 습관을 들이다 보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일은 아주 작은 챙김이었지만 그 효과에 아주 흡족했다. 또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은 다분히 심정적 상태나, 좌선의 효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가령 무량광명이 눈앞에 펼쳐진다거나, 맑은 물속에 고요하고 소쇄하게 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또 미세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거나, 소란스런 굉음도 부드럽게 들리거나, 아랫배가 뜨끈뜨끈해 지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의 전율을 느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머리의 정수리가 주기적으로 벌럭벌럭거리거나, 자신의 모습이 아래로 보이거나,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경계들이 느낌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런 참선수행의 느낀 점은 자기변화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수행과정에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을 확인하고, 그것이 수행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마음변화가 정말로 하나도 마음에 둘 일이 아니라는 자기반성은 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또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두니, 나중에 점검하는데도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계속)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깨어있는 순간 의정이 일어난다

### 일문일답 – '의정' 주제 논문으로 석사학위 이상호 씨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의심을 깨뜨려서 함께 불성을 보리라"

혜능 선사가 〈육조단경〉에서 의정(疑情)을 강조한 말이다. 의정이 간화선 수행의 고갱이이자 간화선 수행의 처음과 끝이란 뜻이다. 심지어 의정이 유발되지 않는 공안·화두는 아예 죽은 말이란 의미다.

이처럼 간화선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을 주제로 다룬 학위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그간 간화선 관련 논문이 다수 발표됐지만, 간화선의 '의정'만을 주제로 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제목은 '중국선종 수행법에 나타난 의정에 대한 연구–간화선을 중심으로.' 지난 1982년부터 부산 보림선원, 서울 선도회, 한마음선원 등에서 간화선 실참을 해온 이상호 씨(43·한강홍수통제소)가 2004년 위덕대 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의정에 관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정의 역할과 의의, 간화선 확립 전후에 나타난 의정, 간화선 수행법에 나타난 의정, 3심과의 관계, 조사선·묵조선·간화선 등에서의 의정에 관한 입장과 차이점 등을 밝혔다.

이상호 씨를 만나 의정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의정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들었다.



간화선 '의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상호씨. 사진=고영배 기자

▲ 의정이란 무엇인가. 의심 의정 의단의 개념차이, 그리고 이들을 나눠 설명한 이유는?

–의심(疑心), 의정(疑情), 의단(疑團) 등의 단어는 대혜종고 선사를 중심으로 살필 수 있다. 의정이란 개념이 정립된 종고 선사 이전에 의정과 의심의 의미를 구분 짓기 위해서 나눠 설명했다. 종고 이전에는 의정을 의심이라 했다. 의단은 종고 선사가 화두에 대한 의심에서 그 성격이 좀더 구체화된 개념이다. 의정과 의심 사이에는 다른 개념정의는 없다. 의정과 의단은 종고 스님 이후 간화선 수행법이 세련돼가면서 의정은 화두보다 덜 강조됐다. 하지만 이후에는 의정이 더욱 부각됐다. 화두보다 의정이 강조돼 가는 과정에 나온 말이 의단이다.

▲ 의정이 왜 중요한가?

–의정은 실참 과정에서 드는 의문이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생각이다. 즉 다른 생각들이 전혀 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의심이다. 때문에 의정은 '깨어있음과 같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순간에 의정이 돈발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의정은 '이것인가 저것인가'란 사량분별적 차원이 아니다. 내적 발로돼 생생하게 깨어있음에 대한 표현이 의정이다.

이것이 간화선 수행에서 의정이 중요한 이유다. '깨어있음' 그 상태에서 의심이 돈발돼 본격적으로 간화선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그 깨어있음과 같이 가는 것이 간화선의 의정이다. 의정을 듦으로써 깨어있음이 동시에 함께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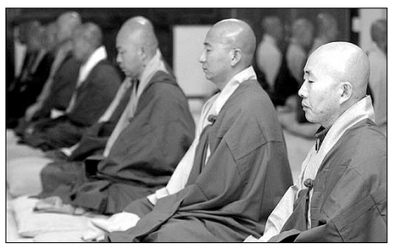
▲ 의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화두 공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화두 자체가 이미 의정을 담고 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와야 한다.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두 자체에는 이처럼 의심거리가 내포돼 있다. 문제에 이미 해답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화두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수행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화두 공안에 의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죽은 수행을 하는 셈이 된다.

### 의정은 신심성취 계기, 분심은 수행 에너지원
### 실참 과정에 생기는 의문…화두에 의정 담겨

▲ 신심, 분심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히 의정은 신심과 모순 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 '본래불성'을 믿는 신심은 의정을 통해 수행해 나아가는 하나의 목적이자 방향타가 된다. 또 의정은 완전한 신심을 성취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분심은 불퇴전의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이들 삼심은 하나라도 떨어져서 성립할 수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있고 필수불가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요소들이다. 마치 발이 셋인 솥과 같다.



사진은 화두를 들고 있는 스님들. 의정은 수행자에게 수행의 핵심이 된다.

▲ 논문 주제가 '간화선 수행법에서 의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다. 그 논지 전개에서 의정을 의도적 의정, 주체적 의정이라고 나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의정의 연원은 부처님의 근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화두에 있어 의정을 의도적 의정이라 한다면, 부처님의 근원적 문제의식은 주체적 의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간화선이 중국선종의 수행법이지만, 그 자체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불교의 한 줄기다.

선불교라 해서 독특한 수행법으로 달리 특징지을 필요가 없다. 그 뿌리는 부처님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부처님의 근원적 문제의식과 간화선 화두에 대한 의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처럼 분류했다.

▲ 최근 각묵 스님이 선우논강에서 "초기불교수행법은 분석적 해체, 간화선은 직관적인 통찰에 있다"고 했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수행법이 같다는 시각과 배치되는데. 이들 수행법은 의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초기불교의 수행법은 분석을 통한 수행법이다.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적 문제의식과 간화선의 의정은 접근방법상의 의미가 아니다. 간화선의 의정은 화두에 대한 의정으로 시작해 궁극에는 부처님의 근원적 의정과 만나게 된다. 깨달음은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이고, 그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의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간화선의 의정이 되고, 그 의정을 의도적 의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석존의 근원적 문제의식임을 자각케 한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수행법 차이는 번뇌관에서 확인된다. 초기불교는 낱낱이 분류된 번뇌들을 제시했고, 그 분석된 번뇌에 맞게 수행법을 제시했다. 반면 간화선의 수행법은 분석된 번뇌들을 의정이란 말로 다 끌어다 뭉쳤다. 삼독심 등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번뇌들을 오직 의정 하나로써 뭉치게 했다.

▲ 조사선, 묵조선 등에서는 의정을 어떻게 보는가?

–간화선과 묵조선의 차이점은 '의정의 유무'에 있다. 간화선은 의정을 통해 내가 깨닫고 확인하고 또 동시에 완전한 자각으로 '완전한 믿음'을 성취하는 수행법이다. 반면 묵조선은 의정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조사선의 정신을 드러내려는 수행법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통한 깨달음이 의정을 통한다고 강조한다.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의정이 있어야 한다. 화두에 대한 의정이 없으면, 묵조선으로 가게 된다.

즉 현성공안으로 가는 것이다. 화두에 있어서 의정이 빠지면 현성공안으로 가는 것이고, 의정이 붙으면 간화선으로 가는 것이다.

▲ 의정이 다른 수행법에서도 회통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의정은 간화선이든 염불선이든 절수행이든 다른 수행법에서도 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의정은 간화선에서만 해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법의 단초, 고갱이가 될 수 있다. 각 수행법에 응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말한 주체적 의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화두에 대한 의도적 의정은 인식의 길과 의도의 길을 끊어버리는데 특징이 있다. 의정이 대부분 수행법의 공통점이 되지만, 간화선에서의 의정은 심로를 끊는, 또 의로 언로 등을 끊는다는 점이 다른 수행법에서의 의정과 다르다.

▲ 의정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간화선의 치열함은 화두에 대한 의정에 비롯된다. 삶의 자기문제에서 우러나오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완전한 의미의 의정은 의도적 의정과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에 치열하라는 주체적 의정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진정한 수행자가 갖는 의정의 모습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그 자체로서의 문제의식으로만 남는다면, 의심을 위한 의심일 뿐이다. 즉 자기 자신의 문제에 치열해야 할 때, 그것은 정말로 화두에 대한 의정과도 연결된다. 자기 자신에 문제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의정이 힘이 약한 것이다. 밑받침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 의정이 치열해야 화두에 대한 의정이 일어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 직지불교대학 제 3기(대구 동구 지원) 제 20기(대구수성포교원) 신입생모집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의 직지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의 내용

| | | | |
|---|---|---|---|
| 제 1강의 | 사찰 예법 및 특강 그리고 찬불 배우기 | 제 6강의 |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
| 제 2강의 | 불교란 무엇인가? | 제 7강의 | 근본교리 및 발우 공양 체험 |
| 제 3강의 | 합장예배 찬불가 배우기 | 제 8강의 | 영혼의 윤회와 인과법칙 |
| 제 4강의 | 일주문(一柱門)에서 절대적 하나의 세계 불이문(不二門)까지 | 제 9강의 | 대승보살도의 육바라밀 |
| 제 5강의 | 부처님의 생애 및 찬불가 배우기 | 제10강의 | 선 사상과 참선 체험 |

▶강사진 : 혜창큰스님, 흥선스님(직지사강주), 도일스님(직지불교대학장), 덕선스님(동화사강사), 정인스님(직지사강사)

**쉽고 재미있는 불교강의 및 생활법문.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고찰 김천 직지사 사찰순례 법회 일정】**
● AM 9시 출발 : 11시 직지사 도착(걸어서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 대웅전참배 → 녹원큰스님친견 → 점심공양 후 경내 박물관 견학 자유시간 1시간 후 → 대구로 출발

◆ 입학일시 : ● 대구수성포교원 – 2005년 3월 17일 ● 대구동구지원 – 2005년 3월 18일 오전 10시 (야간) 오후 7시
◆ 수강시간 : ● 대구수성포교원 – 매주 목요일 ● 대구동구지원 – 매주 금요일
◆ 입 학 금 : 5만원(교재포함) ◆ 수 강 료 : 1개월 2만원 ◆ 기 간 : 초급 5개월 과정
◆ 장 소 : ● 대구수성포교원 – 지산동 지산삼거리 옆「양지산」직지불교대학 황룡사 법당
● 대구동구지원 – 동호동 반야월 네거리 직지선원 법당 5층(반야월 지하철 3번입구)
◆ 특 진 : 1. 수료시 불명수여 2. 희망시 조계종 신도증 발급(사찰무료입장) (수시접수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 대구수성포교원 053)784-8620, 8619 ● 대구동구지원 053)961-8620
※ 계좌이체 : (농협) 718-02-165594 (예금주 : 이현무)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직지불교대학 황룡사·대구수성포교원 직지선원·대구 동구 지원

##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① -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삶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수행이 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열한 내면의 꿈틀거림이 삶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수행열기가 지금 도심수행도량을 달구고 있다.

본지는 이렇게 도심에 불고 있는 수행바람의 진원지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가. 독자들과 함께 도심수행도량을 찾아 나선다.

# 육바라밀 실천으로 본래부처 확인

***#불광사 대학원 1기 졸업생들 뭉쳐 선원 열어***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살고 죽는 것이 호흡 하나에 달려있어요. 호흡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들숨과 날숨을 잘 들여다보세요."

3월 8일 오후, 서울 잠실 불광사 불광선원. 구참자 배광식(78 · 종본)씨와 한 초참자와의 문답이다.

초참수행자는 참선수행의 기초인 수식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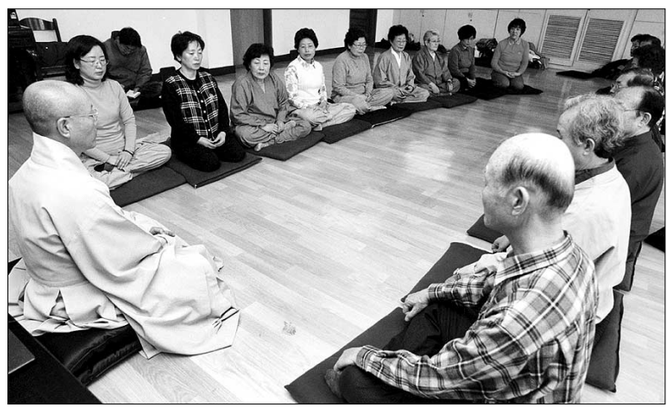
"즐거운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돈된 호흡으로 내 생명을 다시 의식하세요. 그러면 활기찬 들숨과 날숨을 경험하게 돼요. 그 때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20여 수행자들이 50분 참선 이후 갖는 문답시간은 이처럼 서로의 안목을 드러내며 '공부 길'을 짚어주는 법담으로 진행된다. 수식관부터 화두 드는 법, 수행체험담 등을 공유한다. 수십 년간 '이뭣고' '무(無)' 등의 화두를 참구해온 수행자들은 선문답을 하기도 한다.

재가참선도량 불광사 불광선원은 2003년 개설됐다. 불광사 대학원 1기 졸업생 20명이 자발적으로 뭉쳐 선원을 열었다. 20년 넘게 실참을 해온 베테랑 수행자들이 선원 개원의 주축이 됐다.

불광선원 총무 이용희(48 · 자성인)씨는 "순수불교운동을 전개한 광덕 스님의 반야바라밀수행법을 수행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이 수행법은 바로 내가, 부처님의 행인 육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실천해 본래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불자들이 3월 8일 선원에서 회주 지홍스님과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때문에 선원의 수행은 '바라밀수행법'에 맞춰 있다. 광덕(1927~1999) 스님이 "반야바라밀을 정견(正見)으로, 보현행원을 대행(大行)으로 삼아 마음공부하라"는 가르침에 바라밀수행법의 원리가 담겨있다.

즉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바라밀수행법의 목표이고,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 구체적인 행법이라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을 정견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마음공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바라밀수행법에 대해 "모든 존재는 연기관계 속에 있다. 그런 연기법칙대로 살아가는데 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그 원리대로 사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보현행원이다. 그 실천을 통해 깨달음과 불국토를 완성하는 것이 이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럼 구체적인 바라밀수행법은 무엇인가? 육바라밀의 현실적인 재해석이 중요하다. 우선 보시는 자비사상의 실현과 실천방법, 지계는 모든 인간적 삶의 윤리도덕, 인욕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의지 등으로 설명한다. 또 정진은 끝없이 보살행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선정은 모든 번뇌망상을 소멸시키고 자기 본래 마음을 회복시켜내는 것, 반야는 이 모든 수행법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특히 육바라밀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지홍 스님은 "모두 다 자기완결성을 갖고 있지만, 각기 연관성이 있다"며 "각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다 같다"고 설명한다. 모두 상통돼 있다는 말이다.

***#자율적 운영이 원칙…염불 · 간경 등도 교육***

불광선원은 매일 개인별로 자유수행이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참선은 오후 4시 30분까지 50분씩 두 차례 진행한다. 또 다담시간을 마련해 수행체험담을 나누고, 5가지 동작을 21번 반복하는 티베트 요가체험 시간도 갖는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선원을 개방한다.

20년 째 바라밀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안효진(88 · 청정행) 씨는 "그간 여러 가지 수행법을 실참해왔지만, 결국에는 바라밀수행으로 정리되면서 지혜의 힘을 얻게 됐다"며 "그 힘이 육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실천해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불광사는 바라밀수행법 외에도 초심자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양한 수행법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지홍 스님은 재가불자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특히 불광사 교육원을 통해 모든 경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염불원에서는 반야바라밀염송을 독려해 수행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도록 하고 있다.

www.bulkwang.org (02)413-6060~2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선수행-정신치료 관계를 말한다

### 26일 서울대병원서 첫 학술연찬회

'선(禪)수행과 정신치료, 소통이 가능한가?'

한국정신치료학회(회장 이정국)는 3월 26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학술연찬회를 갖고,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간 선수행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호대화의 장을 간헐적으로 마련했었지만, 이번처럼 양 분야의 전문가가 대단위로 학술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수행자들의 선수행 체험담을 발표하는 시간이 준비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웅(서울 육조사 선원장), 지운(대구 용연사 주지) 스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이 발표자로 나서고, 박병탁 전문의가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연찬회는 또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이동식 명예회장(한국정신치료학회) 등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문홍세 신경정신과 전문의, 홍성화 영남대 명예교수 등이 나선다. (02)764-8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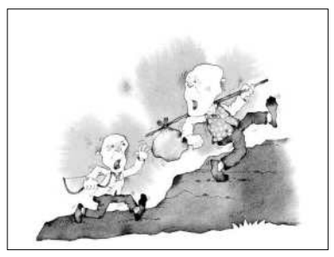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9> 선종의 저변은 무인가풍이다

선어록을 읽다보면 의외로 거칠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이 글의 큰 제목처럼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옆구리 쥐어박고 걷어차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도 모자라 활(弓)과 칼까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른 바 '활발발'로 표현되는 무인풍(武人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른바 무사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사냥꾼 등을 포함하여 무인적인 기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선종으로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육조단경〉돈황본의 도입부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혜능 선사가 오조홍인으로부터 의발을 전해받고 남쪽으로 도망치는데 뒤쫓아오는 주인공은 혜명 스님이다.



"약 두어달 걸려서 대유령 고개에 도착하였다. 내가 떠나온 이후에 수백명이 쫓아와서 나를 붙잡아 가사와 발우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를 뒤쫓아오다가 중간쯤에 모두 되돌아갔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진혜순(陳惠順:일반적으로 '혜명'으로 불림)이 끝까지 쫓아왔다. 그는 삼품장군 출신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었다."

### 군인 사냥꾼 등 다수 선종으로 출가
### 불퇴전 정진자세 '힘'을 '법'으로 승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서 모두 포기하였지만 장군출신인 혜명 스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불퇴전의 정진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데 이런 무인정신이 마냥 '무대뽀'인 것은 아니다. 무사풍 역시 법을 위한 것일 때만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혜명 스님도 혜능 선사가 던져버린 가사와 발우를 참으로 가진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법'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법문을 듣고서 완전히 안목이 열린다.

혜능 선사는 그 이후에도 법성사의 인종화상 회상에 나타날 때까지 15년을 사냥꾼과 함께 살았다.

선가에서 사냥꾼을 대표하는 인물이 석공혜장 선사이다. 그는 수렵이 본업이었다.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마조 선사를 만나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활을 버리고 출가해 마침내 깨침을 얻었다. 근데 한 산중의 방장이 되어서도 출신은 속일 수 없었는지 상당법문을 할 때마다 활(弓) 시위를 당기고는 할(喝)을 하는 것을 한 두번도 아니고 물경 삼십년 동안 계속하였다. 어느 날 삼평이라는 걸걸한 수좌가 선사 앞에 나타나 '쏠 테면 쏘라'는 식으로 가슴을 풀어제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호적수를 만날 수 밖에 없다. 석공 선사가 활을 버리니 삼평 수좌 역시 괄괄한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殺人箭)이거니와,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화살(活人箭)입니까?" 개떡같은 박제된 법문(死句)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진짜 살아있는 활구(活句)를 내보이라는 말이다.

이 '살인전(殺人箭) 활인전(活人箭)'은 '칼'이라는 말로 대치하면 그대로 '활인검 살인검'이 된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두동강을 내어 모든 시비를 일거에 끊어버린 것은 살인검인 동시에 활인검인 까닭에 반야지검(般若智劍)이 된 것이다. 그것은 파릉 선사에 의한다면 취모검(吹毛劍)이 된다. 가늘디 가는 털을 입으로 불어서 칼날에 닿게만 해도 끊어지게 만드는 예리한 칼은 미세한 번뇌까지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반야의 칼이다.

파릉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나 시적(詩的)이다.

"산호가지마다 영롱한 달빛으로 흠뻑 젖은 것과 같지."

무사체 질문에 역으로 문사풍(文士風)으로 대답하였다. 무(武)가 정법(正法)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갓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군출신인 혜명 스님이 나무꾼출신인 혜능 행자 앞에 무릎을 꿇는, 법에 대한 간절함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하긴 말법시대에는 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법 또한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일 뿐이지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교의 기준을 정한다

**수 행 학 교 반 냐 라 마**

부처님이 직접 행한 정통수행법인 싸띠수행(위빠싸나, 참선)과 근본불교를 통하여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즐기세요. 수행은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18기 수강생 모집안내**

| 개설과목 | 강의내용 | 시간 및 장소 |
|---|---|---|
| 불교지도자 과정 | 불교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지식 | 서울 : 월 저녁반 6시 ~ 10시<br>부산 : 토 오후반 3시 ~ 7시 |
| 수행교실(기초반) | 부처님 정통 수행법 이론과 실기 | 서울 : 화 오전반 10시 30분 ~ 1시<br>저녁반 7시 30분 ~ 10시 |
| | | 부산 : 화 오전반 10시 30분 ~ 1시<br>저녁반 7시 30분 ~ 10시<br>토 오전반 10시 30분 ~ 1시 |
| | | 대구 : 목 오전반 10시 30분 ~ 1시<br>저녁반 7시 30분 ~ 10시 |
| 사이버수행교실 | 부처님 정통 수행법 이론과 실기<br>※ 강의내용은 수행교실 기초반과 동일합니다 (24회 강좌) | www.pannarama.net |
| 경전교실 | 근본경전 쑷따니빠다 | 서울 : 수 오전반 10시 30분 ~ 1시<br>저녁반 7시 30분 ~ 10시 |
| | | 부산 : 금 오전반 10시 30분 ~ 1시<br>저녁반 7시 30분 ~ 10시 |

◆ 입학식 : 3월 20일 오후 1시 각 지역 반냐라마
◆ 기 간 : 일반과정 - 3월 20일 ~ 5월 8일(10회)
불교지도자과정 - 3월 20일 ~ 1월 8일(40회)
◆ 모집대상 : 부처님이 행한 정통수행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근본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불교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 수업진행 : 매회 150분 수업(70분 이론수업 + 80분 실기수업)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http://반냐라마, 대표전화 011)1700-2841
서울 02)597-2841 부산 055)331-2841 대구 053)475-2841



34년 전통의 웅변 · 연설 · 설법의 도장

**㊊ 설법대학 제3기 학인 ㊐**

34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과 대중화술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님 및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 학장 **표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 2005년 3월 12일 ~ 4월 10일
◇ 개 강 :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 강의일시 : 매주(목) 오후 2시 ~ 4시

**모집대상**

◇ 포교사 자격 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화술 스피치를 요하는 일반인 및 지도자
◇ 서예, 동양화, 사군자, 취미 및 전공 희망자
◇ 학원 설립 및 강사 희망자
◇ 대학진학 특기 장학생 희망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1통)
◇ 증명사진 3매

**전국 웅변대회 개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제35회 웅변대회
◇ 일시 : 2549년 5월 15일 오후 1시

**교 수 진**

**불교교리**
◇ 표자원 스님
대한불교웅변인 협회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 웅변인 협회회장.

**설법, 웅변, 연설, 화술**
◇ 이종래
대한웅변인협회 전 회장, 국사원 원장.
◇ 손은봉
MSA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대통령상 수상(웅변부문)

**성우, 방송**
◇ 김계원 KBS 성우

**서예, 동양화, 사군자**
◇ 지촌허룡
단원전통 한국문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건강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한국본부
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사무총장.
국제포교사
◇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전화 : 02)732-5509. 736-1895. 735-1896 팩스 : 02)723-4350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광 명 사 (3호선 무학재역 3번출구)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6)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이름을 만나거든 이름을 베고

# 내 불성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다오

'붓다뉴스'에 어느 분이, 제가 "불교학자나 철학자라기보다 에세이스트같다"라고 평을 해 주셨습니다.

제 글이 여느 불교학자들이나 철학자들과 다르게, 미안합니다, 딱딱하거나 고답적이지 않고, 문학적 향취가 있다는 뜻일 거라 짐작하고, 으쓱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의 세 '이름'들은 서로 다른 이름들인가요. 가령 에세이스트라면 불교학자나 철학자일 수 없고, 불교학자는 또 철학자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옛적에 쓴 책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를 두고, 어느 기자가 신문서평에서 '한문학자'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아차, 한문학 하시는 분들이 한 소리들 하시겠군"이라고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도, 불교학자, 한문학자, 에세이스트**

저는 이 모두의 이름에 걸쳐 있지만, 어느 하나도 꼭 집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철학과를 나왔으니 '철학도'일 것이나, 불교를 공부했으니 '불교학자'가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글에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으니, '문학도'는 낯간지럽지만, '문학적'이라거나 '에세이스트'의 이름을 쓴다 해도 큰 죄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살아 있는 저를 감당하기는 태부족일 것입니다.

'이름'에 너무 고집하거나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떤 특성들을 거칠게, 그리고 임시적으로 보여줄 뿐, 그 안에 무슨 고유한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규정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알려주고, 또 어떤 측면을 보여주지만, 끝끝내 여러분 자신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아침 풀잎 위의 이슬처럼 미끄러져 굴러 떨어집니다.

이름은 우리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난 이미지(相)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식이 사물의 자체적 성질에 따른 것이기에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 정보이고 지식이라고 해도, 이름에는 또 다른 측면, 즉 제가 저번 강의에서 누누이 말한 대로, 사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가치의식'이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객관적 정보는 없고, 감탄사나 욕처럼, 호오와 편견만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의 두 얼굴, 정보와 감정 사이**

1) 정보로서의 말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 일정한 목적 아래서 소통하고 이용하고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과 이름을 떠나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이것들을 태어나면서 배워 습득했고, 그 관행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말과 이름들을 잘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이들을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신문과 매스컴, 그리고 회사나 공장에서 이들을 습득하기 위해 그리 애쓰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말이, 이름이 자기를 표현하고 감정과 의지를 담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이름과 말의 주관적 측면입니다. <금강경>이 전편을 통해, 이름을 썼다가 지우는 작업을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은 좋아하고, 어떤 말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말은 더 좋아하고, 어떤 말들은 더 끔찍해합니다. 앞의 예를 들면, 저는 에세이스트보다 불교학자나 철학자라는 이름을 더 기뻐하거나,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쓴 분이나 저나 대체로 이 세 이름이 다 '있어 보여서' 좋아할 것이라는 동의가 깔려 있지만, 가치를 부여하고 선호하는 것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제 딴에는 칭찬한다고 했던 말이 영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남은 경멸한다고 제게 던진 말이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름으로 하여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심각한 바 있습니다.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싸움을 중재한 제 친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어제 보니 꼭 토요토미 히데요시같더군!"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당사자는 모욕적으로 들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그의 신발을 품에 안는 지극한 충성으로 신임을 받은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속상해하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중재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산 것이야. 토요토미가 전국시대를 청산하고 천하를 통일한 위업에 빗대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나."




그러니 이름으로 상처주지 마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솔직하게 하십시오. 악의를 숨기고 복선을 깔아 모호하게 빗대 상처 주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불교의 근본 계율, 불망어(不妄語)를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에 상처받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칭찬은 무엇이고, 비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호오에 따른 또 다른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칭찬과 비난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지, 남의 입과 생각을 빌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일까."

그러니 어떤 이름에도 기죽거나 슬퍼하지 말고, 떠 어떤 이름에도 잘난 척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들은 남들이 바깥에서 준 상표 혹은 딱지일 뿐, 여러분의 생명 자체에, 여러분의 불성 자체에 걸맞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나 그 불성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엄(華嚴)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은 들판과 우주에 마음대로 피어있는 화려한, 이름 없는 들꽃들(雜花)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간에, 평가를 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름이란 인간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편협한 잣대에 따라 붙여준 바깥의 물건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30강에서 부대사가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두고, 읊은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이름의 고착과 환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若悟眞空色, 偬然去有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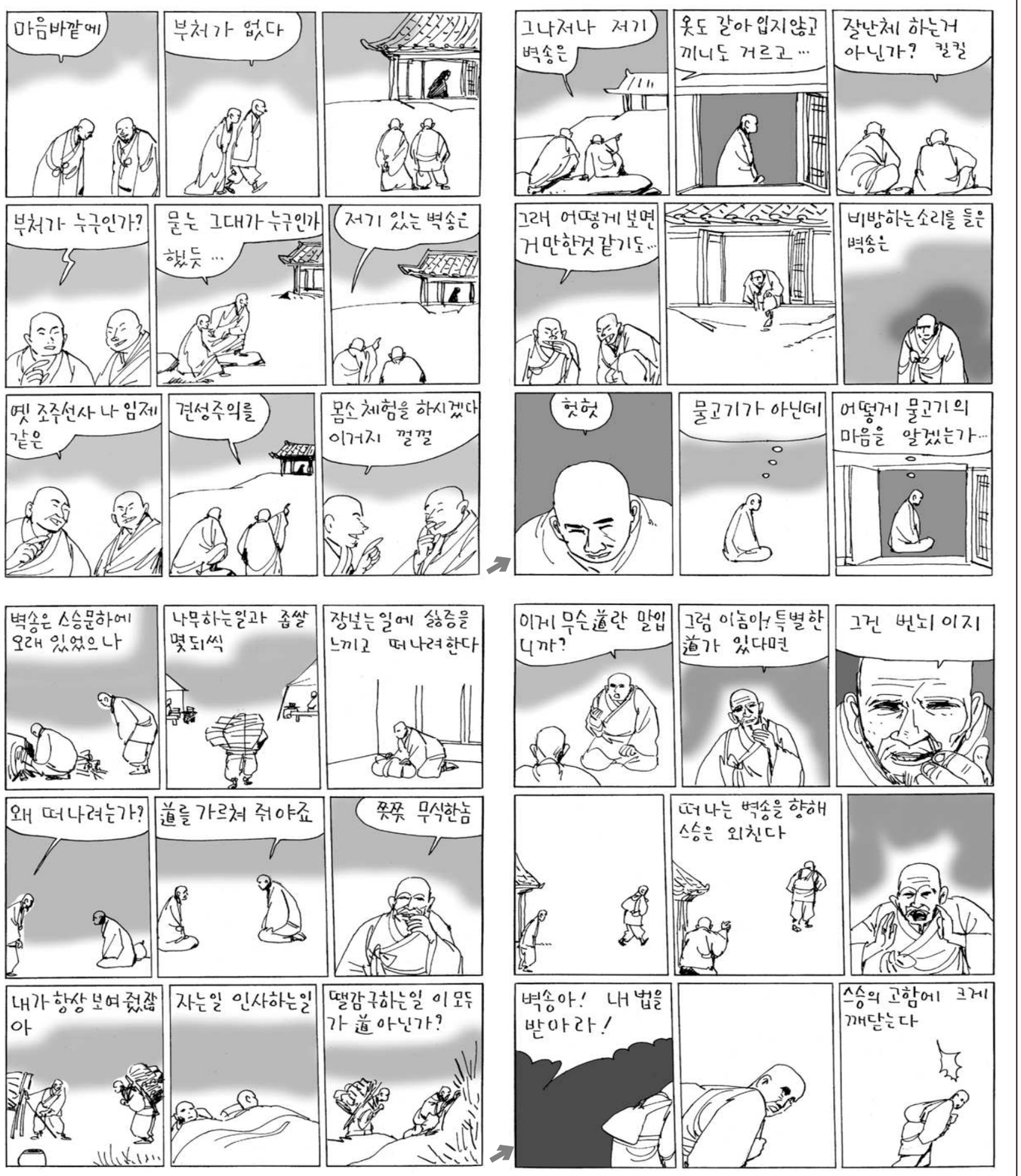
낮고 천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름들일수록, 자신을 옭죄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재산, 지위, 명예 등의 외면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적 진리까지, 그것이 '이름'일 때는 결연히, 버려야만, 다시 말하면 임제의 칼날처럼 "아버지를 베고 붓다와 조사를 죽여야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다이아몬드의 불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말합니다. "수부티야, 내가 말하는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佛法)."

불교는 그 단호한 칼날의 버림 위에서 비로소 꽃피기 시작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장자따라… ⑲ 벽송 선사의 '道'

조태호




**벽송지엄**(1464~1534): 조선 스님. 부안 출신으로 계룡산에서 득도. 벽계 정심등에게 배워 종사가 됨. 저서로 <벽송집>이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 평상심(平常心)이란 무엇입니까?

**문** 역대조사들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했습니다. 그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 평상심입니까? 평상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학자)

**답1**: 평상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가 항복 받은 상태에서 바로 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번뇌의 장애를 받지 않고 직관하는 그곳에서 용심(用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평상심'입니다. 중생들의 번뇌에서 나오는 것은 망상심에서 나타나는 평상심이니 망식 평상심이고, 전자는 순수한 평상심입니다. (금강소석)

**답2**: 일상생활 모든 것이 평상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있는 것 같은 없는 것임을 직관(直觀)하여 분별 집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중생의 번뇌에서 나오는 망상심도 근본은 도인의 평상심과 다르지 않으니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 번뇌와 해탈이 이름만 다를 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그 형태가 같기에 그렇습니다. (개울)

**답3**: 우리가 육근(六眼)으로 보는 세상은 차별된 세상입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는 등 제각기 달리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법안(法眼)으로 보면, 그대로 평등한 세상입니다. 육안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서 차별된 세상이 펼쳐지나 차별된 세상이 그대로 평등하니 여여한 법계를 이룹니다.

차별된 마음이 강하면 번뇌요 불선(不禪)이며, 차별된 마음이 약하면 보리요 참선입니다. 또 차별하는 행이 강하면 부정(不定)이며, 차별하는 행이 약하면 참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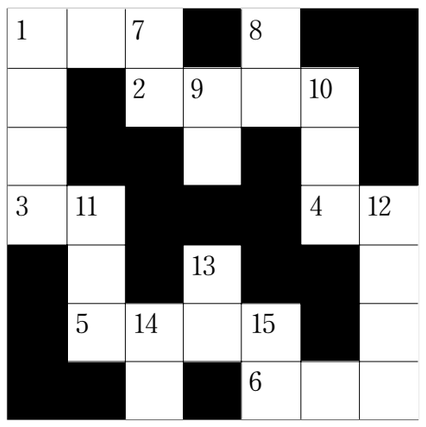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선정은 평상심이며 평시행이지만, 그 또한 분별하여 차별된 눈으로 본다면 명암이 분명한 것입니다. (춘심)

**답4**: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온하면 평상심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희로애락'에 휩쓸리면 중생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 런지요.(초보자2)

**답5**: 평상심은 의심이 없는 중생심이요, 중생심은 의심이 있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과 중생심에 차이는 오직 의심의 있고 없음의 차이와 같습니다.(김명상)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던 시대로 마제석기라고도 함 2.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박히도록 잊을 수 없음을 뜻하는 고사성어 3. 사찰에서 행하는 의식에 쓰이는 도구 4.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5. 극장에서 이른 아침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 6. 자석영이라고도 하며 2월의 탄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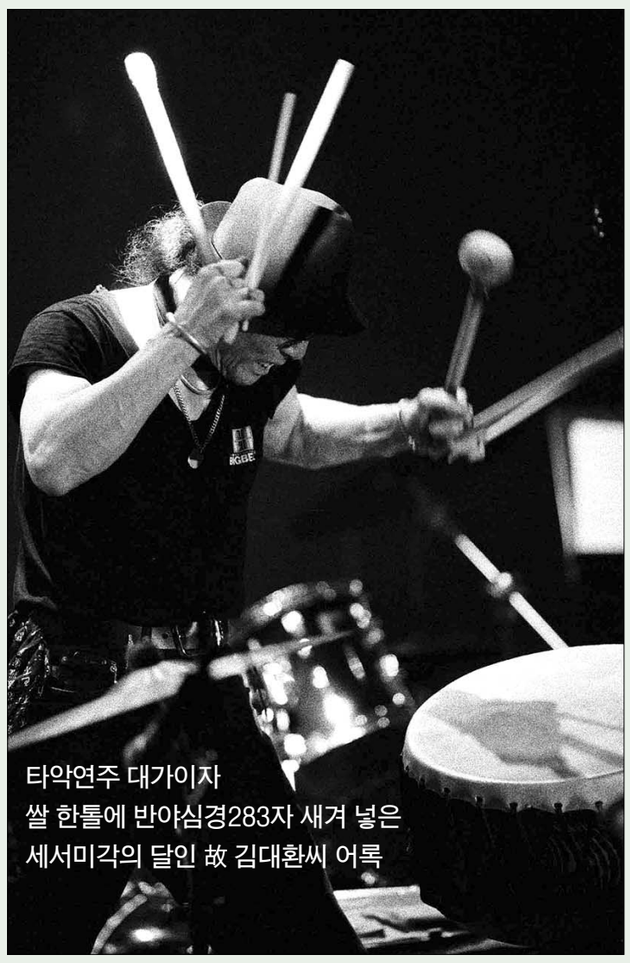
**세로** 1. 염불을 공안으로 수행하는 수행법 7.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이유 없다'하여 배척함 8. 재난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처소를 옮김 9.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가죽 10. 바쁜 가운데의 한가한 때 11. 사람의 말소리를 흉내내는 새 12.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올바른 도를 따른다 13. 주무관청 등에서 예하기관을 직접 통솔하는 것 14. 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선승 15. 어질고 자혜로움을 나타내는 단어.



# 한계란 없다 오직 연습만 있을 뿐



**연습은 장엄한 구도(求道)의 길이었다**
흑우 김대환 지음
현암사 펴냄 | 1만2천원



타악연주 대가이자
쌀 한톨에 반야심경283자 새겨 넣은
세서미각의 달인 故 김대환씨 어록

"북은 손이 아니라 가슴으로 쳐야한다. 여인을 껴안을 때 가슴이 먼저 나가 손으로 껴안 듯 가슴과 어깨의 힘으로 쳐야 깊이 울린다."

지난해 3월 2일 별세한 한국 타악 연주의 대가 흑우(黑雨) 김대환(1933~2004 · 前 중앙대 국악과 타악연희과 교수)의 타계 1주기를 맞아 김대환 기념사업회와 현암사가 고인의 생전 어록을 정리한 기념집을 출간했다. 제목은 <연습은 장엄한 구도의 길이었다>이다.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무대에 이름이 더 알려졌던 김대환은 '한국 그룹사운드 음악의 큰 형'으로 불리는 인물. 2000년 10월 16일엔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공연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규정하며 젊은 시절부터 자나깨나 연습에 매달렸다. "젊은 시절 트럼펫이든 드럼이든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연습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위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럴수록 독종이 되어 갔다.

밤무대를 뛰고 오면 새벽 3시. 하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악기 창고로 들어갔다. 후배에게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부탁한 뒤 날이 새도록 드럼을 두들겼다. 사람들과 말하는 시간도 아까워 혀 끝을 잘라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한다.

김대환은 자신 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 몽둥이를 들고 매섭게 훈련을 시켰다. '타고난 재능은 젊은 시절 반짝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김대환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타악 연주자로서보다 쌀 한 톨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겨넣은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으로서였다. 1968년 동남아순회 공연중 대만고궁박물관을 구경갔다가 16세기에 세각으로 새긴 글과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세서미각을 하게 된 출발이었다. 그에게 세각(微刻)은 단순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의미를 넘어 소리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는 "목판을 파고드는 칼끝의 사각사각하는 소리는 내 귀의 미세한 감각을 살려냈고 소리의 세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했다. 뇌성벽력에서 이슬방울 굴러가는 미음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소리, 무질서한 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것을 북소리로 구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각의 대가가 되기 위해 그가 달려온 삶 또한 연습의 연속이었다. 45배까지 확대 되는 공업용 현미경과 가느다란 철필을 구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한때는 그것도 모자라 모든 밤무대 출연을 중단하고 경기도 군포의 야산으로 들어가 움막속에서 글씨에만 몰두 했다. 특히 쌀 한톨에 글씨를 새기는 1%의 성공률도 안되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은 바로 무슨일이든 끝없는 훈련과 인내 앞에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그의 철통같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년동안의 길고 긴 작업끝에 쌀 한톨에 283자의 <반야심경>을 새겨 넣은 일은 1990년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로 문화계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세각에 몰두한다. 그것은 북을 두드리는 일과 함께 나의 몸과 정신을 맑게 단련시켜 주는 일이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듯 보이지만 소리찾기와 세각은 내게 있어 하나다. 둘 다 두드려서 생명을 깨운다는 점이 같다. 요령이나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닮았다."는 그의 말이 이 책을 덮는 순간 내내 가슴속에 세각으로 각인되는 듯 하다. 아마도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성실한 삶을 마주 대했기 때문이리라.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김대환씨가 남긴 말…말…말…

◆ 북소리는 청각만이 아니라 눈으로 들을 수 있고 피부-손과 발의 진동으로 들으며 연주할 수 있다. 북은 혼을 파고 드는 악기다.

◆ 연습은 일종의 구도다. 공연을 앞두고 반짝하는 소나기 연습은 소용없다. 연습은 일상 생활과 같아야 한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불안해져야 진짜 연습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콘서트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져 쓰러지지만, 나는 콘서트를 휴식처럼 끝낸다. 수행하듯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

◆ 글씨와 소리는 닮았다. 소리가 클 때는 글씨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작을 때는 글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가 몸에 배어 있으면 소리가 글씨를 돕고 글씨가 소리를 돕는다.

◆ 나는 날씨가 달라도 북소리를 한결같이 내는 법을 터득했다. 연습을 통해 북은 내가 되고 나는 북이 된 까닭이다.

전문가 서평



**역사와 이데올로기**
강철구 지음 | 용의 숲 펴냄 | 2만원

서구중심주의는 비단 서양 역사학의 한 흐름이나 경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과 문화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깊숙하고 폭넓게 드리워져 있는 지우기 힘든 그림자다. 때로는 공개적이고 폭력적 모습으로, 때로는 감춰지고 은밀한 모습으로, 혹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의 가면을 쓰고 인문 · 사회과학의 중심부를 지배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E.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나 S.아민의 <유럽중심주의>, A.G.프랭크의 <리오리엔트>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서구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는 비판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학계는 이러한 저술들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어, 유럽중심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정립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출간된 이화여대 사학전공 강철구 교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서양 역사학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국내 서양사 분야에서는 처음 이뤄진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유럽중심주의 조목조목 해부

강철구 교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서구중심주의나 유럽중심주의를 심정적으로 비판하거나 주관적 관점에서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려고한 실험적 성격의 책이 아니라는 데 책의 강점이 있다. 저자는 '서양의 역사학이 유럽인의 우월성과 세계지배력 강화를 바로 역사를 통해 확보하고 역사이론과 철학을 통해 일반화하려고 했다'는 가설을 구체적 사료연구 등의 경험적 종합방법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가설 입증에 이어 서양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 극복의 대안으로까지 나아간다. 이 책이 단순한 역사이론서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저자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학자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비판이 촉발될 수도 있겠고, 또 몇 군데서 보다 세심한 논증과 해명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서구 중심주의와 그 이론 비판에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의 역사왜곡이 서양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학계 일반에 확산시킴은 물론 우리 한국인의 역사인식에도 큰 악영향을 미쳐, 우리 스스로 비유럽권과 한국문화를 폄하하게 되는 주구적 태도를 경고하는 대목에 이르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심각성을 떠올리게 된다.

서양학이 이 땅에 들어 온지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이제 우리의 모든 학문영역, 특히 인문 · 사회과학계에서 '서양'이라는 본질어는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화'된 서양학에서 부정적 독소조항을 가려내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참된 과제다. 우리 것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서양학을 진정한 학문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같은 저술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자극이 돼 후속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윤병태(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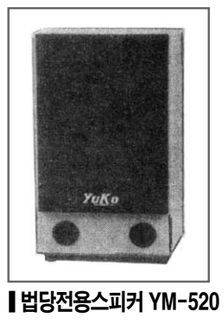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불안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의학전문의 이호섭 박사의
석불 사랑 20년
천년의 미소 - 한국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장출판사
가격 : 9만 5천원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진 우리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近世에 이르러 수많은 石佛은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며 소중한 예술품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고문 이호섭 박사가 20여년 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약도, 조성연대, 특징 등을 정리했다.
구입문의 : 02)2678-3042
이호섭 이비인후과

# 왜 종교를 믿는가



**종교를 넘어선 종교** 최준식 지음 | 사계절 | 1만2천원

"당신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매주 절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이나 신행활동 경력 10~20년을 자랑하는 '독실한' 신자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 신행활동, 수행법 등은 줄줄이 꿰고 있지만, 정작 '종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쳐 온 종교. 과연 그 실체와 의미는 무엇일까? 30여 년간 종교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에 천착해 온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과)가 최근 펴낸 <종교를 넘어선 종교>는 '종교의 본래 가치를 이해하자'는 뜻으로 씌어진 종교 입문서다.

지은이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태도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별 의문이 없거나, 또는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며 종교에 대한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서설 '종교학의 주요 문제들'에서는 종교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 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12가지로 가려낸 다음, 이 중 어느 한 가지 특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종교를 한데 묶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조자연적 ·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 성 · 속의 구분, 숭배 대상과 관련된 의례나 행위, 계율이나 도덕규범 등의 특질을 대체로 갖춘 것을 종교라 정의하고 있다.

본설 '인간과 종교'에서는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와 종교를 통해 다다르고자 했던 경지 그리고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지은이는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고통을 벗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린다.

불교는 해탈에 이름으로써, 기독교는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음으로써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교를 통해 인간이 다다르고자 하는 경지를 제시한다. 불교의 공(空)과 힌두교의 브라만,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같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마다 명상과 수행, 헌신, 숭배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종교의 역사와 본질을 살펴볼 때 인류는 그동안 '자아중심성의 탈피'라는 종교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결론짓는다. 9 · 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같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수행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고,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수행을 통해 영원이나 절대 실재에 대해 연구하고 체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러한 발전 방향에 동참할지 아니면 교리만을 가르치는 기성 종교에 머물 것인지를 묻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30여년 종교 연구한 '한국학' 교수
### 종교의 역사와 본질 파헤쳐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이르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학생들. 추위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새로나온 책



■ **<禪으로 가는 길>**(창간호, 불교문화연구소 펴냄, 1만원)=불교문화연구소(소장 차대완)가 격월간 불교문화 잡지 <禪으로 가는 길> 창간호를 펴냈다. '고승을 추억하며' '불교와 음악' '명상사찰 소개' 등 선수행과 명상 등의 불교문화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지난해 7월 창립한 불교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선문화 유적지 답사, 불교조각작품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02)465-8393



■ **<유심 2005 봄호>**(만해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우리나라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현대시조를 얼마나 배우고 있을까? 신춘 특별좌담에서는 '중 · 고교 교육현장에서 홀대받는 우리 시'를 주제로 국정 국어교과서의 현대시조 축소 수록 문제를 다루고 있다. 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인 문태준(시) 이지엽(시조) 유성호(평론)씨의 작품도 실려 있다.



■ **<한문의 생활력>**(가토 도루 지음, 유준칠 옮김, 수희재, 1만2천원)=가토 도루(일본 히로시마대 종합과학부) 교수는 한문을 사고를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해 볼 것을 권한다. 지은이가 제시하는 '한문력'이란 한문을 읽어가며 그 속에 담긴 옛 선인들의 사상을 습득함으로써 얻는 힘을 말한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 · 편자 | 출판사 |
|---|---|---|---|
| 1 | 용서 | 달라이라마 | 오래된미래 |
| 2 | 길을 걷는자 너는 누구냐 | 장휘옥 외 | 더북컴퍼니 |
| 3 | 禪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 여시아문 |
| 4 | 입보리행론 | 샨티데바 | 하얀연꽃 |
| 5 | 방외지사 | 조용헌 | 정신세계원출판부 |
| 6 | 인연법과 마음공부 | 혜국 스님 | 효림 |
| 7 | 조용헌의 사찰기행 | 조용헌 | 이가서 |
| 8 | 이장의 | 은정희 | 소명출판사 |
| 9 | 보살예수 | 길희성 | 현암사 |
| 10 |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 서광 스님 | 불광 |

도서 안내 : (02)737-0695

## 보성 스님 법어집, 참된 나를 찾아서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 스님 지음
효림 | 6천원

조계종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법어를 정리한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는 불자들이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다. 흔히 '큰스님 법어집'이라고 하면 한자 투성이에 알 듯 말 듯한 선문답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에서 보성 스님은 초심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담은 '불자의 바른 삶을 위한 법문'에서는 부처님이란 누구이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참된 나'를 찾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도하는 불자를 위한 법문'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기도와 참회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공부하는 불자를 위한 법문'에는 불자들을 위한 자세한 공부지침이 담겨 있다. '경전을 독송할 때는 그 뜻 새기며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읽어라' '법문을 들을 때는 단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마음에 새기겠다는 자세로 임하라' '법문을 들을 후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해 법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등 세세한 마음공부법을 일러준다.

## 서양인 사로잡은 선 이야기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
폴 렙스 · 뇨겐 센자키 지음
김문호 옮김
화남 | 9천원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법문집이나 선어록 등도 함께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미 30여 년 전,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를 묶은 책이 출간되자 미국과 유럽에서 300만부 이상 팔려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바로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다.

미국에서 태어나 인도, 노르웨이, 일본 등을 떠올며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폴 렙스와 일본 출신의 수행자이자 미국 불교 지도자 로버트 아이켄로쉬, 에이도 로쉬, 시인 개리 스나이더 등을 제자로 길러낸 뇨겐 센자키가 펴낸 이 책에는 불자들이라면 한 번 쯤 들어봤을 선사들의 일화나 어록이 정리돼 있다. 13세기 일본 선승 무주 선사를 비롯해 게이추 선사, 난닌 선사, 센노리큐 선사 등의 일화를 볼 수 있다.

책 말미에는 중국 곽암 선사의 글을 일본 목판화가 도미키치로 도쿠리키씨의 판화와 함께 엮어 소개한 '소를 찾아서(尋牛)'를 담았다.

**여수령 기자**

## 문답으로 배우는 위빠사나 수행법

문: 좌선 중에 시계를 앞에 놓고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답: 시계를 쳐다보지 마라. 30분간 앉이 사라지기를 서원을 세우고 난 뒤 30분이 되고 안 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서원을 세우면 그렇게 된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행을 하도록 해라.

위빠사나 수행법에 있어 스승과의 면담은 수행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나침반이다.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의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도 된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마하시 선원에서 외국인을 지도하는 아신 자띨라 사야도가 한국인 수행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한국위빠사나선원 묘원 원장이 글로 옮긴 것이다.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의 결과물과 의문점을 스승 앞에 드러내놓고, 스승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명상이 지겨워진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등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의문들에 대한 아신 자띨라 사야도의 명쾌한 해답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꼭 '모범답안'은 아니다. 수행의 전개 상황은 생략된 채 수행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수행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고, 통역에 따른 오역(誤譯)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묘원 원장은 "수행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처방만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며 "하지만 수행의 세계를 많은 이들과 나눈다는 뜻에서 문답 내용을 책으로 엮게 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각 문답마다 '주해'를 붙여 문답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후 상황과 대답에 담긴 의미를 짚어주고 있다.

부록으로 마하시 선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일어남' '꺼짐' 등의 명칭을 왜 붙여야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스승과 면담을 할 때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준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아신 자띨라 사야도 지음
묘원 스님 편주
행복한숲
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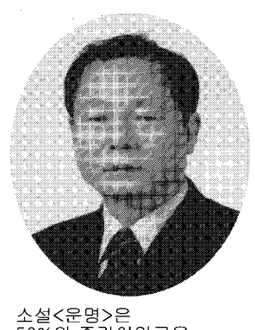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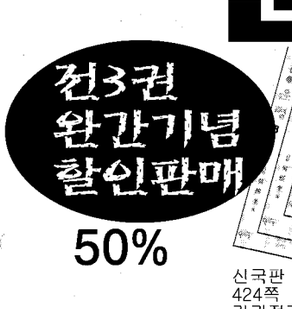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불교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복제형 건축보다는 ‘지금 여기’의 가치 담아야”

## 김개천, 김홍일, 이일훈씨에게 듣는 ‘현대식 사찰모델’

전통건축에 담긴 사상을 읽어내는 책이 최근 잇따라 출간됐다. 전통사찰의 건축적 구조를 불교사상의 이해를 빌어 풀어내는 식의 책들이다.
사찰건축으로 대표되는 고건축을 모르고는 현대건축을 논할 수가 없기에, 실제로 건축가들은 사찰건축과 불교철학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찰건축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구현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진하다. 도심사찰이 속속 생겨나면서 도심형 절충식 사찰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나, 콘크리트 건물 위에 기와지붕이 어정쩡하게 얹혀있는 이들 모델은 건축가들 어법으로 ‘어리숙한 전통에 기대는’ 조악한 형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척박한 토양을 딛고서라도 ‘지금-여기’의 미학과 불교철학을 담아내려는 건축가들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건축가 김개천(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김홍일(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일훈(후리건축 대표) 씨가 보여준 현대식 사찰모델을 살펴보고 이 시대 사찰건축상 정립을 위해 요청되는 과제와 전망 등을 들어본다.


김개천(국민대 조형대학 교수)


김홍일(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일훈(후리건축 대표)


“단순함이 가장 풍성하다”(김개천)

외양을 석탑 형태에서 따온 괴산 법천사 대웅전. 전통사찰 형식을 창조적으로 변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체간 관계에 주목한 연기(緣起)의 건축(김홍일)

처마와 마루 사이에 형성된 공간 사이로 이웃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에 주목해 설계된 당진 무문암.


폐쇄적인 절 내부 자연과 연결(이일훈)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는 공간 아래 활공루라는 빈공간을 통하도록 해 폐쇄적인 절의 내부를 외부로 끌어냈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 전통사찰 양식에 창조적 변화를 시도한다

기와를 얹고 목재를 쓴 전통사찰의 건축 양식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찰 모델의 전형을 제시해왔다. 그래서 현대식 사찰건축을 시도하는 건축가들은 형식과 재료 면에서 전통의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충북 괴산군 두타산 자락에 자리잡은 법천사(설계 김개천)의 경우, 대웅전을 아름드리 나무기둥 대신 콘크리트와 까만 벽돌로 지어 올렸다. 3층 높이의 단층 대웅전은 외양을 석탑의 형태에서 따와, 단청이나 기와 없이도 절집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실제 대웅전 뒤로 법당 건축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전통적인 가람 배치와 관련해 탑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대웅전 내부에도 사고의 변혁은 이어져, 후불탱화 역시 불상 뒤편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타산 능선이 대신하도록 했다. 자연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사상의 반영이다.

김홍일 교수가 설계한 충남 당진군 무문암과 충북 논산시 관동사는 전통양식의 배치를 따라 사찰 분위기를 살리는 가운데 현대적인 형태를 모색한 건축물이다. 바깥으로 노출된 기둥이 두 개의 수평면을 떠받치는 형태로 설계된 무문암 전각들은 처마와 툇마루 형태를 설정함으로써 전통건축의 양식을 끌어들였다. 대웅전은 유리에 필름을 붙여 한지 느낌이 나도록 했다.

김홍일 교수는 “처마와 마루 사이에 형성된 공간 사이로 이웃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와 건축물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개체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기(緣起)의 건축이다.

최근 설계를 끝내고 올 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양평 금회법당(설계 김개천) 역시 전통적인 ㄷ자 가람 배치를 살리면서 재료에 변형을 준 현대적인 사찰 모델 사례로 꼽힌다.

### 파격적 시도, 그 안에서 무형의 법문이 …

전통 사찰을 넘어서 새로운 사찰 양식을 선보이는 작업도 다수 진행됐다. 외부 형식에는 파격을 시도했고, 그 내부에는 불교사상을 더욱 풍성하게 반영했다.

이일훈씨는 ‘지금-여기’의 건축자재로 보편화된 콘크리트를 이용해 현대사찰을 설계했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은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는 공간 아래 활공루라는 빈 공간을 통하도록 설계돼, 다분히 폐쇄적이었던 절의 내부 공간을 외부로 끌어냈다. 옥상 끝 계단꼭대기에는 풍경의 울림으로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마련, 도솔천을 형상화했다.

김개천 교수가 설계한 만해마을 만해사 · 담양 정토사 역시 파격의 미학을 담고 있다. 두 건물 모두 네모반듯한 시멘트 건물이 전부지만, 그 공간에 막상 들어서면 무형의 법문이 쏟아진다.

정토사의 경우 색(色)을 통해 공(空)까지 드러낸 일획의 건축이라 평가받는다. 정토사 법당은 문이 곧 벽이다. 문을 모두 열면 건축공간은 사라지고 자연만이 남게 된다.

반대로 문을 닫으면 완전한 건축공간만 존재한다. 문 위에 비치는 산그림자는 곧 ‘벽’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곧 자연이 되고 자연이 건축이 되는 합일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허공에 두 획을 그은 듯한 단순한 형태의 만해사도 마찬가지. 층계를 올라 안으로 들어서면 정작 텅빈 공간만 남을 뿐이지만 산이 저만치 눈에 들어온다. 만해광장의 무대에도 두 개의 기둥이 전부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세트처럼 앉아있다.

김개천 교수는 “가장 단순한 형태야말로 가장 풍성한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 불교 · 건축미학 공존하는 새모델 고민해야

이처럼 몇 명의 건축가들이 이 시대의 사찰 양식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한 작업은 철저히 개인의 원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과감한 설계를 시도한 몇몇 건축물을 제외하면, 이 시대 사찰양식의 전형이라 부를 만한 모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대 건축공학과 도창환 교수는 “조선, 고려, 조선 시대에는 나름의 건축양식을 구현하고 있지만, 최근 100년 간 들어선 사찰 건축물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렇다할 전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특정한 전형을 찾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포스트 모던시대에 절대적인 원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관심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나무 지붕으로 이어지는 조악한 표현 양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늘고 있는 도심형 사찰 양식을 포함해 21세기 사찰 모델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가 이일훈씨는 “이도저도 아닌 전통복제형 건축은 역사의 빈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불교철학과 건축미학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새 시대 사찰 모델을 고민하는 것은 불교계와 건축계가 짊어져야 할 문화적 숙제”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달라이라마 일본법문 및 사찰순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일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2일간 법문을 하십니다.
이번 일본 법문은 인도에서만 친견하던 존자님을 일본에서 뵙고 법문을 듣고, 또한 벚꽃이 만발한 교토,오사카 등 사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좌석 관계로 3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출발일 : 4월 15일 ~ 19일(4박 5일)
- 여행경비 : 110만원
- 장 소 : 일본 가나자와 석천현립음악당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 | | | |
|---|---|---|---|---|
| 제1일 4/15(금) | 인 천 고마츠 가나자와 | JL 994 | 12:25 14:05 | 인천국제공항 출발 고마츠공항 도착,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일본 3대명원 겐로쿠엔 관광 후 호텔 투숙 및 휴식(대욕장) |
| 제2일 4/16(토) | 가나자와 | 전용버스 | | 오전 : 묘립사, 일본전통다원 히가시차야 관광 오후 :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온천욕) |
| 제3일 4/17(일) | 가나자와 야마나카 | 전용버스 | | 전일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야마나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
| 제4일 4/18(월) | 야마나카 교 토 | 전용버스 | | 야마나카 출발 벚꽃이 만발한 교토 도착 후 금각사, 청수사, 동본원사등 순례 후 호텔 투숙 |
| 제5일 4/19(화) | 교 토 오사카 인 천 | JL 963 | 15:10 16:55 | 오사카로 이동, 사천왕사 순례 및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도톰보리 등 시내 관광 후 칸사이 공항으로 이동 오사카 출발 인천공항 도착 |

#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①

3월 5일 입제

주제 - 설선대법회의 의의

# 자기 마음자리 바로보면 부처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선(禪)이란 뭐냐? 선의 내용, 선의 목적,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선이라고 해도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 나라마다 수행방법이 틀리고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강물이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오든 궁극의 목적지가 바다이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동으로 들어오면 맞고 서로 들어오면 틀리다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을 이름붙여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못 깨달았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깨달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고통받고 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벌레 짐승까지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이나 미물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느꼈고 생사가 없는 영원불멸한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것을 찾아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성취했습니다. 이 마음이야 말로 영원히 영원히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랍니다.

그 마음자리는 깨치신 부처님만이 성취해서 있고 우리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차를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일할 때 일하는 그 속에 조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자기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학문과 지식과 온갖 기술, 알음알이들이 구름처럼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가리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다만 잊어버리고 있는 원인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엔 옳다고 집착하는 것에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지식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망상과 집착 분별을 놓아버린다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이 깨닫습니다. 깨달은 그 마음자리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 모습에만 사로잡히다보니, 실제 자기 자신은 생기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물건이 생기니까 나도 같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이 없어지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망상집착이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스스로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기서만 해방된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지혜가 열립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든 무슨 죄가 많고 무슨 병이 들었든 그거 고칠 필요 없이 있는 당장 그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서 이것을 바로 보라,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지인심(直指人心)하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요새처럼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순박했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랬던 것이 차츰차츰 시대가 흐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시심마' '이것이 뭐냐'하게 된 겁니다. 애초엔 간화선이다 묵조선이다 위빠사나다 하는 복잡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결코 복잡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 글자로 아는 것과 깨달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릇하고 구름이 사라지고 빛을 받은 그릇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햇빛을 받으면 환하고 영롱하고 그렇죠? 깨달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망상분별을 제거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지식으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고민이 여전히 많다면 부처님같이 밝은 마음에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겠습니까? 구름처럼 꽉 끼어 있는 사량 분별을 때려잡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두공안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화두공안은 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셨을 때 당시 외도의 지도를 받고서 고생 고생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보다도 높은 경지에 올라 스승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과연 이 경지가 불생불멸의 자리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꼭 수행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기를 도대체 내가 뭐꼬 하고 돌아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목석이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한 가지에 매달려서 염불도 좋고 간화선도 좋고 열심히 하다보니 자기 모습이 보여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동물과 다르지요.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한테 먹이를 갖다 주면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 개 중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툼을 천년동안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고 원력을 세우고 하다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다른 욕망이 없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뭣꼬'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때 선지식들이 일러주는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하며 바깥에서 찾습니다. 동양 사람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동양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진리, 도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된 것입니다.

<법화경>에 거지 아이가 자기 집은 부자였는데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가 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럼 본래 부잣집 아들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부잣집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원래 부자집 아들이었다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집 아이가 수행을 한다고 그 집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 밖에 있다가 차차 수행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거지가 자기가 부자집 아들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염불이고 기도를 해봐야 결코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면벽을 하고 있으면 면벽을 하는 내가 도대체 뭔지, 염불을 하면 염불을 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천년동안 애를 써서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나 말 한마디를 듣고 깨닫는 거나 깨닫는 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화두공안입니다. 그 화두공안도 열심히 하다보면 깨달음이라는 것, 도라는 것은 닦는데 있지 않다. 왜?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 애를 써서 물속에 들어왔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물속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몸부림쳤을 때, '아! 내가 본시 물에 있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본각(本覺)인줄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보면 닦을 것이 없지만, 닦을게 없다고 하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기 돌아볼 줄 알아 난 도대체 뭔가 왜 이러고 있나 살펴보라

**지유(知有) 스님은**

- 1931년 일본 동경 生
-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
-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 수지
- 봉암사, 원효암, 관음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 성만
- 문경 봉암사, 부산 범어사 주지 역임
- 현재 선찰대본산 범어사 조실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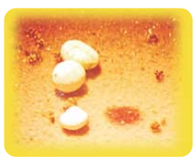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횡성의 국사봉 제상바위 중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행의 길, 믿음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다는 영원한 생명 아미타부처님의 기도도량이다.

원국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곳 곳에 늘어서 있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는 공덕을 갖춘 약수로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청수로 영험하여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아미타 염불기도 도량입니다.



● 2005년 2월 21일 대구 최명옥 보살의 조상천도 49일 회향기도 청수의 얼음 물오름 사진 입니다.

불자님은 부처님의 광명과 환희와 생명으로 충만한 원국사에서 일체업장이 깨끗이 소멸되고 심중소구 소원 원만성취 하옵소서.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옵나이다.

마음의 귀의처 국사봉 원 국 사
회주 법용스님 주지 진묘스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71번지
전화 033)343-1767~8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1

스님께 묻습니다

질의 법사 : 구주 스님(원효암 수좌)

재가 질의자 : 곽만연(동아대 교수)

# 물속에 앉아 물을 찾고 있었네



**구주 스님**

· 동국대 선학과 졸업
· 1990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
· 91년 사미계, 95년 구족계 수지
· 12안거 성만
· 현재 범어사 원효암에서 정진중

**구주 스님** : 간화선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화두공안을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대의 조사선에서는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청정한 자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 없이 단지 쉬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조나 백장, 황벽, 임제 등 많은 당대의 선승들은 한결같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은 부정하고 단지 쉬라고만 합니다. 이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간화선 입장과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유 스님**: 당대의 임제 선사나 황벽 선사는 닦을 필요가 없다,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자마자 십만 팔천리라 틀려먹었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모르고 내가 물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물이 어디 있을꼬, 어디 있을꼬 하고 이미 자기 자리를 놔두고 떠났기 때문에 틀렸다 이말입니다.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십년 동안 손가락만 오매일여로 보고 있었다고 하면 달을 볼 수 있습니까?

화두공안도 '이뭣고' 하든지 '무' 하든지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보면, 진짜 화두는 화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문촬요> 강(講)할 때, 화두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고 묵조선(默照禪)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조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묵조선은 공부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알고 묵조선이라 그러는지… 허허.

나도 화두공안 한 사람입니다. 화두밖에 몰랐고. <선문촬요>에 보면 화두공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화두공안을 손가락에 비유하면 손가락을 제쳐놓고 달을 바로 가리켜 줬다 이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보는 사람이다 이말입니다. 실지 화두공안의 참뜻은 닦을 자리 없는 자리에 갔을 때에 깨닫는다 말입니다. 선사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닦을 것이 없느니라 까지 갑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닦을 것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닦을 것이 없다는 그 말에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유 스님의 답변이 길어지자 지환 스님이 구주 스님에게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간화선의 입장이라고 질문한 것이냐"고 물은 뒤 "질문자가 간화선에 대해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주 스님은 "간화선은 깨달음을 전제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지환 스님은 "쉬라는 조사선과 비교할 때 화두를 통해 쉬라는 것이 간화선의 입장"이라며 구주 스님의 질문이 자칫 간화선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을 지적하며 한동안 설왕설래했다.

**지유 스님**: 초심자가 들어왔을 때는 솔직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병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3년쯤 선방에 가든지 자기나름대로 공부해보라 합니다. 한바탕 주먹을 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대분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른다는 대의심, 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대신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앉아서 물을 찾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는 닦을 것이 없다, 닦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그 모습이 실지 닦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환 스님**: 깨달은 사람이라야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선 어떻게 됩니까?

**지유 스님**: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죽을 정도로 하라는 말입니다. 병이 나든지 공부를 성취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곽만연 교수** : 지금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뿐 아니라 재가 신자들도 수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실제 수행하는 재가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은 여러 수행방법 가운데 어떤 수행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유 스님**: 신도들한테 질문을 자주 받는 것이,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세속에 살다보니 생활을 해야 해서 스님들처럼 전심전력하질 못합니다. 수행하다 보니 살림이 소홀해져서 가족에게 미안하고 가사에 집중하다보면 공부에 소홀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두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공부가 안돼 불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마음닦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자신이 무엇인고 이 말 아니겠어요?

보통 공부라고 하면 자다 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야 공부한다고 하고, 화두를 드는 사람은 차 마실 때 '이뭣고' 하면서 차를 마셔야 하는데 화두를 잊어버렸다면 깜빡 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깨친 사람의 수행 모습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수행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애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행주좌와 어묵동정 전체가 공부 아닌 게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똑같이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는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못 믿겠거든 그것가지고 내가 의심을 해서 확인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게 화두공안입니다.

**곽만연 교수**: 범어사는 두 가지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께서 화엄 십찰 중의 하나로 창건하신 사찰로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은 신라 통일의 정신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은 불교가 쇠퇴한 조선 말기에 경허 스님께서 범어사에 오셔서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선불교의 성지입니다. 이렇게 범어사는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함께 스며있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선과 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유 스님**: 우리는 경(經)이라고 하니까 화엄경, 금강경 등 책자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법문이 있었어요. '나에게 한권의 책이 있다, 즉 경이 있다.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펼쳐 봐도 글자 한자도 없지만 항상 빛을 놓고 있다.' 그것이 진짜 경이거든.

'여시아문하사' 하고 읽는 이것이 경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엄경 따로 있고 선 따로 있고 염불 따로 있고 주력 따로 있고 그렇겠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 내는 이게 염불이 아닙니다. 염불은 글자 그대로 생각할 염(念), 부처 불(佛),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가 무엇인고? 부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생각하는 것, 마음이 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염불이요, 부처님께 공양올린 것이지, 공양 따로 있고 염불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근본 뜻은 똑같다 이 소립니다.

<관음경>에도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아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법문이요 진짜 청법입니다. 그러니 화엄사상 따로 있고 선사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곽만연 교수**

· 1950년 서울 生
· 72년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75년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동아대 인문학부 교수, 동양철학회 등 이사
· '불교의 생명윤리 사상과 장기이식' 등 논문 다수

## 깨닫고 보면 더 닦을 것 없어… 禪-敎는 깨달음의 내용이니 결국 하나



3월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설선대법회에는 1백여 스님들과 3천여 재가자들이 모여 지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辛,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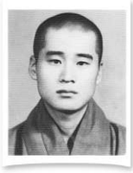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4. 4
월 · 화반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경로자 우대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좌천 지하철역 1번 출구 옆(다전리치텔 1004호)
문의 : 051)644-8571. 018-312-7110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양다원

# 봄날, 장터가서 '삶의 힘' 사자

## 전국서 열리는 민속 5일장터



전통 5일장으로 유명한 경남 하동 화개장터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사람들을 기다린다. 사진제공=하동군청

장터 짚신에 감발 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지고/ 이장 저장 뛰어가니/ 장돌뱅이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이 고래고래 지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가며 / 돌도부장사하고 해질 무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날 장에서 다시보세

보부상의 장 편렵중 노래(김대길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중에서)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 흐른다. 3월 9일 열린 성남 모란장에서 점심을 먹는 싸전(쌀가게) 상인들과 흥정하는 손님들의 모습. 사진=김강진 기자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중순, 바깥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활기가 가득한 각 지역 민속 5일 장터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자. 장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장의 모습도 물건을 사고파는 이의 면면도 항상 새롭다.

서울 인근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장의 하나로 꼽히는 곳은 성남의 모란장이다. 끝자리가 4일과 9일인 날이면 3000여 평 주차장 공간은 온갖 물건으로 뒤덮인다. 게다가 사고파는 흥정 속에서 서로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대화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장'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장터는 바로 2 · 7장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이다.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의 지역 분계선 사이 섬진강 줄기를 끼고 있어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밖에 없는 곳에 자리한 화개장터는 김동리 소설 <역마>의 배경이기도 하다. 매년 4월 초, 벚꽃잔치까지 벌어진다고 하니 풍물 구경에 경치 구경을 더할 수 있다.

또 하나 소설 속 장으로 유명한 강원도 평창 봉평장. 메밀꽃을 보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봉평장 인근의 이효석 생가와 <메밀꽃 필 무렵> 주인공들을 복사해 놓은 물레방아간 등을 둘러보는 재미까지 챙긴다면 소설 속 기분을 마음껏 낼 수 있다.

역사책에서 아우내 장터의 3 · 1만세운동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충남 천안 병천장에 가볼 것을 권한다. 근처 독립기념관을 둘러본 뒤, 장터를 한 바퀴 돌아보면 역사가 곧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각 지역 장에는 숱한 볼거리와 이야기들이 있다. 오랜 시간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장돌뱅이의 노래처럼 신나는 기운과 함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다. 그냥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닌, 보고 느끼는 삶의 공간. 그곳이 민속 장터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전국 유명 민속장터**

| 지역 | 장터이름 | 장 서는 날 | 장터는 어디 | 특산물 및 유명한 점 |
|---|---|---|---|---|
| 강원도 | 북평장 | 3, 8(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 이하 숫자로만 표기) | 동해시 북평동 | 각종 수산물, 동해 영지버섯 |
| | 옥계장 | 4, 9 | 옥계 철도역 옥계면사무소 인근 | 당근, 파, 마늘 |
| | 봉평장 | 2, 7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 메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 고랭지채소, 각종 산나물, 약초, 잡곡 |
| 경기도 | 모란장 | 4, 9 |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공용주차장 자리 | 흑염소, 곡물, 칼국수 등 |
| | 안성장 | 2, 7 |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재래시장 | 안성배, 포도, 쌀 등 |
| | 평택장 | 5, 10 | 평택시 통북동 | 곡물류, 채소류, 잡화류 등 |
| 경상남도 | 화개장 | 2, 7 | 화개면 탑리 | 잡곡, 만물상 등, 4월 초 벚꽃놀이 있음 구례군은 찔레꽃 축제 준비 |
| | 김해장 | 2, 7 | 김해시 회현동 | 배추, 무, 수산물 |
| | 칠곡장 | 5, 10 | 칠곡면 신포리 | 버섯, 감, 조청 |
| 충청남도 | 병천장 | 1, 6 |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 순대, 우시장, 오이, 담배 |
| | 광천장 | 4, 9 | 홍성군 광천역 앞 | 김, 도자기, 젓갈류(특히 새우젓) |
| | 금산장 | 2, 7 | 금산군 금산읍 버스터미널 인근 | 인삼, 마늘, 고추 |
| 충청북도 | 덕산장 | 4, 9 | 진천군 진천읍 면사무소 인근 | 고추, 참깨, 쌀, 잡화 등 |
| | 단양장 | 1, 6 | 단양군 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 마늘, 고추 등 |
| | 옥천장 | 5, 10 | 옥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 곡물, 영지버섯, 포도, 딸기, 느타리버섯, 축산물 등 |
| 경상북도 | 불국사장 | 4, 9 | 경주시 구정동 불국사 | 채소류, 양송이, 동해 해산물 등 |
| | 해평장 | 4, 9 | 구미시 해평면 낙성2리 | 잡곡, 채소, 의류 등 |
| | 대덕장 | 3, 8 | 김천시 대덕면 광기2리 | 곡물류, 채소, 생선 등 |
| 전라남도 | 남평장 | 1, 6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 쌀, 어물, 식료품, 채소, 의류 등 |
| | 서정장 | 4, 9 | 여수시 서교동 | 각종 농수산물. 현재 상설 시장도 오후에 형성돼 있음 |
| | 강진장 | 4, 9 | 강진군 강진읍내 형성 | 해산물, 참외, 수박, 한우, 옹기 등 |
| 전라북도 | 김제장 | 2, 7 | 김제시 요촌동 김제역 | 잡화류, 각종 농산물 등 |
| | 무주장 | 1, 6 | 무주군 무주읍 버스터미널 인근 | 고추, 마늘, 약초, 인삼, 마늘 등 |
| | 순창장 | 1, 6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 밤, 유과, 삼베, 산나물, 철물, 고추 등 |
| 제주도 | 제주장 | 2, 7 | 제주 공항 인근 | 어류, 잡화, 의류 등 |

## 게시판



**아름다운 가게 나눔장터**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박성준.손숙.윤팔병)'는 3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한강 뚝섬지구 청담대교 밑 광장에서 '나눔장터'를 연다(사진). (02)732-9998

**치과 무료진료** 경기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치료 신청을 받고 있다. (031)431-9114

**종이접기 강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조계사 제2교육관 원심회 법당에서 실시하는 정기강좌를 통해 종이접기와 찬불가, 신나는 놀이 등의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02)738-5203

**숲길 가꾸기 사업 공모** '(사)생명의 숲'이 정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숲길가꾸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forest.or.kr)에서 다운받아야하며 우편접수만 가능하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1 수산빌딩 5층 504호). 기간은 4월 15일까지. (02)3675-6652

**미숙아 출산가정에 희망을**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은 교보생명주식회사(대표 신창재)와 함께 미숙아 지원사업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를 통해 미숙아 출산 가정에 희망을 전달할 홍보가족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3월 26일까지 홈페이지(www.babydasom.org)에 가족 사연과 사진 한 부를 송부해 신청하면 된다. (02)3675-1231

### 20면 상식 퍼즐 정답

| | | | | | | |
|---|---|---|---|---|---|---|
| 간 | 석 | 기 | | 피 | | |
| 화 | | 각 | 골 | 난 | 망 | |
| 염 | | | 무 | | 중 | |
| 불 | 구 | | | | 한 | 파 |
| | 관 | | 직 | | | 사 |
| | 조 | 조 | 할 | 인 | | 현 |
| | | 사 | | 자 | 수 | 정 |

## 공연

# 통영국제음악제 17일 개막

### 윤이상 타계 10주기 … 12개국 연주자 200명 참여



故 윤이상 선생을 기리는 '2005 통영국제음악회' 포스터.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불자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는 제 4회 통영국제음악제가 17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세계 12개국에서 200여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2일까지 이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무대는 윤이상 이후 가장 주목받는 한국 작곡가인 진은숙 선생의 연주무대. 이번 음악제 상주작곡가로 초청받은 그는 관현악곡 '칼라'(17일 오후 7시 30분)을 비롯해 피아노 연습곡 4 · 5번(18일 오후 9시), 현악4중주곡 '파라메타 스트링'(19일 오후 4시)을 무대에 올린다.

플루티스트 카밀라 호이텐가(17일 오후 7시), 아르디티 현악4중주단(18일 오후 7시), 피아니스트 슈테픈 슐라이어마허(21일 오후 9시), 익투스 앙상블(22일 오후 7시) 등 괄목할만한 현대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고음악'의 거장 조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옹21(20일 오후 7시)이 하루에 한 곡 이상 윤이상 선생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국내 연주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모테트하창단, 가야금앙상블 사계,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등이 함께한다. (02)3474-8315~7

강신재 기자

## 전시

# 현대 감수성과 만난 민화

### 사비나 미술관 이희중 개인전



이희중 作 '수복도(2003)' 부분.

'민화'라고 하면 옛날이야기와 연결된 '삽화' 정도로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한국 민화 기법을 재해석해 온 이희중(용인대 교수) 작가의 개인전을 통해 현대화된 감수성의 민화를 감상해보자. 서울 인사동 사비나 미술관 전관에서 펼쳐지는 이희중 작가의 그림 54점으로부터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화를 전공한 이희중 교수는 전통 문양과 문자도, 수복도 재해석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 전시 대표작인 '수복도'에서도 화려한 색깔들을 사용해 전통적으로 문자도에 자주 사용한 글자인 '수(壽)'와 '복(福)'을 환상적으로 표현해냈다. 또다른 대표작 '포도와 동자'와 '우주' 연작은 평면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시각기호들을 배치해 전통회화의 문양들을 독특한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화적 요소와, 먹의 질감, 명상적 통찰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4월 17일까지 계속된다. (02)736-4371

김강진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반야심경' 목걸이



마하몰이 긴 사각형 틀에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새겨진 은 목걸이를 새롭게 선보인다. 마하몰 인기상품인 반야심경 목걸이를 불자들의 기호에 맞춰 세련된 디자인의 큐빅 목걸이로 탄생시킨 '사각 반야심경 목걸이'. 이전보다 장신구의 아름다움을 보강해 불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불교 기본 경전인 '반야심경'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팬던트 크기 13㎜×50㎜, 체인포함 가격 6만원. (02)732-1520

## 극장가



**잠복근무** / 코미디 / 111분
**개봉예정일:** 3월 17일
**감독:** 박광춘
**출연:** 김선아, 남상미 등
**등급:** 15세 이상
늘 승희곁을 맴도는 노영이 수상해지기 시작하고, 그 무렵 재인과 철천지 원수인 형사마저 학교에 보충투입 된다. 사건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직감하는 재인. 우여곡절 끝에 승희와 친해져, 부두목의 소재를 확보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녀는 이번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호스티지** / 스릴러 / 112분
**개봉예정일:** 3월 18일
**감독:** 플로렝 에밀리오 시리
**출연:** 브루스 윌리스, 케빈 폴락 등
**등급:** 15세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저택 안 어딘가에 숨겨진 데이터 CD를 찾아 올 것을 요구하며 탤리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전화를 걸어오는 '토미' 뿐. 탤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저택 안으로 들어서지만, 도대체 이 저택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사이코 마스에게 잡혀 있는 아이들과 탤리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희생** / 드라마 / 145분
**개봉예정일:** 3월 18일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출연:** 얼란드 요셉슨, 앨런 에드윌 등
**등급:** 18세 이상
우체부 오토는 알렉산더에게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고 이를 감행토록 한다. 다음날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알렉산더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지 꿈속에서 겪은 일들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세상은 예전처럼 고요하기만 한데 과연 그의 기도는 이루어진 걸까?

##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4일 17:10 무명을 밝히고
15일 18:15 뉴스파노라마
16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7일 21:05 영화음악실
18일 14:05 음악의 마을
19일 16:10 BBS 초대석
20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4일 07:50 명상음악산책
15일 15:10 명상육아
16일 23:40 한국의 명찰
17일 15:10 출가재일 특집
18일 09:00 영상니르바나
19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20일 22:40 홍콩성지순례

###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18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디스커버링 부디즘>(3월 18일 오후 15:10~15:5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 절망 속에서 만난 부처님 (상)

이상문 (경기도 안양시)


그림 · 문병성

## "일확천금이 살 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죄 지어

"피고 이상문!"

"네."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는 강도상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힌 자로서 국가의 치안과 공권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바, 사회의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사회와의 장기적인 격리가 불가피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죽음과도 같은 중형(重刑)선고였다.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

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룻밤 꿈만 같았다. 아니, 하룻밤 꿈이길 간절히 기원했다. 하지만 양손에 채워진 은빛 수정(수갑)은 지금의 현실이 꿈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법무부 요시찰이란 이름으로 24시간 채워진 은빛 수정은 나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했고 면회 오시는 어머님과 아내를 통곡하게 만들었다. 오열하시는 어머님과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숨이 막혔다.

나의 머릿속엔 오직 죽음의 생각뿐 그 무엇도 없었다. 순간 순간 떠오르는 죽음의 생각과 함께 36년의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갔다.

3년여의 군 생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사회의 첫 발걸음,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 귀여운 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고 행복했다. 나는 당시의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했든가.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었던 나의 가정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IMF의 경제 위기, 운수 사업의 경영난, 부도….

갑자기 찾아온 큰 시련에 나는 몹시 당황했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술과 성적 쾌락으로 괴로움을 달랬다.

하루하루 나의 머릿속엔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됐고 일확천금(一攫千金)만이 지금의 시련을 극복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다. 결국 도박과 경마에 손을 대 가정의 생계 수단이었던 특수 화물차와 전셋집마저 탕진해 버리고 말았다.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던 나의 가정에는 근심과 걱정만이 남게 됐고 아내와의 다툼은 커져만 갔다.

인생의 실패자란 생각과 무능한 남자라는 자책감은 나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고 싶었다. 아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직 '돈'만이 잃어버린 나의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라 믿었고 이러한 헛된 망상들은 더욱 더 커져만 갔다.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내게, 뒤바뀐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났고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 자신을 설득했다.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득했던 헛된 망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의 뒤바뀐 한 생각(一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이웃에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급기야 검거 중이던 경찰관을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중죄(重罪)를 짓고 말았다.

0.8평의 콘크리트 무덤과도 같은 싸늘한 독방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숨 막히는 이 순간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목숨 기꺼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양손에 채워진 은빛 수정은 내 목숨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삶이었다.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있지만 내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죽음과도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 헤매고 있던 나에게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因緣)이 다가왔다. 아니, 부처님의 자비광명(慈悲光明)은 항상 나를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단지 나의 어리석음과 무명(無明)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

법무부 요시찰인 나를 유심히 관찰하던 인천 구치소의 김영호 부장님께서 내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문씨,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상문씨, 과거는 모두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또한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과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상문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시고 지금의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마음은 많이 편해지실꺼라 믿어요"라면서 청담 스님의 수행록인 <마음>이란 불서를 건네 주셨다.

'일체개고(一切皆苦)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고 36년 동안 믿어왔던 행복의 의미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행복이 물질적 욕망과 명예, 오욕락에 있다고 믿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며 더 좋은 차를 타는 것만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행복이 아니었다. '감각적 쾌락'이었다. 내가 굳게 믿어왔던 행복이 감각적 쾌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는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이 필요했던 것 같다.

청담 스님의 수행록을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진리(眞理)에 무지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오직 육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좇으며 탐내고 성내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 왔음을 깨닫게 됐다.

'과거를 알고자 하느냐?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알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깨어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모든 행 · 불행은 나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인과(因果)의 법칙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 백 천만년을 살아도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만났다.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던 나에게도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선지식들의 말씀과 불서, 참선 수행을 통해 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인천 구치소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항소심 재판을 위해 안양 교도소로 이감을 가던 날, 나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김영호 부장님은 은빛 수정으로 채워진 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며 "상문씨, 죽는 그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살아 가세요"라고 간곡히 말해 주었다.

부처님과 같은 부장님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다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 깊이 다짐했다.(계속)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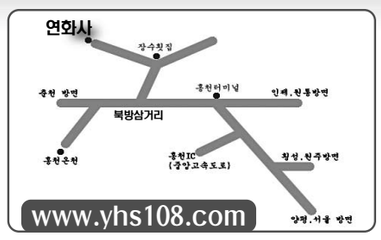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요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개국 10주년 불교TV

태국으로 떠나는 불교TV 해외성지순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방콕 * 아유타야 * 칸차나부리 * 파타야

2005. 3. 28(월) ~ 4. 2(토) 5박 6일 일정 금액 790,000 원

3월 28일(월)
인천 공항 출발
방콕 도착

3월 29일(화)
태국 제 2대 왕조 아유타야로 이동
왓야이차이 몽콜, 왓스리시산펫 순례
왓노카야수타 사원 순례
칸차나부리 이동 후 코끼리 및 뗏목 트레킹 관광


왓야이차이 몽콜


왓스리시산펫

3월 30일(수)
왓탐망껀 (물에 뜨는 스님)
왓탐카우뿌 (동물사원)
파삿왕씽무엉씽 (석조 고적유물) 순례 후 중식
콰이강의 다리에서 탐카새 죽음의 계곡 열차타기
위령제 봉행
전쟁박물관 견학
석식 (콰이강 선상 디너)


왓탐망껀


콰이강의 다리

3월 31일(목)
왓부타몬톤 (걸어가는 부처상)
왓프라파톰 파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탑) 순례
방콕 귀환 / 중식 후 왓프라케오
왓포 순례 (왕궁 - 에멜랄드 사원)
수상촌 관광 / 태국전통 궁중안마 체험


왓프라파톰 파고다


왕궁 - 에멜랄드 사원

4월 1일(금)
파타야로 이동
황금불상 순례
농록빌리지 순례 (코끼리 쇼 포함)
승가대학 방문 (회향법회)
방콕출발


농록빌리지


황금불상

4월 2일(토)
인천 공항 도착


지도법사
분당 수미산 불국사 주지
가섭스님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

봄이면 파릇파릇한 찻잎을 따는 손놀림만큼이나 바빠지는 것이 차인들의 행보다. 전국에서 차와 도자기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차심(茶心)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3월 30일 열리는 신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차와 도자기 축제의 주요 일정과 행사내용을 소개한다.



# 차와 도자기…축제 마당에 새봄이 왔네~

## 경주 신라도자기 축제-日 '라꾸 가마' 시연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청자' 세미나
##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시대별 다례 시범



봄을 맞아 차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차와 도자기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이 잇달아 열린다. 사진은 2003년 열린 세계도자 비엔날레에 참가한 아이들이 도자체험을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라도자기의 맥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신라도자기축제**는 3월 30~31일 경주 황성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를 주관하는 경주도자기협회는 1995년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현재 6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신라도자기축제를 개최해 회원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도자 제작 시연, 작가와의 만남, 전통 다례 체험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라꾸(樂) 가마' 시연을 펼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라꾸'란 일본 교토의 라꾸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도예기법으로, 임시로 만든 가마에서 결과물을 빠른 시간에 얻거나 다양한 색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소성법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다완을 만드는데 이 기법이 이용되었다. (011)516-8071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 일대에서는 4월 23일부터 '60일간의 도자축제'가 펼쳐진다. 3회째 맞는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내 최대의 도자기 축제로, '문화를 담는 도자'를 주제로 전시와 학술세미나, 참여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청자에 대한 전시회와 대규모 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 차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청자는 차와는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로, 신라시대 팔관회와 연등회 때 열린 다례행사에 청자다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청자 주전자와 찻사발 등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청자의 色과 形' 전시회는 정양모 문화재위원장이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국보를 비롯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고궁박물원, 미국 보스톤미술관 등에 소장된 청자유물 150여 점이 공개된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청자 찻잔을 찾아보는 것도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청자문화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 온 일본의 하세베 가쿠지씨, 중국 하남성 고고문물연구소 손신민 소장, 중국 항주시 문물보호관리소 두정현 부소장 등이 참가해 청자에 대한 최신 연구 및 발굴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주전자전'에서는 영국의 홍차 주전자 등 세계 각국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주전자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www.wocef.com (031)631-6509

7월 30부터 열리는 **강진청자도자기축제**는 청자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청자문화제를 민간 주도의 '명품축제'로 꾸민다는 방침 아래, 오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gangjin.go.kr)를 통해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차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경남 하동군은 지역 차 축제 일정을 두 달 여 앞두고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월 1일 82명의 조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경남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5월 19~22일에 개최하고, 올해를 '전국 차인 하동방문의 해'로 삼기로 결의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 '하동야생차의 비밀'을 주제로 한 주제관을 운영하고 중국다도 '용행 18식' 공연을 매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동야생차의 전설과 유래를 소재로 한 마당극과 퍼포먼스 '대렴공' 등을 공연하고 다구와 다포 만들기, 차 관련 동호회와 단체 홍보의 장도 운영한다. 이 밖에 그동안 선보였던 시대별 다례시범, 야생녹차 가요제, 올해의 명차 선정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055)880-211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다도구-차생활의 모든 것' 발간




차생활의 도반(道伴)이라 할 수 있는 다도구의 종류와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도구-차생활의 모든 것>이 나왔다. 차문화공예연구가 신수길씨는 다관과 다완, 찻잔을 비롯해 찻상, 다반, 찻통 등 차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다도구의 역사와 분류,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도구의 공예적 미학을 살피고 이 시대의 명인과 명장들의 작품도 함께 분석했다. 지은이는 "책을 통해 차인들이 다기류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다구들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다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솔과학, 3만원.

### 김운용의 '금속전' (17일까지)

무형문화재 김운용씨의 금속전이 3월 17일까지 대구 호텔인터불고 갤러리 쁘라도에서 열린다. 금 · 은 · 청동다기를 비롯해 상감입다기, 황칠다기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는 중국차 시연도 열린다. (053)952-0088

### 녹차, 심장마비 방지 도움
#### 英 <실험생물학연맹학회지> 발표

녹차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어린이 보건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실험생물학연맹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녹차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 후 찾아오는 세포괴사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심장 세포에 대한 실험 결과 녹차의 주화학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3-갈레이트(EGCG)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는 Stat 1이라는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 세포 괴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EGCG가 심장세포의 회복을 촉진, 세포조직의 회복도 가능하게 해 조직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에게 녹차를 마시라고 권고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왕 행차시 다상군 수행, 관료들 음다기풍 왕성

**고려시대 ⑨**

몽골의 침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전대에 성행했던 차문화가 계승되어 사사(寺社)에서는 물론 왕실의 행사에도 헌다나 다례가 빠지지 않았다. 왕의 행차 시에 다상군이 종군해 차에 관한 일체의 시중은 물론 호위 임무까지 수행했다. 또한 차가 일상화되기는 했으나 좋은 차는 귀해, 선비와 승려들 간의 교유에 고급차가 많이 오갔다.

중국은 송의 패망과 원의 건국으로 차에 관한 제도와 관장 기구 및 직책을 새로이 정비해 여러 곳에 전운사(轉運使)를 두고 관리했다. 일본도 대화차가 명성을 얻어 애용되고 다서도 여럿 간행된다.

① 이제현(1287~1367): 문인으로 사선(四仙) 일화가 전하는 묘련사 석지조에 차를 끓여 마셨고 송광 화상에게 보낸 다시가 유명하다.

안축(1287~1348): 문신으로 호는 근재(謹齋). 한송정 다헌(茶軒)이나 죽장사를 노래한 시가 <근재집>에 전한다.

박충좌(1287~1349): 문인이 차인으로 그가 지은 다시가 전한다.

② 이곡(1298~1351): 강릉객사에서 읊은 시와 한송정을 다녀와서 쓴 동유기(東遊記)가 있다.

③ 백운대사(1299~1374): 신광사와 흥성사에 주석한 다승이다. '직지심경' 등 다시가 전한다.

④ 원은 징기스칸이 건설한 몽골제국으로, 중국의 차문화가 러시아나 지중해 연안까지 퍼져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송대의 고아한 다풍이 변질되기도 했다.

⑤ 초기에는 송의 세다제도를 답습했으나 나중에는 각다제를 채택했다.

⑥ 양인제: 정부가 다세를 낸 사람에게 차의 판매권을 주는 허가증으로 다인(茶引)과 다유(茶由)가 있었다. 다유는 좀 더 소규모 다상에게 주는 것으로 5년여에 걸쳐 시행됐다.

⑦ 양유정: <음선정요>에서 자순, 작설, 온상차 등의 산지와 특징, 효과 등을 비롯해 청차, 초차, 향차 등을 끓이는 법을 설명했다.

⑧ 대화차는 이 시대 최고의 차로 막부에 보내졌는데, 그 단위가 섬(石)과 말(斗)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엽차(葉茶)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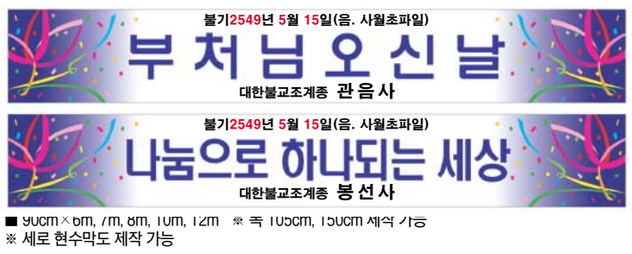
⑨ <끽다왕래>는 현해법사가 쓴 책으로 이 때의 일본차는 모미(도가노오)가 으뜸이고 청견(시즈미)은 말류라고 했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 한 국 | 중 국 | 일 본 |
|---|---|---|
| 고려시대 | 원대 | 가마쿠라 시대 |
| 1270 삼별초의 항거 | 1271 원(元)의 건국 ④ | @ 대화차(大和茶)가 극성 ⑧ |
| 1274 몽고군과 일본정벌 | 차의 자유매매 허용 ⑤ | 1279 수치다상(守治茶商) |
| 1276 통문관(通文館)을 둠 | 1276 양인제(兩引制) ⑥ | @ <끽다왕래>(현혜법사) ⑨ |
| 1279 연등도감을 설치 | 1277 강회각다도전문사를 두다 | |
| 1281 금자대장경사경소(金字大藏經寫經所) 설치 | 1279 남송의 멸망 | |
| 1283 일연선사를 국존으로 함 | 1280 각다도전운사 | |
| 1287 이제현, 안축, 박충좌의 출생 ① | 1288 양회도전운사 설치 | |
| 1290 왕의 행차에 다방군이 종군 | 강서각다도전운사 설치 | |
| 1292 홍군상의 죽음에 향과 차를 보내다 | 1294 철목아(鐵木兒)의 즉위 | |
| 1298 이곡의 출생 ② | 1296 양유정 ⑦ | |
| 1299 백운대사 ③ | | |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불기2549년 봉축현수막
불법복제판매 불허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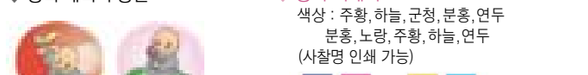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지하철(장엄)연수막




◆ 티셔츠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통칙스님 판화 작품

◆ 앞지마
색상 :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빨강, 녹색



◆ 봉축 캐릭터 풍선



(바람넣는 손펌프도 있습니다)

◆ 봉축 어깨띠
색상 : 주황, 하늘, 군청, 분홍, 연두 분홍, 노랑, 주황, 하늘, 연두
(사찰명 인쇄 가능)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정사조롱(5가지 1셋트)



◆ 봉축 캐릭터 등
색상 :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화재염려 없는
◆ T형 일체식 케이블
※ 실용신안등록 제품!




◆ 봉축 타이슬링



◆ 봉축 버튼



◆ 연꽃타올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 주황, 진녹, 밤색



◆ 봉축 리본



일반 고급 3단귀빈용

◆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호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찰명 인쇄)



앞면 뒷면① 뒷면②

◆ 황금목탁 핸드폰줄
(24K 도금)
신제품



◆ 자외선차단 썬캡
색상 : 빨강, 청색



◆ 성인모자
색상 : 빨강, 청색, 회색



◆ 아동모자
색상 : 빨강, 노랑, 청색



감로기획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한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한 구멍에다 놓아라

우리가 도반으로서 같이 묘법을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마음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세세생생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하면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 모두 합해서 평등공법이라고 하는데, 모두 합해서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속에 수많은 자생 중생들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없노라고 말입니다. 혼자 보는 것도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에도 무척 걸리는 것입니다.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을 때 밥통의 소켓트가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서 밥을 못하듯이 우리 마음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하게 만들어야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자라고 하고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켓트가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와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생 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지금 나오고 현실에 짓는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연방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오는 그 업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의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인연을 지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시 놓으면 미래의 업도 없어지고 과거에 진 것도 없어지니 한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한 구멍에다 놓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은, 딱다구리가 나무를 그냥 덮어놓고 쪼으면 나무가 뚫어지듯이 여러분도 무조건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을 하면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좌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으며 우리들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바로 놓아야죠. 바깥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으로 모든 것을 놓아 맡기고 너만이 아쁜 것을 낮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육신과 정신이 들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딱다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뚫으면 나무의 속이 텅 비듯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으면 알을 까서 생산 시키는 계기가 되죠. 깨달은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위에서부터 직결이 돼 있고 아래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찰나에 합쳤다가 찰나에 떨어지고 찰나에 합쳤다가 찰나에 떨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좌를 낼 수가 있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까닭에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이 돼야만 됩니다. 과거의 나는 바로 나의 조상이니까 부(父)고, 현실의 나는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할 때에 비로소 둘이 아닌 도리의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상봉함으로써 주장자와 주장자가 둘이 아니게 찰나 찰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이론으로 떨어지니까 법이 될 수 없고 법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음파가 한데로 떨어지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기에 성자가 날 수 없는 거죠. 성자가 날 수 있게 하는 건 생산해 내는 생산처가 되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법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여러 마리의 소를 봤을 때 한 순간 한 찰나에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된 주장자 자체는 바로 안테나가 돼서 일체제불의 마음이 찰나에 듭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니 그 소들은 무명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이 도리를 모르고 옷을 벗는다면 한 치도 발을 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린 공기주머니에서 나와서 공기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어항 속에서 고기가 사는 것과 같으니 그 어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내 자생 중생들 악업 선업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업식에서 벗어나야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 자유인이란 즉, 부처를 뜻하는데 여래라고도 할 수 있죠. 여래라는 뜻은 한데 합쳐서 나투고 화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공법 즉,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선이자 여래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꽃이 이쁘게 핀 것을 보면 한 순간에 꽃과 나와 둘이 아니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꽃은 화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없이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선(禪) 도리에서는 남녀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은 게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부자 가난뱅이가 따로 없고 또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부처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죽여서 개 먹이나 하겠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알고 보면 모두가 내 마음속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내면의 자생 중생들과 부처님 마음이 항상 통해서 돌고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도 집어먹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집어먹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집어먹는 것이 장엄인 것입니다. 장엄을 갖춘 거라고 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게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우연히도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 값을 주고 물건을 사 왔다면 돈을 준 사이도 없고 물건을 준 사이도 없이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두가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병고, 액난,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또는 세균성 이 모두를 바로 내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누리 없이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다면, 녹음된 카세트에 다시 녹음을 하면 앞서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업보 글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막혀서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왜 저런가 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증오하니까 모든 것에 벗어날 수가 없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옆의 나무가 스쳤다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가 부러진 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어째서 옆의 나무 잘못입니까? 옆 나무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원망이 돌아가고 증오가 돌아감으로써 항상 악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선업 짓는 것이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악업에 속하죠.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악업은 물론이고 선업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이 쫓고 악업을 짓게 되면 선업이 쫓으니 평생, 아니 세세생생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놓아라.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공덕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업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내세워 봤자 절대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입니다.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 나무가 살고 돌아가는 그 자체는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으니까 가지, 잎새도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내 방석을 제대로 찾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선법을 그대로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나무라면 나무의 잎새와 가지가 공기와 태양을 흡수하면서 뿌리에서는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 올리면서 또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정맥 동맥이 오르내리듯이, 여러분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TV를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우리들 살림살이와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작용하는 작용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원이 낮고 높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업신여길 수 있으며 '나'라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수억겁 광년 전부터 미생물에서부터 화하고 진화되어 이렇게 나투고 돌아왔으니 무엇은 안 되어 봤겠습니까? 그러니 벌레 하나를 봐도 업신여기기 이전에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몸속을 볼 때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이런 저런 모습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그 자생 중생들을 안고 집합소가 돼서 집이 돼 주고 있고 심부름꾼이 돼 주고 있고 관리인이 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을 먹는다 하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서의 의식을 다스리면서 너희는 전부 공해서 한마음이니까 둘이 아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의해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바로 나인 것이다. 이럴 때 바로 그 속의 의식들도 나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는 의식이 듭니다. 그것은 의식들이기 때문에 촉각으로 인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둔하지만 그 자생 중생들이 한마음이 돼 주면 두뇌가 아주 성숙해집니다. 물리가 터지고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는 모두가 가설이 돼 있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통하면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고 말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생 중생들이 병이 났으니까 내가 병이 난 거지 자생 중생들이 건강한데 내가 왜 병이 납니까? 자생 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인 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제각기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수라장이지 다른 게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바깥으로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의 의식이 바로 지금 지구의 레이다망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세포 하나하나가 법계입니다. 레이다망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모두 관리하고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통신할 것은 통신하며 안에서 통신을 받아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식들이 대기권에서 나가서 마음을 조절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한마음이 안으로 뭇 중생들을 다스리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야지 쫓아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오는 것대로 마다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재료로 삼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는 것 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요만한 데다가 들어부으면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또 요만한 통에다가 우주 같은 그릇에 담아 있는 것을 쓸어 붓는다면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다 흘러 버리겠죠. 차원이 높을수록 아마 그릇은 크고, 담기는 것은 여여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자리에서 생기는 그릇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부처님이 된다 할지라도 한 그릇의 부처님이지 두 그릇의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있다고 했다면 부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개개인으로 돼 있다면 여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제각기 돌아간다면 여래선이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면도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제자들이 "나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토굴을 짓고 산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너 그러면 땅도 짚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꽃을 보고 좋아하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도록 해라. 토굴을 짓더라도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야 하는데 왜 남의 것을 갖다가 짓고 공부하려고 그러느냐."는 그런 말씀에 홀연히 깨우쳐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50% 말이 좋고 이론이 좋고 학식이 풍부하다 해도 그것은 반쪽입니다. 안으로 구겨 넣을 것은 넣고 바깥으로 내놓을 것은 내놓고 중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50%만 안다면 보이지 않는 데의 50%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기만 하고 간다면 그 무슨 재밉니까? 그리고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차를 타는 것은 내리려고 타는 것이고 내리는 것은 타려고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유통되어 걸림 없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타는 거는 알면서 내리는 건 그렇게 안되는 게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쯤 가다 보니까 되는 건 되는데 왜 안되는 게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것이니 그것을 재료 삼아야지 그걸 업으로 삼고 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병고 애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살아오던 습성, 남한테 들은 습성, 습성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한생각이면 그냥 다 벗고 털고 일어나겠건만 깐죽깐죽 붙들고 늘어집니다. 왜 자기 걸어온 발자취를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냥 걸어왔으면 걸어올 뿐이지 왜 걸어온 자취를 쥐고 늘어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살이의 턱 놓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삼천 년 전을 바로 일 초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일 초를 삼천 년으로 늘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자생 중생들을 화하게 해서, 즉 말하자면 응신이 돼서 뭇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해 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수없는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그 때 용어로 모두 방편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감지하고 감응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의 용어로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불교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 바깥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으로 모든 것을 놓아 맡겨야

# 진실하게 자기 뿌리를 믿고 모든 경계 맡겨놔야

☞29면에서 계속

가 얼마나 발전하고 좋겠습니까?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의 생명도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전부 불입니다. 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불이며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말과 말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과학자든지 의학자든지 공업가든지 정치가든지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완전히 습득한다면 심성 천체 물리학이 되고 심성 의학이 되고 심성 천문학이 되고 심성 철학이 되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까닭에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평등공법입니다. 직접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평등공법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 연결이 돼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뜻을 말하고, 한 찰나에 만났다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찰나에 불으면 바로 부가 되고 한 찰나에 떨어지면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종정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말씀하신 자체가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이 공한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은 법대로 있고 행은 행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찰나에 불었다 찰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하고 부르면 "그래." 하면서 대답을 하고 한 찰나에 소켓트가 꽉 끼워지니까 둘이 아니게 불이 일어나서 마음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소켓트가 싹 빠져서 떨어지면 나는 나, 너는 너로 떨어졌다가, 또 "아버지!" 하고 소켓트가 붙으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서 "아버지, 뭐 어쩌구…." 이러고 한데 붙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세상만사가.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개별적으로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좋아지고 깨우치고 병도 낫는 등 가지각색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낫게 해주고 내가 가르쳐 줘서 여러분이 깨우쳤다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으며, 내 몸도 공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잘 아시고 그저 자유스럽게 살 수만 있고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자유인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세세생생에 남의 모든 마음을 집어넣어서 굴려도 손색이 없고 굴려서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다스리라고 믿고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스님,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관(觀)의 정의를,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되고 안되고를 모두 맡겨 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이 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하고 꽃은 꽃같이 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세간법으로 정치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민의에 따라 해야지 억지로 하면 언젠가는 불만이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만을 갖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읽는 것이 관이라고 하면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인연 따라 행하는 것이 무심으로 업식에 따르지 않는 좌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단이 생기는 것은, 스님께서 안될 때는 '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내라고 하시고 간혹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무심관에서 일보 후퇴하는 일심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며, 억지로 익은 감과 저절로 익은 감의 맛이 다르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스님: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과거의 부와 현재의 자가 상봉을 해서 둘로 보지 않고 관찰을 하는 것과 무지에서 관찰하는 게 다릅니다. 무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겉만 보고 나쁘다 좋다 하는 거고, 부와 자가 상봉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안팎이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 둘 아닌 관찰이라면 한생각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바로 손 없는 손이, 눈 없는 눈이, 귀 없는 귀가 찰나에 왕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행해진다, 즉 말하자면 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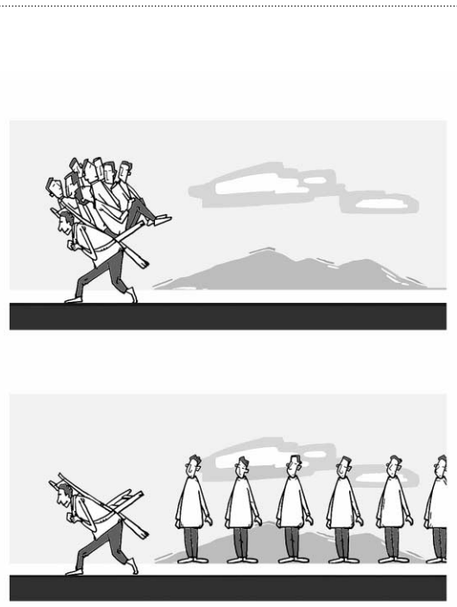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 스님 말씀 들으면 늘 그 말씀이지만 이상하게도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롭게 가슴에 와 닿고 해서 참으로 여일하신 설법에 진리는 들어도 들어도 새 맛이 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한마음 주인공' 하면 일체제불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스님도 둘이 아니게 들어 있으니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고 참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이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 제 주위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속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부모님의 병환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둘지 모르고, 잘 아는 형님도 그간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나이 오십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저기 숨어 있던 병들이 나와서 아주 어렵게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배운 바대로 분명히 말씀도 드리고 책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던 중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참으로 나의 마음에 원력이 충만해 있고 내가 아주 참사람이 됐다면 한 마디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냥 제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막 치밀어 올라서 참으로 제 자신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주인공이지' 하고 믿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은 가졌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말 잘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만사는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마음자리에다 이 사람 일도 저 사람 일도 맡겨 놓으세요. 또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소켓트가 바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알아야 되니 관하는 법을 듣게 하고 책과 월간지도 보게 갖다 주고 맡겨 놓으면 스스로서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으로 이것은 멀다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둘인가요? 공한 공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둘이 아닙니다. 들 아니게 관찰할 수 있는 다스림의 법이라면 그래도 어지간히 맞아 들어갈 텐데 왜 그래요? 잘해 봐요.

## 누구나가 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 떳떳하게 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질문자3: 저는 불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남편이 다리뼈 속에 종양이 생겨서 광주 신도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스님을 처음 뵙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뼈 속에 종양이 생겨서 무릎 위 9㎝ 아래 9㎝를 잘라내고 관절을 다 들어내고 인공 뼈와 인공 관절로 수술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인공 관절이기 때문에 자꾸 쓰다 보면 닳아져서 십 년에 한 번씩 재수술을 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그 수술을 할 수 없었기에 스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스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항상 "당신 주인공이 있으니 당신 주인공에게 맡겨 놓으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주인공이 무엇인지 너무 몰라 안타깝고 답답한데 스님께서는 뵐 때마다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오늘처럼 셋째 주 법회 법문을 하시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줄 알고 저를 믿고 저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스님만 믿고 스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공부해 가다가 나중에는 제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경계를 거기에다 다 놓고 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는 광주지원이 없었거든요.

다닌 지 한 일 년쯤 되니까 무릎 바로 밑 큰 뼈에 X-Ray로 보면 동그랗게 종양이 생겨서 썩어 버린 그 부분이 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혹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스님, 무슨 혹 같은 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놔둬, 그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밖으로 나오느라고 그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이 년쯤 되니까 그 혹이 밖으로 완전히 툭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발이랑 지팡이를 다 버렸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 목발 짚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다 버리면서 산이고 어디고 거뜬히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어제 박사 학위 마지막 종심 잘 받았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 동생 네 명이 이상하게 하나같이 아들들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 공부하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진실히 믿었더니 모두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낳고 또 임신 중이기도 합니다. 큰 남동생과 둘째 남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아들을 낳았고, 셋째 남동생은 결혼한 지 삼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신만 하면 유산되더니 이번에는 병원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스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딴 나무에 기대고 딴 뿌리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기복이 되는 거죠. 공덕이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기 뿌리를 믿고 모든 경계를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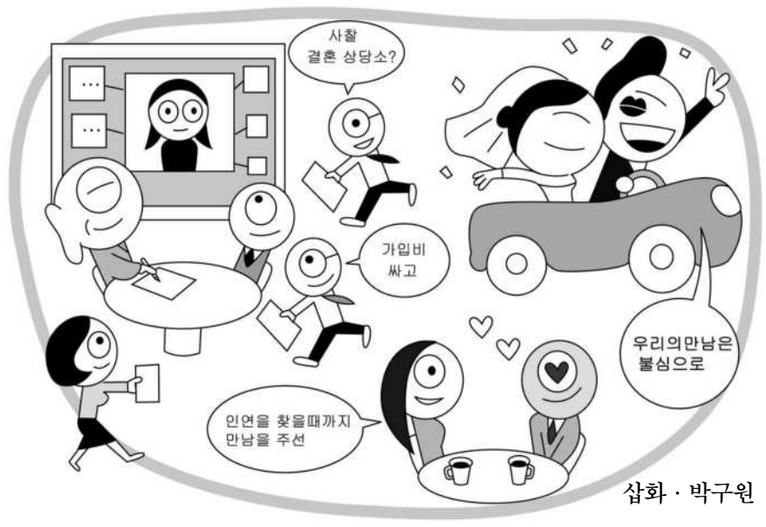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 부부인연 '될 때까지' 찾아오세요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는 부쩍 예식장이 바빠진다. 백년가약을 맺는 선남선녀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한 청춘남녀들은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애꿎은 친구나 친지를 동원하거나,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듀○' '○우'같은 결혼정보회사는 알아도 사찰 결혼상담소는 모른다고? 조계사를 비롯해 구룡사, 봉은사 등의 대형사찰은 결혼상담소를 10년 째 운영하며 수천 명의 선남선녀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찰 결혼상담소는 일반 결혼상담소와는 달리 가입비가 저렴하고 불자 가정만 회원으로 받고 있어 종교 갈등이 심한 요즘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삽화 · 박구원

## 사찰 결혼상담소 아시나요!

### 조계사, 구룡사 등 10년째 운영…종교갈등 없어 인기

■ **사찰 결혼상담소는?**=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봉은사 결혼상담소의 경우 약 6000~7000명 정도의 불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교제 중인 회원들은 약 120쌍, 1년에 평균 10쌍 정도가 결혼에 골인한다. 다른 곳도 평균 5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가입돼있다. 물론 모두 불자다.

사찰 결혼상담소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열고,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쉰다. 약 5~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팀을 꾸려 운영하는데, '인륜지대사'라 불리는 결혼을 아무나 상담할 수는 없는 일. 때문에 평균 6년 이상 결혼 상담만 해온 베테랑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가입비가 일반 결혼정보회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약 50~70만원을 받고 네 번 정도 소개를 주선해주는 일반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사찰 결혼상담소는 2~3만원의 가입비만을 받고 원하는 한 계속해서 인연을 찾아준다. 능인선원 결혼상담소에서 10년 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청련화(64)씨는 "불자가정끼리의 결합을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만남을 주선하는 그 자체가 포교"라며 "중개수수료를 만남횟수에 따라 더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커플매니저가 데이트 상대를 임의로 정해 연결시켜주는 일반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상대방 프로필을 보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사찰 결혼상담실 만의 장점이다.

■ **똑 부러지는 가입절차**=가입비가 싸다고 해서 가입절차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선 결혼상담소에서 만든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빽빽한 가입신청서에는 키, 몸무게는 물론 성품, 신체사항, 재산정도, 성격, 나의 재산, 가족 재산, 가족들의 학력, 직업, 본적, 주소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에 대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적는 란에는 상대의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성품, 용모, 신장, 재산정도, 좋아하는 인상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한다. 청주 덕선암의 경우 확실한 신원증명을 위해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도 받아와야 한다.

■ **될 때까지 주선**=사찰 결혼상담소를 통해 인연을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결혼상담소

### 6년 이상 경력 자원봉사자들 상담
### 만남 자체가 포교…가격도 저렴
### 가입 · 추천 절차 꼼꼼하고 합리적

를 방문해 이성의 프로필을 열람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 이 경우 상담소에서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 연결시켜준다. 두 번째로, 상담소 봉사자들이 직접 잘 어울릴만한 상대를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 봉사자들은 연령차, 양가 집안의 재산정도, 지리적인 위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장 잘 어울릴만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 만약 모처럼 맘먹고 나갔는데 상대방이 영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상담소로 전화해서 다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알려 주면 된다. 봉은사 결혼상담소 김불심화(58) 부장은 "불자들은 점잖아서 그런지 '상대방은 나무랄 데 없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조계사 결혼상담소 벽면에는 '민들레 영토, 아지오, 메리어트 호텔 라운지' 등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명소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표로 정리돼 있다. "어디서 만나야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런 장소를 물색해 놓는다"고 조계사 결혼상담소 청실홍실의 이선심장(56) 소장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 결혼상담소와는 달리 궁합을 맞춰서 상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능인선원과 구룡사는 결혼상담소를 통해 성사된 커플에게 관리비와 식사비만 받고 예식장을 빌려준다.

■ **그 밖의 불연 맺기**=사찰 결혼상담소 외에도 불자와 인연을 맺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대표적인 '불자 인연 맺기'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연꽃미팅페스티발'. 올해 4년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일 년에 한 번 이벤트 형식으로 열리며 대학생과 젊은 청춘남녀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상대방과 어울릴 수 있다. 불교 결혼정보회사 도반(www.doban9.com)은 온라인으로 결혼 상담 및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옥천 대성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따뜻한 만남(cafe.daum.net/dasungsa)'을 통해서도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전국 사찰 결혼상담소

| 사 찰 | 전화번호 |
|---|---|
| 서울 조계사 | (02) 723-7260 |
| 서울 구룡사 | (02) 571-2255 |
| 서울 능인선원 | (02) 577-9883 |
| 서울 봉은사 | (02) 547-7831 |
| 서울 불광사 | (02) 422-6065 |
| 옥천 대성사 | (043) 732-5560 |
| 청주 덕선암 | (043) 233-2131 |




## 약사여래 가르침이 근원

중공의 침공을 받기 전 티베트의 전통의사는 대부분 스님들이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속인 두 명씩을 후보자로 선발하여 수도 라싸의 의학성산대학(醫學星算大學)인 멘치캉에 보내 각각 의사와 점성사로 양성했다.

한편, 각 지역에서 뽑은 두 속인 학생과 함께 각 승원(큰 사원)별로도 두 명의 학승을 선발하여 같이 교육시켰다. 그래서 의학교를 마친 일반인 의사는 자기 고장으로 귀향하여 지역민들을 돌보고, 승의(僧醫) 중 한 명은 의학교에 남아 진료나 연구를 계속하고 다른 한 명은 소속 승원에 돌아가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의 망명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학교에서는 2년마다 신입생을 받고, 특별히 외국인에게도 티베트어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모든 종교 문화 및 학문 활동의 중심에 사원이 있다. 그리고 의학의 근원을 약사여래의 가르침에 두고 있다. 그 같은 티베트의 문화적 풍토에서 티베트의사는 단순한 의술의 시술자로서가 아니라 영과 육을 제도하는 약사불의 발원과 소임에 구족한 전법사로서의 예우와 신망을 받는다. 따라서 티베트의사는 철저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그에 걸맞은 의학적 식견과 성품 그리고 종교적 소양을 두루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4년의 <사부의전>과 기본교양 및 불교교리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5년째 들어 그동안 배운 <사부의전>에 대해 스승과 동료들 앞에서 엄격한 구두 및 지필 시험을 치른다.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연말에 티베트의학의 전문의로서의 치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도와 약사여래 입제식을 갖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보석 장신구와 화려한 의상을 걸치는 것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이 한층 빛을 더하듯이 그러한 의식은 의사의 치유력을 극대화시켜 준다.

6년째와 7년째는 티베트의학성산연구소의 한 지원에서 맥진 요진 그리고 환자의 다양한 임상실제에 대해 철저한 임상수련을 거친다. 그야말로 수학 기간과 내용 그리고 수련의 질과 양에 있어 현대 서양의학의 교육체계나 의사양성 과정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근대적 의학교육 체제가 벌써 오래 전부터 틀을 잡아온 것이다.

다른 대체의학에 비해 티베트의학은 국내는 물론 서구의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면허를 받은 정통 티베트의사나 전문가가 국내에 없고 서구에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주를 통틀어도 활동 중인 티베트의사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티베트의학의 특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티베트의학의 독특성은 그것이 불교철학원리, 천문점성학 그리고 정교한 심신관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티베트의학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 주요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세 가지 주요 에너지란 롱(Loong) 트리빠(mKhris-pa) 그리고 베컨(Bad-Kan)을 말하며 삼인(三因)이라고도 한다.

### 의사들, 시술자 식견외 종교적 소양도 갖춰야
### 티베트 의학 기본원리는 기 · 화 · 점액의 균형

롱(Loong; 한자로 '氣' 또는 '風'으로 의역됨)은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우리 신체의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마음 말하기 그리고 신체와 연결된 모든 운동과 활동들을 돕는다. 트리빠(MKhris-pa; '痰' 또는 '火')는 열에너지로 신체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체온 소화 그리고 생명력의 균형을 잡아준다. 베컨(Bad-Kan; '膽' 또는 '粘液')은 유체에너지로 신체를 두루 순환하며 우리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체의 안정기능과 림프계를 돕는다. 이 티베트 용어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각기 '바람' '쓸개즙' 및 '점액질'이 되겠으나 우리말 뜻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니 가급적 음역으로 사용하겠다. 독자들께서는 롱 트리빠 및 베컨이란 용어를 잘 숙지해 주길 바란다.

세 에너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나 그렇지 못할 때 병에 걸리게 된다. 티베트의학에서 그 세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리는 장기적인 주원인으로는 무지(無知)를 들고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제3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3기 개강일 2005년 3월 17일 (목) 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원효사 불교교리 무료강좌

◎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가능
◎ 기초교리, 경전 및 중 · 고등 천자문, 신앙상담(무료)수지침, 사혈침(3 ~ 6개월 과정)
◎ 강 사 진 : 원각 큰스님, 고산 법사, 초청강사
◎ 개강일시 : 을유년 첫 개강일 3월 20일 (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 특 전 : 본 강좌 수료 후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초청특별강의 : 박 완 일 (동국대 교수, 전 불교신도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불교대학. 원효사
주지 · 학장 석 원 각 합장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248의 6
(대구호텔 옆 삼원신협 3층)
따르릉 053)563-9154

수행건강학과
대구 · 부산지역 학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장소에서 접수 )
2. 교육과목
- 무량의경 (한문)
- 묘법연화경 (한문)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한문)
- 두뇌운동법 (의념) • 호흡운동법 (조절)
- 유화운동법 (동작) • 음식영양학 (체질)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건강활법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 (평생무료학습)
- 이스트 웨스트 대학교 대체의학과에 편입가능
- 수료후 연구활동 등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財)韓國平生大學

여시아문



참선인을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육성법문

# 큰 깨침에 생사를 초월하라!

## 봉산법어선해
## (蒙山法語禪解)



1Set(60분 Tape × 8개)
값 18,000원

본참공안을 의심할지니, 큰 의심에 반드시 큰 깨침이 있다. 천만 가지 의심을 한 의심으로 뭉쳐서
본참공안에서 결판을 내도록 하라. 움직이거나 가만있거나 한결같고, 자나 깨나 또렷또렷하여,
화두가 나타남이 물 속에 비친 달빛이 여울 속에서도 활발발하여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안으로는 고요하여 요동치 않고
밖으로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의심 덩어리가 부서지면 바른 눈이 열리는 것이다.

① 고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古原上人), ② 각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覺圓上人), ③ 유정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惟正上人)
④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上, ⑤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下, ⑥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⑦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대중에게 보임(蒙山和尙示衆), ⊙ {부록} 불교TV 초청 무상사 특별 법회(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

**총 판 : 여시아문 Tel : 02)737-0695(www.yosiamun.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www.ibud.buddhapia.com



졸업 · 입학 기념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 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매일 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뉴스

현대불교신문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되며 불교뉴스에 대한 해설, 분석 등도 함께 기사로 서비스 됩니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교계의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기사 제보 코너가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법문

이시대의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상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은 주로 문자형태로 큰스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장, 선원장, 주지 스님 등 다양한 계층의 스님과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법문의 경우는 문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 큰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교양대학

크게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강의로 나누어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과 문자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의는 불교미술, 다도, 꽃꽂이 등 다양한 강좌들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사이버법당

매일매일 하루를 경책하는 경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신이 속한 사찰의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직접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등 접수, 기도 접수 등 사찰의 다양한 종무행정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찬불가코너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의식곡을 비롯해 창작 찬불가까지 서비스되며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벗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밀수 있는 스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e-BOOK

불교계 최대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E-BOOK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벗 단말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와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교문화샵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불교문화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